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문학석사학위논문

조해일 소설에 나타난 1970년대 한국의 현대화 양상

2022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현대문학전공

권 우 령

조해일소설에 나타난 1970년대 한국의 현대화 양상

지도교수 방 민 호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현대문학 전공
권우령

권우령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년 7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문초록

본고는 조해일 소설에 나타난 1970년대 현대화 양상을 연구하고자 하는 글이다. 조해일 문학을 논하는 데 있어 간과할 수 없는 두 요소는 그는 산업화시기를 경험한 작가이자 남성작가라는 사실이다. 그는 「겨울여자」이라는 작품으로 베스트셀러작가로 되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그를 대중소설 작가로만 인식했다. 대중소설은 대중성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장르로써 문학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많이 듣는다. 특히 대부분의 연구들은 조해일을 당대 이데올로기와 무관한 작가라고 판단해왔다.

그의 문학은 1970년대 혼란스러운 사회적 배경에서 시작했다. 한국 소설사에서 1970년대는 새로운 리얼리즘의 시기이고 대전환의 시기였다. 또한 1970년대는 박정희 정권의 통치가 대단한 시기였다. 1970년대란 정치권력이 체제 유지 이데올로기의 정립 아래 권위주의적 경제개발로 독재체제를 확립하면서, 이에 저항하는 민중들을 반체제 집단으로 몰고 간 사회로 평가된다. 이런 폭압적 유신시대에 대응하던 1970년대 문학은 체제 저항적일 수밖에 없었기에 체제의 폭력과 체제가 야기한 비합리주의와 비인간성을 폭로하고 그 극복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므로 1970년대 문학은 산업화 시대의 민족문학으로서 저항의 서사와 대안적 근대를 모색한 시기의 문학이라고 평가된다. 고속도로 성장한 경제개발은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는 동시에 한국에 어두운 그늘을 비춰주었다. 1970년대란 이런 정치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의 정치적 억압이 고도로 집중되면서 사회에 만연했다. 1970년대의 작가들은 이런 시대의 부조리를 고발하고 비판하는 수작들을 양산했는데 조해일이 바로 이중의 일인이었다.

조해일은 모든 문제를 관념화하지 않고 일상적인 생활의 문제로 풀어나간다. 자본주의 사회가 관념적인 영역에서 개인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일상적인 영역을 지배함을 인식한 작가의 현실 인식에서 가는한 것이다. 일상적인 생활을 살아가는 일상적인 사람들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포착하는 것은 또한 조해일 소설의 미적 특징이다. 일상적인 인물을 소설의 주인공으로 설정하고, 일상적인 생활에서 발생하는 자잘한 일들을 소설의 사건으로 설정한 것은 근대소설까지 없었다. 현대소설에 와서야 소설가들은 '개인'에 대한 자각이나 '자아'의 각성이라는 담론에 의해

개인의 문제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으며, 그럼에 따라 개인에게 일어나는 자잘한 일상적인 문제들이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로 하여 일상성은 근대 사회의 개인에 대한 문제를 중시한 '현대성'의 중요한 요소로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렇다면 '현대성'의 한 양상으로서 일상성이 소설 속에 서사화 된 양상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조해일 소설에 대한 접근은 일상생활을 하는 근대적 자아가 어떤 모습으로 설정되고 있으며, 이러한 인물이 살아가는 근대 사회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모아져야 한다.

소설은 사회를 반영하며 사회를 이야기한다. 1970년은 한국 경제가 급속하게 발전하는 시기였다. 하지만 여태껏 조해일에 관한 연구는 폭력, 도덕, 남성성 등에 머물러 있었다. 그래서 본고는 조해일의 「매일 죽는 사람」「뿔」「아메리카」「겨울여자」를 선택하여 이 텍스트로 부터 1970년대 한국사회의 현대화 과정을 알아보려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4편의 텍스트는 작가가 제도의 폭력성을 비롯한 산업화 시대의 다양한 모순이 지닌 비인간성과 불합리성을 비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2장은 문학사적인 맥락에서 일상성이라는 용어와 알레고리라는 용어에 대하여 의미를 규정하고 구체적인 텍스트 「매일 죽는 사람」「뿔」「아메리카」와 연결하여 도시 공간으로서의 서울의 도시적 의미와 사소한 일상생활을 통해 1970년대 사회의 변모를 알아보려고 한다. 제1절에서는 「매일 죽는 사람」「뿔」이라는 작품은 서울을 소설의 서술배경으로서의 도시공간에 대한 조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1960년대 경제개발정책으로 도시의 구조가 크게 변모되고 도시는 이런 산업화와 함께 형성되었다. 그 결과 한국의 도시는 압축된 발전과정을 겪으며 가치관의 혼란의 야기되었고, 자본주의적 욕망이 만연해졌으며, 사업투기로 도시 신중산층이 급부상하여 사람들과 하층민과의 빈부격차로 양극화가 생기는 공간이 되었다. 이 시기의 도시를 중심으로 한 작품에는 '한국사회가 개발과 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의 과정을 밝은 결과'가 반영되어 있다. 이 시기의 사회는 "근대와 근대 이전의 요소가 혼재된 과도기적 사회"로 볼 수 있는 것이다.

1970년은 또한 한국이 미국에 많이 의지한 시대였다. 내적으로 분단. 경제위기, 대통령선거 등 중대한 사건에서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박정희는

미국과 손을 잡았다.「아메리카」가 바로 미군기지촌 여성들의 삶을 분석하면서 1970년대 한미관계에 대해 언급하며 병이든 한국현실에 대해 폭로하였다. 소설은 미군 기지촌에 기생하는 숱한 여인들이 등장하고 주인공 청년과의 어설픈 행위가 극히 육감적으로 묘사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조해일이 기도하는, 그리고 독자들이 호소 받는 주제는 역시 사랑이나 섹스가 아니라 비참한 현실들에 주눅 든 이웃과 더불어 살고 있음의 윤리적 책임감이었다. 여태껏「아메리카」에 관한 연구는 미군흑인, 기지촌 여성문제, 혼혈인등에만 집중되었다. 2절에서는 서울이라는 공간에서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서울의 주변부 기지촌의 생활을 서술하면서 미국 중심으로 생활하는 한국현실과 기지촌 여성들에 대한 연민, 동정의 감정에 주목하였다.

3장에서는 조해일의 대표작「겨울여자」를 분석하려고 한다. 대표작인 만큼「겨울여자」에 관한 연구는 적지 않다.「겨울여자」는 주로 남녀 간의 사랑이야기를 주요 내용으로 삶아서 사건이 전개해 나간다고 할 수 있다. 이로 하여 이왕의 연구들은 연애, 결혼 등에 집중하여 연구를 하였는데 본장은 유이화 라는 여성이 여러 남성과의 ㅇ나는 과정에서 무엇을 깨달았고 이런 남성들은 무엇을 상징하고 당시의 사회현실을 어떻게 반영해주고 있는가에 대해 연구하려고 한다.

주요어: 현대화, 일상성, 하층계급, 사회비판
학번: 2019-25790

목 차

1. 서론 ····· 1
1.1 선행연구검토 ····· 6
1.2 연구시각 ····· 12

2. 1970년대 서울 및 주변부 바라보기 ····· 13
2.1 알레고리형식과 현대성비판 ····· 14
2.2 미국중심의 서구화 과정과 질병적 현실-<아메리카> ····· 30

3. 조해일 소설의 도시비판과 여성의식 ····· 48
3.1 1970년대 유신체제속의 현대화과정 ····· 48
3.2 남성중심적인 사회와 이화의 저항 ····· 69

4. 결론 ····· 84

<참고문헌>

1. 서론

1.1 선행연구 검토

조해일(1941~2020)[1] 은 1970년 중앙일보 신춘문예「매일 죽는 사람」으로 등단했다. 그의 본명은 조해룡으로서 1941년 만주에서 태어나 1945년 귀국하여 서울에서 성장했다. 이 작가는 일상 속에 만연된 폭력의 여러 양상을 우의적으로 형상화했으며, 미군부대 기지촌을 무대로 전개되는 삶의 비극적 양상을 생생하게 파헤친 중편소설「아메리카」를 비롯해「뿔」「대낮」「겨울여자」 등의 작품이 있다. 그는 1975년 중앙일보에 연재한「겨울여자」의 출간과 영화로 인해 그의 이름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조해일에 관한 본격학술연구는「겨울여자」에만 집중되었거나 여성 표상 등 특수한 문제에 천착하거나 등단작 한 편만을 분석하는게 추세였다. 이는 작품 수가 많지 않기도 하지만 작품의 특이성 때문이기도 하다. 개개 작품마다 기발한 상상력을 발휘하고 독특한 구성을 이루고 있어 일정한 틀에 묶기 쉽지 않다. 70년대의 평론가들은 조해일을 황석영, 최인호과 더불어 “70년대 작가[2]”라고 일컫었다. 70년대 작가들이 다루고 있는 주제는 한 개인 혹은 한 집단내의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성이라는 점이다. 그것은 한 개인의 비극 혹은 한 집단의 체험과 현실을 확대 시켜 한국 사회의 구조적 양상으로 바라보게끔 만든다는 것을 지적한다.[3] 그러나 현재의 논단은 그를 그냥 70년대의 대표적 베스트셀러「겨울 여자」의 작가로만 기억한다. 그것은 1970년대 이후 조해일이 발표한 작품이 손에 꼽힐 정도이기 때문이다. 어떤 원인으로 그가 지속적으로 창작을 안 했는지 (혹은 못 했는데)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작품의 생산은 주로 1970년대에 자신의 소설적 역량을 집중했던 작가로 규정 짓게 하는 데에 일조한 것은 사실이다.

1970년대 문학을 흔히 소설의 시대라고 한다. 이 말속에는 문학성과

---

1) 그의 가족은 만주에서 귀환한 유랑민이다. 조부가 일제 강점기에 북간도로 이주한 후 살았으며, 만주(하얼빈)에서 태어난 조해일은 4살 때 해방을 맞아 귀국한다. 하지만 제대로 정착하기도 전에 6.25전쟁이 나서 부산으로 피난을 가서 피난민 생활을 했으며, 다시 서울로 돌아와서도 동두천과 왕십리 등 여러 곳을 옮겨 다녔다.

2) 70년대의 작가들의 세계각 전 세대의 그것과는 다른 시대적 특징을 갖고 있고 그것이 바로 산업화 사회의 과정 가운데서 파생괴고 있는 세태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이며 그것은 우리로서는 충분히 낯선 풍속이라는 사실이다. - 변동사회와 작가

3) 김병익,『상황과 상상력』, 문학과 지성사, 1979, 92면.

사상성의 양 측면에서 성취를 보인 문제작들이 양산되었다는 의미와 대중적 상업적으로 성공한 작품들이 많이 나왔다는 두 가지의 의미를 모두 포함한다. 이 유형에 대해서 그것이 대중소설이라고 하여 현실을 왜곡시킨 작품군으로 부정적 가치평가를 내리는 것에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여기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말한 것은 문학과 사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문학이 사회의 어떤 면에 집중하여 그 면의 진실을 드러내려 할 때 그 표현과 내용의 판단에는 역사 사회적 제반 조건들에 대한 검토가 병행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4]

조해일의 작품에 대하여 대표적인 기존 연구의 세부 경향을 훑어보면, 문영희는 조해일의 작품 전반을 관통하는 경향은 '폭력'에 관한 고찰로 분석하고, 그 '폭력'의 근원지를 오이디푸스적 사회구조에서 찾아내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권력, 가부장적 사회구조, 체계나 권력과 공모하는 지식인집단, 중산층의 도덕적 무정부상태, 심지어는 '가족'이라고 불리는 구성체가 무의식적으로 개인에게 행할 수 있는 것에 이르기까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도 가해자의 집단 혹은 입장에 설 수 있는 모든 경우를 '폭력'이라는 이름으로 아우르고 있다고 분석하였다.[5]

이화진은 초기단편소설에서부터 조해일은 1970년대가 떠안고 있는 정치경제적 현실과 대중성을 독특한 담론으로 등장시킨 작가라는 평을 받고 있었듯이 장편소설을 통해서도 그는 현실의 문제를 치밀하게 탐색하고 핵심적인 문제를 담아내기 위해 장르적 개방성을 이루어냈다고 평가했다.[6]

권영민은 조해일이 이 시대에 활동하고 있는 가장 자유로운 작가로 평가했다. 그의 소설은 중요성은 작품 자체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온갖 시련 속에, 그리고 현실의 모든 망령을 극복하고 좀더 가까이 우리들의 적나라한 현실에 접근해 가도록 해주는 그러한 기회 속에 그의 소설의 중요성은 존재한다고 평가하고 있다.[7]

김병덕은 조해일의 소설이 현실의 폭력을 고발하고 윤리의식을 지닌 인물을 내세워 대응하고자 하였음을 증명하려는 입장이 그동안 '대중소설'이나 '연애소설'등의 한정된 키워드에 가려 사상되어 있던 작가의 현실대응

4) 김진기, 『문학으로 사회읽기』, 박이정, 2003, 169면.
5) 조해일, 『아메리카』, 창비, 2005, 338면.
6) 이화진, 『조해일 대중소설의 서술전략과 남성주체의 내면의식』, 반교어문연구, 2018, 247면.
7) 이화진, 『조해일 대중소설의 서술전략과 남성주체의 내면의식』, 반교어문연구, 2018, 247면

의식을 구체적으로 규명해 평가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8)]

김지윤은 조해일의 초기소설에 나타난 남성인물의 형상화 방식을 살펴봄으로써 작가의 글을 보다 연속적인 관점에서 파악하고, 그간 조해일 연구에서 다소 평면적으로 해석되어 온 남성성의 다양한 양상을 자세히 살피는데 주목했다.[9)]

김치수는 “조해일의 중인광과 만나게 되면 작품의 인물이 작가에 의해 ‘만들어진’이야기라는 가장 ‘상식적인 것’이면서도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한다”고 보면서, 조해일의 인물창조를 “현실에 대한 자각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한다.[10)]

조해일[11)]의 소설은 오락성에 기반을 둔 장르적 고정화에 머물지 않고, 독특한 창작기법을 통해 기형적인 사회문제를 관심 있게 관찰한다. 당시 억압적인 정치권력 아래서, 모순된 현실을 직접 비판하기보다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구현해 냈다.

조해일의 작품에는 도시의 하층계급 양상, 기지촌 여성문제. 영웅적 인물등장, 환상적 내용, 역사소설의 재창작 등을 거치면서 정치적 알레고리를 배면에 깔고 비인간적 현실에 대한 무기력한 지식인의 대응을 통해 1970년대적 체제 저항의 수사를 형성하였다. 또 조해일은 도시 변두리의 소시민적 삶의 부조리와 현대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1970년대 문학의 한 전형을 보여준다.

감정을 배제한 객관적 묘사와 지적이고 남성적인 문체로 산업화시대를 살아가는 소시민들의 일상성을 주목한 작가로 평가받는다. 또한 송영이 그를 “스타일리스트이자 아이디어맨”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그는 특색 있는 작품을 창작하는 작가였다.[12)] 특히 도시적 근대화의 과정에서 야기된 근대

---

8) 김병덕,「폭압적 정치상황과 소설적 응전의 양상: 조해일론」,『비평문학』49, 한국비평문학회, 2013.
9) 김지윤,「조해일 소설의 남성성 다시읽기」, 구보학보, 2018.
10) 김치수,「초월적 힘, 혹은 파괴적 힘-조해일의 작품세계」,『조해일 선집』, 신한국문제작가선집 5권, 어문각, 1979, 409면.
11) 조해일에 대한 당대 문단의 비평은 대개 작품집 해설에 그치고 있다. 김병익,「호모 파벨의 고통」, 조해일,『아메리카』해설, 믿음사, 1974; 김병익,「가난한 사람들의 가난한 사랑」, 조해일,『왕십리』해설, 삼중당, 1975; 권영민,「내용과 수법의 다의성」, 송영, 조해일,『삼성판 한국현대문학전집』54 해설, 삼성출판사, 1981; 김현,「덧붙이기와 바꾸기: 임꺽정 이야기으 변용」, 조해일,『임꺽정에 관한 일곱 개의 이야기』해설, 책세상, 1986.
12) 황석영,「역행의 아름다움-조해일 단편소설 <뿔>해설」,『황석영의 한국명단편101』5권, 문학동네, 2015.

적 폭력성에 대한 성찰과 더불어 장편소설에서 보여준 멜로 서사적 코드의 대중적 교감을 통해 대표적 대중작가로 주목받는다. 그의 작품에는 독특한 인물이 자주 등장한다. 그것은 사회·현실에서 파생되는 문제를 은밀하게 파헤치고자 하는 창작의도 때문일 것이다.[13)]

조해일 문학은 1970년대 혼란스러운 사회적 배경에서 시작했다. 한국소설사에서 1970년대는 새로운 리얼리즘의 시기이고 대전환의 시기였다. 또한 1970년대는 박정희 정권의 통치가 대단한 시기였다. 1970년대란 정치권력이 체제 유지 이데올로기의 정립 아래 권위주의적 경제개발로 독재체제를 확립하면서, 이에 저항하는 민중들을 반체제 집단으로 몰고 간 사회로 평가된다. 이런 폭압적 유신시대에 대응하던 1970년대 문학은 체제저항적일 수밖에 없었기에 체제의 폭력과 체제가 야기한 비합리주의와 비인간성을 폭로하고 그 극복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므로 1970년대 문학은 산업화 시대의 민족문학으로서 저항의 서사와 대안적 근대를 모색한 시기의 문학이라고 평가된다. 고속도로 성장한 경제개발은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는 동시에 한국에 어두운 그늘을 비춰주었다. 1970년대란 이런 정치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의 정치적 억압이 고도로 집중되면서 사회에 만연했다. 1970년대의 작가들은 이런 시대의 부조리를 고발하고 비판하는 수작들을 양산했는데 조해일이 바로 이중의 일인이었다.

대중소설가로 불리는 조해일은 1970년 「매일 죽는 사람」부터 1986년 「임꺽정7」에 이르기까지 주로 중단편의 소설을 발표했다. 조해일의 작품은 1970년대 비참하고 고통스러워하는 하층계급의 생활에 개입하면서 그들의 생활을 다방면으로 묘사하였다. 그의 작품은 냉정하고 관찰적 이라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서울의 가장 낮은 곳에 살고 있는 하층계급의 생활을 통해 당대를 읽지만 그는 개인들의 생활에 몰입하여 동요하거나 판단하지 않는다. 상황으로부터 시대를 발견하고 인물을 통해 일상의 진실을 존중하는 것, 그리하여 뺄 것도 더할 것도 없는 그 자체의 진실성에 밀도 있게 천착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조해일의 작품은 대중소설, 신문연재소설, 추리소설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그는 늘 살아온 시대의 모습을 포착함으로써 인간의 삶의 다양한 양상을 통찰력 있게 드러냈다.

---

13) 김병익, 「호모·파벨의 고통」, 『아메리카』, 믿음사, 1978, 368-369면.

1970년대의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근대화이다. 근대화 과정에서 사람들의 의식구조는 크게 변화했는데, 이를 구체적이면서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 바로 '서울'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서울이라는 도시 배경으로 하층계급의 삶에서 드러나는 갈등을 형상화한 작품인 「매일 죽는 사람」과 사회병리와 경제발전의 불균형을 다루는 「뿔」에서는 일상성에서 출발한 도시적 공간의 의미. 욕망표현, 사회적 불평등 문제 등을 탐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 소설들은 인간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과 낙관적인 자세를 입증하려고 하듯이 소설의 결말이 인간의 생활 방식에 대한 비판이 아니고 인간의 현실적 상황이나 삶에 대해 긍정적인 의도로 마무리 된다. 그리고 조해일은 인간의 경험을 풍부한 상상력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확고한 위치에 도달하였다. 「아메리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조해일은 천박한 인생관에 기반을 둔 사회에 살고 있는 인간들을 보여주면서, 인간의 삶의 지루하고도 사소한 점, 전혀 매력적일 수 없는 요소, 그리고 그러한 요소가 들끓는 현실적 상황 속에서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하는 어려움 등 어떠한 것도 감추려고 하지 않았다.

끝으로 성, 여성문제를 그림으로써 가부장제에 대한 비판, 결혼 연애 자유 문제, 정체성 문제 등에 대해서도 중요한 논의가 이어졌다. 조해일 소설은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소설이 많지 않다. 대부분 남성 주인공 시각으로 여성의 삶을 부각시키고 문제점을 제기한다.

조해일의 작품은 지금까지 여러 방면에서 논의되었으나, 그동안 현대화란 주제로 하는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대소설의 뚜렷한 특징 중의 하나가 바로 '일상성'이다. 근대문학의 계몽기로부터 일상은 사람들의 내면 의식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새로운 통로가 되었다. 역사의 맥락에 속해 있는 일상은 도시 사람들의 의식구조와 심리상태, 그리고 사회 양상을 포함한 혼합적인산물이다. 이런 일상을 통해 우리는 소설 주인공의 잠재적인 내면의식, 가치관, 그리고 숨어있는 사회적인 갈등 등을 발견할 수 있다. 범위를 좁혀서 말하자면 한국의 근대사는 일제 식민지시기, 분단, 독재 등의 특별한 역사적 사건들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제까지 한국의 소설은 이와 같은 거대사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그리하여 작가들은 사회의 미시적인 사건들과 주변에 흔히 볼 수있는 일상에는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 평범한 일상은 사람들의 미묘한 심리

와 감정을 담고 있으며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사회 각 계층의 사람들의 생활 형태, 사고방식, 심리적인 변화 등등을 헤아릴 수 있다. 또 일상은 누구든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것이며 개인적이고 내밀한 관계들이 아주 밀접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독자들로부터 공감과 감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무엇보다 일상성은 산업화·도시화와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작가들이 일상성에 주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

또한 한국의 1970년대는 정치적으로는 패쇄적이었던 반면에 경제적으로는 급격한 성장이 나타났던 시기로, 한국의 근대화와 산업화의 욕구가 절정에 이르렀던 시기였다. 그래서 전쟁의 그늘, 새로운 정권 하에서의 정치적 억압, 나은 삶을 향한 극도의 갈증은 조해일 작품에서 나타난 1970년대 한국의 사회상의 배경이 되었다.

소설은 흔히 꾸며진 이야기라는 광의의 개념으로 규정할 수 있지만 이 서사양식은 시대적 과제에 응답할 치열한 작가의 현실 인식과 경험이 반영되어 있다. 일상적인 현실에서의 잡다한 경험들은 소설의 세계 속에서 재구성되고 질서가 부여되며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게 마련이다. 1960년대와 70년대의 한국사회는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발전이 서로 얽혀서 커다란 사회변동을 일으키고 있었다. 이때의 리얼리즘 소설은 특유의 현실 반영성으로 산업화시대의 급격한 사회변동과 모순을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형상화해냈다. 그러므로 본고는 대중소설로 널리 알려진 조해일의 작품이 작가만의 가치관 세계관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그가 형상화하고 있는 1970년대적 현대화의 의미를 재해석해보조가 한다.

1.2 연구대상 및 연구시각

본 연구에서는 조해일의 작품 중 서울이라는 도시를 배경으로 하층계급 삶에서 드러나는 갈등을 형상화하는 작품인「매일 죽는 사람」,「뿔」 국제적 환경 속에서 생활의 난을 겪는「아메리카」그리고 남녀 간의 성을 모티프로 삼은「겨울여자」등의 소설을 대상으로 삼아 작품 속에 포착된 도시적 공간의 의미, 주인공의 심리적 변화 및 이런 변화를 만들어낸 사회의 질병 등의 문제를 탐구하고자 한다.

앞서 말했듯이 1970년대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근대화였다. 근대화라는 생소한 지배담론을 대중에게 전파하기 위해서는 기존 통념과 접합시키되 그것을 변형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담론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박정희 체제는 근대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김종필의 글의 내용에 따라서도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한 전체적 근대화를 주장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박정희 시대를 거치면서 '조국근대화[14]'와 '자주국방'이란 기치 아래 급격히 산업화되고 국방력이 증강되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15] 그 과정은 한편으로 농업사회가 산업사회로 바뀌는 과정이었고, 다른 한편으로 반공주의적 근대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이었다. 거시적 수준에서의 이러한 변화들은 미시적 수준에서 개개인의 일상생활이 산업사회의 노동력으로, 반공주의적 국민을 재구성시키는 과정이기도 했다.

박정희 시대, 소위 '발전국가' 시대에 병역이란 개인의 신체를 강제 징발하여 무임금 노동을 강요하는 '역'으로서의 의미와 더불어 군사적으로 규율화 된 순종적 시체를 생산해낸다는 의미를 동시에 가졌다. 강제 징집제는 국가주의 국방담론 아래 근대적 목표와 중세적 수단이 시대착오적으로 결합된 인간개조메커니즘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의 개인들은 공장에서가 아니라 군대에서 혹은 군대식으로 운영되는 특례업체에서 근대적으로 규율화 되는 몸단련을 받았다. 그러한 의미에서 당시의 구호 '조국 근대화'는 곧 '조국 군대화[16]'였다. 군대에서는 사회에 연장될 군대식 노동규율을 몸에 익혀야 했고, 사회에서는 병역특례제도와 교련교육. 예비군제. 민방위제를 통해 군대식의 무조건 복종 생활을 몸에 익혀야 했다. '노동자 군인'과 '군인 노동자'가 바로 박정희 시대에 개인이 규율화 되고 주체화 되는 두 가지 형태였다. "싸우며 일하고, 일하며 싸운다"는 구호가 의미하는 바는 바로 이것이었다.[17]

조해일은 「겨울여자」로 베스트셀러작가로 등록되었다. 그러나 함께 70년대 작가로 평가받은 황석영과 최인호 등에 비해 조해일에 관한 연구는 미흡하다. 지금까지 조해일에 관한 연구는 주로 몇 가지 작품에만 집중되었

14) 박정희 체제의 핵심 정당화 담론중의 하나는 조국 근대화였다. 그럼에도 박정희체제는 쿠데타 직후가 아니라 집권 후 무려 2년이 훨씬 넘어서서야 본격적으로 근대화 담론을 생산, 유포하기 시작했다.
15) 황병주, 「1960년대 박정희 체제의 '탈후진 근대화'담론」,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8, 239-280면.
16) 유럽의 근대적 규율화의 한 모델로서 군대의 중요성을 강조한 기든스와 푸코의 여구 이외에, 요시다 유카타는 후발혀의 근대화를 달성한 국가에서 군대는 근대적 사회질서를 창출하는 추진력이 되는 경우가 좀 더 명확시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17) 공제욱, 「국가와 일상」, 한울, 2013, 79면.

으며 조해일에 관한 학위논문도 많지가 않다.

이혜정의 「1970년대 도시소설의 서울 재현 양상- 조선작, 조해일, 최인호의 소설을 중심으로-」에서 조선작, 조해일, 최인호가 이들의 소설에서 추상적인 도시 공간이 아닌 서울이라는 장소에서의 경험을 의미화하면서 문학적 정체성을 구성해 나갔음을 밝히고자 했다. 이들 소설적 배경이 서울이라는 것에 주목하여, 서울이라는 장소가 단순히 배경으로 기능한 것이 아니라 소설의 존재론적 기반으로 기능하였음을 도시 인문학적 관점에서 밝혔다.

손윤권은 「기지촌소설의 탈 식민성 연구」에서 기지촌소설에 나타난 기지촌여성에 대한 억압의 문제를 밝히는 것은 물론 혼혈인 문제, 아메리칸 드림에 의한 디아스포라 문제. 미군범죄 문제도 함께 논의하고 위안부와 양공주를 군대매춘이라는 동일선상에서 연구함으로써 식민, 재식민, 신식민의 관계를 밝히고 기지촌여성들을 억압하고 있는 식민주체로서의 제국주의. 군사주의. 민족주의. 가부장제. 남성중심주의의 억압의 구조를 밝혀냈다.

오태호의 「조해일의 매일 죽는 사람에 나타난 죽음 모티프 연구」에서는 주인공을 통해 도시 소시민에게 강요된 죽음 모티프의 양상을 고찰하여 산업화 시대로 명명되는 1970년대 한국 사회에서의 소시민적 생존 현실의 지난함을 보여주었다.

박수현의 「조해일의 소설과 도덕주의」에서는 뿌리 깊은 사회비판적 문학과 문학적 도덕주의의 이면을 고찰하는데 시점을 두면서 사람들의 각성 문제에도 언급을 하였다.

이화진은 「조해일 소설의 이방인 의식과 공간탐색」에서 1970년대 조해일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이방인 의식과 문제적인 공간을 탐색하였다.

권영민은 조해일은 이 시대에 활동하고 있는 가장 자유로운 작가의 한 사람이라고 평가하였다. 여기서 <자유롭다>는 말은 그가 창조해낸 소설의 세계가 단순한 시간이나 공간의 법칙성에 묶여 있지 않다는 뜻에서이다. 그의 소설은 사회사의 한 사건으로 씌여진 것이 아니며, 현실의 단순한 표현도 아니다. 그것은 현실에 대한 가장 자유로운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권영민은 조해일 소설은 인간을 현실적 상황에 맞서게 하는 꾸

준한 긴장을 수반한다. 더구나 인간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도록 충동하는 광란까지도 담고 있다. 우리는 그의 소설에서 어떤 경우에는 서두부터 사소한 인간 드라마의 한복판에 서 있게 되기도 하고, 전체적인 소설 내용의 윤곽이 드러나기도 전에 진실한 우리 자신의 용모를 그의 소설 속에서 발견하기도 한다. 이로 하여 그의 소설의 중요성은 작품 자체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온갖 시련 속에 그리고 현실이 모든 망령을 극복하고 좀 더 가까이 우리들의 적나라한 현실에 접근해 가도록 해주는 그러한 기회 속에 그의 소설의 중요성은 존재한다.

조해일의 작품세계는 인간에게 자유와 평등을 추구한다. 그는 이 사회의 핵심적인 모순을 자유와 평등의 문제로 파악하고 있으며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부재할 경우 인간다운 삶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투철히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고도로 우리 사회에 내재한 빈곤과 그 빈곤이 형성해놓은 비인간화 현상에 집중했다. 조해일에게 있어 가난은 인간이 살기 위해 죽음과 더불어 움직여야 한다는 처참한 역설의 예증인 동시에 우리의 빈곤은 미군 혹은 미국에 기생하는 불합리한 경제 구조와 깊은 관련을 가지며 따라서 뿌리 뽑힌 삶의 양식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가혹한 현실 통찰의 결과를 반영한다. 그는 문학과 현실의 먼 거리를 고도로 세련된 상상력과 절제된 문체로 또 한번 접근 종합시킨다. 그는 인간의 내면에 깊숙이 자리한 선의와 또 한편의 음흉한 악덕을 심리학자와 같은 예리한 관찰력으로 해부하는 동시에 후진국 시민이 괴로워해야하는 정치 경제적, 사회 문화적 모순의 함정을 구조적으로 분석한다.

본고의 논지 전개에 중요한 이론적 틀로 적용되는 일상성의 이론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본 논문에서 방법론을 사용한 알레고리에 대해 먼저 언급하고자 한다. 알레고리에 대해 많은 이들이 견해가 다르다. 방민호의 「전후 알레고리 소설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알레고리를 간단하게 정의한다면 비유적으로 말하거나 혹은 다른 말로 말하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알레고리는 행위자와 행동, 때로는 그 배경까지가, 축어적이거나 일차적 수준에서 일차적 수준에서 일관된 의미를 구성하고, 또 행위자와 개념과 사건의 이차적이고 상호연관적인 수준을 의미하도록 고안된 서사물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현대소설 속에서 알레고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작가의 창작행위 속에서 두 개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하나는

현실을 주관적으로 수용하여 세계상에 대한 절대적인 모델을 설정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이를 육화시키기 위해 현실에 존재하는 이러저러한 사실들을 자신의 의도에 맞게 '짜깁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대의 알레고리 작가들의 작품세계는 곧 그들 자신의 세계관의 예시물, 혹은 비유물 로서의 위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유럽에서는 일상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지면서 일상성이 "사회의 재생산을 가능하게 만드는 개체의 재생산적인 요소의 집합"이라고 규정되기도 하였다. 서양에서 이루어진 일상성에 대한 연구에 비해 한국의 일상성에 관한 논의는 그리 활발하게 전개되지 못했다. 박재환이 1984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일상성 논의를 개진한 이래 1990년에 번역된 앙리 르페브르의 책은 "한국에서 일상성 담론의 논의를 본격적으로 촉발한 계기"가 되었다.

르페브르는 일상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일상성을 생산하는 사회의 성격을 연구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상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더 깊이 있게 파고들기 위한 좋은 수단과 실마리로 간주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 "일상은 하나의 단계이며 도약대, 여러 순간들로 이루어진 한 순간이고, 가능성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서부터 출발해야만 하는 변증법적 상호 작용의 영역이라 하기도 하였다. 즉, 우리가 일상을 개인적이면서도 집단적인 이중의 존재로 인식해도 된다는 뜻이다.[18)]

소설은 사회를 반영하며 사회를 이야기한다. 1970년은 한국 경제가 급속하게 발전하는 시기였다. 하지만 여태껏 조해일에 관한 연구는 폭력, 도덕, 남성성등에 머물러 있었다. 그래서 본고는 조해일의「매일 죽는 사람」「뿔」「아메리카」「겨울여자」를 선택하여 이 텍스트로 부터 1970년대 한국사회의 현대화 과정을 알아보려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4편의 텍스트는 작가가 제도의 폭력성을 비롯한 산업화 시대의 다양한 모순이 지닌 비인간성과 불합리성을 비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2장은 문학사적인 맥락에서 일상성이라는 용어와 알레고리라는 용어에 대하여 의미를 규정하고 구체적인 텍스트「매일 죽는 사람」「뿔」「아메리카」와 연결하여 도시 공간으로서의 서울의 도시적 의미와 사소한 일

18) 곽희열,「박완서와 장신소설에 나타난 도시적 일상성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15.

상생활을 통해 1970년대 사회의 변모를 알아보려고 한다. 제1절에서는 「매일 죽는 사람」「뿔」이라는 작품은 서울을 소설의 서술배경으로서의 도시공간에 대한 조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1960년대 경제개발정책으로 도시의 구조가 크게 변모되고 도시는 이런 산업화와 함께 형성되었다. 그 결과 한국의 도시는 압축된 발전과정을 겪으며 가치관의 혼란의 야기되었고, 자본주의적 욕망이 만연해졌으며, 사업투기로 도시 신중산층이 급부상하여 사람들과 하층민과의 빈부격차로 양극화가 생기는 공간이 되었다. 이 시기의 도시를 중심으로 한 작품에는 '한국사회가 개발과 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의 과정을 밝은 결과'가 반영되어 있다. 이 시기의 사회는 "근대와 근대 이전의 요소가 혼재된 과도기적 사회"로 볼 수 있는 것이다.[19]

1970년은 또한 한국이 미국에 많이 의지한 시대였다. 내적으로 분단. 경제위기, 대통령선거 등 중대한 사건에서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박정희는 미국과 손을 잡았다. 「아메리카」가 바로 미군기지촌 여성들의 삶을 분석하면서 1970년대 한미관계에 대해 언급하며 병이 든 한국현실에 대해 폭로하였다. 소설은 미군 기지촌에 기생하는 숱한 여인들이 등장하고 주인공 청년과의 어설픈 행위가 극히 육감적으로 묘사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조해일이 기도하는, 그리고 독자들이 호소받는 주제는 역시 사랑이나 섹스가 아니라 비참한 현실들에 주눅 든 이웃과 더불어 살고 있음의 윤리적 책임감이었다. 여태껏 「아메리카」에 관한 연구는 미군흑인, 기지촌 여성문제, 혼혈인등에만 집중되었다. 2절에서는 서울이라는 공간에서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서울의 주변부 기지촌의 생활을 서술하면서 미국 중심으로 생활하는 한국현실과 기지촌 여성들에 대한 연민, 동정의 감정에 주목하였다.

3장에서는 조해일의 대표작 「겨울여자」를 분석하려고 한다. 대표작인 만큼 「겨울여자」에 관한 연구는 적지 않다. 「겨울여자」는 주로 남녀 간의 사랑이야기를 주요 내용으로 삶아서 사건이 전개해 나간다고 할 수 있다. 이로 하여 이왕의 연구들은 연애, 결혼 등에 집중하여 연구를 하였는데 본장은 유이화 라는 여성이 여러 남성과의 만나는 과정에서 무엇을 깨달았고 이런 남성들은 무엇을 상징하고 당시의 사회현실을 어떻게 반영해주고 있는가에 대해 연구하려고 한다.

---

19) 오늘날 일반적으로 말하는 근대적 도시는 산업혁명 이후 형성된 것이다.

2.1970년대 서울 및 주변부 바라보기

1970년대는 비판적 리얼리즘의 전성기였다. 이 시기는 우리문학사에서 가장 다채롭고 흥미있는 단편소설들이 쓰여진 때이기도 했다. 60년대부터 진행되어온 산업화의 발전은 70년대에 이르러 보다 급속히 진행되기 시작한다. 경제지상주의를 내세운 산업화 과정은 물론 전반적인 생활 조건의 향상을 가져오기도 했다. 그러나 그와 함께 경제성장의 열매가 돌아가지 않은 소외된 성자의 그늘에 가려진 빈곤 계층의 불만과 그것을 억누르는 인권유린은 경제이데올로기를 앞세운 유신정권에 의해 교묘하게 은폐되기도 했다. 이 시기의 중요한 소설들은 대부분 물질적 성장의 이면에 숨겨진 소외된 계층의 문제나 경제성장의 부산물인 물질지상주의의 문제를 드러내는데 전력하고 있다. 이 시기 소설들은 빈부격차와 비인간화를 가져온 모순의 근원을 총체적으로 제시하거나 그에 대해 저항하기보다는 소외된 계층의 삶을 통해 경제성장이라는 이데올로기를 파편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설사 노동자를 등장시키더라도 주로 일용노동자의 삶이나 조직적 노동운동이 결여된 노동자들을 다루고 있다. 이점은 노동자를 저항운동의 주체로 삼는 80년대의 노동소설들과 구별되는 점이다. 70년대의 소설은 현실의 총체성을 드러내기보다는 모순된 삶의 다양한 현상을 그리는데 주력하고 있다.[20]

조해일은 모든 문제를 관념화하지 않고 일상적인 생활의 문제로 풀어나간다. 자본주의 사회가 관념적인 영역에서 개인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일상적인 영역을 지배함을 인식한 작가의 현실 인식에서 가는한 것이다. 일상적인 생활을 살아가는 일상적인 사람들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포착하는 것은 또한 조해일 소설의 미적 특징이다. 일상적인 인물을 소설의 주인공으로 설정하고, 일상적인 생활에서 발생하는 자잘한 일들을 소설의 사건으로 설정한 것은 근대소설까지 없었다. 현대소설에 와서야 소설가들은 '개인'에 대한 자각이나 '자아'의 각성이라는 담론에 의해 개인의 문제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으며, 그럼에 따라 개인에게 일어나는 자잘한 일상적인 문제들이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던 것이

20) 나병철, 『근대성과 근대문학』, 문예출판사, 1995, 139면.

다. 이로 하여 일상성은 근대 사회의 개인에 대한 문제를 중시한 '현대성'의 중요한 요소로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렇다면 '현대성'의 한 양상으로서 일상성이 소설 속에 서사화 된 양상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조해일 소설에 대한 접근은 일상생활을 하는 근대적 자아가 어떤 모습으로 설정되고 있으며, 이러한 인물이 살아가는 근대 사회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모아져야 한다.

2.1 알레고리형식과 현대성 비판

1970년대는 긴급조치와 유신체제로 대표되는 정치적 권위주의가 극심했던 때였다.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 군사정권은 체제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대규모 경제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으로 이전보다 강도 높은 지배와 검열 체계를 가동시킨다. 한국의 1970년대는 어느 시대보다도 군사 독재로 인해 검열[21]을 필수적으로 받기 때문에 알레고리로 창작, 독해되어야 하는 작품들이 다수였다. 조해일의 소설도 동일한 여 건에 처해있었다.

여기서 우선 짚고 넘어가야 할 용어 바로 알레고리이다. 알레고리는 비유적으로 말하거나 혹은 다른 말로 말하는 것, 즉 어떤 것을 말하고는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알레고리는 평소 상징과 대비하여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양자는 모두 다 어떤 것에 대하여 말하면서 동시에 다른 어떤 것을 지칭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둘은 분명이 다른 성격을 갖는 인식행위이자 표현방법이다. 상징이 매개물과 그 정신적 의미를 동시에 던져주고 이 양자의 일치를 추구하는 것이라면 알레고리는 비유적인 매개를 먼저 드러내고 그것의 해석으로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알레고리의 작가는 자신의 의도에 따라 현실의 재료들을 이리저리 맞추어 작품을 구성해내므로 작품은 단지 이 의도를 드러내기 위한, 그 자체로서는 무

21) '한국의 연예기자 1호'라고 할 수 있는 정홍택은 '검열'은 대중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 그가 말하는 박정희시대의 대중문화는 한마디로 역동적이다.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로운 문화를 만들어 내는 순간들이었고, 그 당시 마련된 기반으로 현재의 대중문화도 꽃피울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그는 '검열'이란 대중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고, 국가의 통제없이는 대중문화가 자생적으로 설 수 없으며, 오히려 일정한 통제를 거치면서 뚫고나오는 산고를 거쳐야 대중문화가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는 주장을 한다.「박정희 시대와 한국의 대중문화」

의미한 자료로서의 의미만을 갖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 확정적인 해석적 의미를 갖는다.[22]

조해일 소설의 특징은 근대 사회를 살아가는 근대적인 자아의 양상을 계층화하여 보여준다는 점이다. 바로 구체적인 시공간, 즉 근대 사회를 '살아가는' 개인이 등장한다. 근대적 자아의 고뇌를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소설의 재료로 삼은 현대 소설가들의 소설적인 인식이 조해일에서는 구체적으로 설정된다. 조해일의 초기 작품「매일 죽는 사람」「뿔」은 도시 하층계급의 고통스러운 일상, 욕망, 절망에 역점을 두었다. 이 두 소설은 하층계급의 일상 특히 남성의 일상을 보여줌으로써 한국 사회 경제적인 변혁이 가져온 병폐적인 인간상을 형상화하였다. 이 두 작품의 소설 배경으로 환상적이고 비현실적인 공간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당대의 정치 현실 일반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이상적인 대안편실을 제시했다.[23] 뿐만 아니라 하층민의 자의식의 생성 원인이 생활이라는 구체적인 문제에서 형성됨을 보여줌으로써,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또 다른 근대적 자아의 실체와 그의 고뇌의 양상을 보여주었다.

「매일 죽은 사람」「뿔」두 작품은 모두 하층계급에 속하는 주인공생활을 묘사하면서 1970년대 경제개발이 가져다준 빈부격차에 대해 폭로하고 있다. 전쟁이나 식민 통치와 달리 산업구조의 조정이 일으킨 경제적인 변화는 보이지 않는 힘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요소로서의 의식주와 긴밀하게 관련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산업화 시기 사람들의 심리적인 의식과 도시의 변모 발전을 이해하는 키워드가 바로 "일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일상성을 통하여 산업화 도시화시기에 나난 사회문제를 비판한다.

그의 등단작「매일 죽는 사람」은 1970년대 산업화시대의 한국 사회에서 소시민적 생존 현실의 지난함을 알레고리적 제목을 통해 상징적으로 제시했다. 조해일의 문학적인 방향은 등단작에서 이미 상당한 포괄성을 지닌 채 우리 앞에 나타난다. "죽어야 산다"는 모순어법으로 채택된 제목에서부터 시대적 알레고리를 상징하고 있는 이 작품은 허구적 죽음과 실제

22) 방민호,「전후소설에 나타난 알레고리 연구:장용학. 김성한 소설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23) 이화진은 조해일 소설에 나타나는 공간들을 분석하면서 이상적인 세계를 완성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적 죽음 사이에서 길항하는 소시민 가장의 초상을 보여준다.[24]

작품속의 주인공 '그'가 엑스트라라는 직업을 하면서 임신 7개월 된 아내와 살아가는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독특한 인물이 자주 등장하는 것은 사회 현실에서 파생되는 문제를 은밀하게 파헤치고자 하는 창작의도가 있기때문이다.[25] 엑스트라는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하층민이다. 이들의 삶은 생존 유지에 급급하다. 죽음을 연기하는 자는 매일같이 죽음과 맞서야 했다. 죽음의 배역 이외에 '그'에게는 어떤 연기도 가능하지 않다. 영화나 드라마 촬영장에서 매일 죽는 역할로 일당을 버는 엑스트라의 하루를 통해 사는 일이 곧 죽는 일과 같은 비극적 아이러니의 상황을 절묘하게 묘파해낸다.

그는 임신 7개월 된 아내와 서울의 도심부가 아닌 한 복판에 살고 있다. 비록 집 주소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집이 시내버스 종점에 가까이 있으며 서울의 도심부인 충무로에 도착하기 위해서 버스를 한참이나 타고 이동해야 한다는 사실에서 그가 서울 외곽에 거주하고 있음을 가늠할 수 있다. 이 시기 정부는 도심을 자본 활동의 중심으로 배치하고 서울의 주거지를 도심 바깥으로 대폭 확대시킨다. 1957년에서 1962년에 미아리 집단정착지가 최초로 형성된 이후 1970년까지 서울 외곽 20개 지역에 모두 43000가구가 정착할 만큼 도심 바깥으로의 거주단지 확산은 빠르게 진행되었다.[26]

하층민들 일상적인 삶은 그날 그날 살아가는 궁핍함이다. 그들에게 근대사회란 어떤 희망차고 미래가 보이는 이상적인 사회가 아니다. 생존이라는 일차적인 생의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비극적인 일상이 점철된 사회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절대적인 수단인 '돈'은 비참한 일상을 유지하기 위한 생명과도 같은 절대적인 것이다. '그'가 '돈'에 대한 집착은 일년 사계절 하루도 쉬엄없이 돈벌이를 하러 나가는 것에 드러난다. 그는 살기 위해서 돈에 집착하는 것이다. 그들의 일상은 '돈'의 결핍으로 비참함의 연속이다. 그들은 비극적인 일상속에 생을 유지해 나간다.

---

24) 오태호, 「조해일의 「매일 죽는 사람」에 나타난 죽음 모티프 연구」, 우리어문학회, 2010,5,30, 604면.
25) 이화진, 「조해일 소설의 이방인 의식과 공간탐색-1970년대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반교어문학회, 2017, 173면.
26)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편, 『사진으로 보는 서울』 4, 2005, 402면.

일요일인데도, 그는 죽으러 나가려고 구두끈을 메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들은 조금씩 떨리고 있었다. 마음의 긴장이 손가락 끝에까지 미치고 있는 모양이었다. 3년동안이나 그의 체중을 견디어내준 그의 검정색 구두는 이제 더 이상 참아낼 힘이 없다는 듯이 피곤하고 악에 받친 표정을 하고 있었다. 일찍이 초식동물의 가죽이었던 부드러움과 제황공의 숙련된 솜씨가 빚어낸, 한때의 윤택은 이제 굳어지고 찌들어서 본래의 모습과는 다른 어떤 것이 되어 있었다. 그것은 사람의 발에 신겨진다는 것이 이제는 조금도 영예스러울 것이 없다는 듯, '이젠 좀 놓아주었으면' 하는 지친 노예와도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다.[27]

일상적인 생활에서 일상인들의 갈등은 '양산'이나 '선물'등 구체적인 일상적인 소비품들에 의해 발생한다. 자본주의 상품들이 일상생활에 침투되어 사람들의 소비 유형을 창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 심지어 부부간의 갈등이 자본주의 소비재에 의한 것임을 보여준다.

소설속의 아내는 일요일 출근길의 남편을 무감한 시선으로 바라보는데 이것은 1970년대 소시민 가정의 막막한 현상을 보여준다. 서른 살의 가장인 '그'는 구두끈을 조심스레 맨 뒤에 임신 7개월의 아내를 마주하며 난감해 한다. 통상적이라면 매일 죽으러 나가는 남편을 배웅하며 안쓰러움과 애정의 표정을 지을 법하지만, '그'의 아내는 구청 직원처럼 무덤덤한 표정으로 그를 응시하였다. 이 시선은 경제적 궁핍이 이 가정의 오래된 일상적 현실임을 증명한다.

알레고리는 본질상 루카치적인 총체성과는 극단적으로 상반된 곳에 자리 잡고 있다. 벤야민이 지적했던 것처럼 <사고의 영역 속에서의 알레고리는 존재의 영역에서의 페허와 같다>. 알레고리는 삶을 유기적인 관계들의 종합으로서 파악하지 않는다. 알레고리에서는 하나의 전체로서 존재하는 사회와 인간의 총체적인 재현이 부정된다. 왜냐하면 알레고리에 있어 중요한 것은 현실에 내재해 있는 의미가 아니라, 현실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절대적 진리이기 때문이며, 알레고리 작가는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 총체적인 삶의 연관관계들로부터 현상 하나하나를 떼어내어 이리저리 짜맞추기 때문

27) 조해일. 『제3세대 한국문학. 16 조해일』, 삼성출판사, 1990, 172면.

이다. 그리하여 각각의 현상들은 그 자체로서는 의미가 없다. 단지 알레고리 작가가 자신의 의도를 표현해주는 조합의 한 부분으로 존재할 때만 이 현상들의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28]

인물간의 갈등은 선과 악이라는 상반된 가치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소비품을 소유하여 일시적인 마족을 성취하느냐 아니냐에 의해 발생한다. 이러한 소비품의 소유 여부는 가난이라는 상황에서 예민하게 부각되는 것이고, 그리하여 인간의 성격까지 황폐하게 함을 보여준다.

그러한 그녀의 시선에 무언가 천착하는 듯한 질긴 번득임이 잠시 떠올랐으나 그것은 이내 사라지고 다시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리고는 종일이라도 그렇게 서 있으려는 듯이 문설주에 기대 서 있었다. 그녀가 바라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들, 예컨대 십구공탄을 백 장쯤 들여놓고 집주인 아주머니께서 더러는 꾸어줄 수도 있게 되는 일이라든가, 냄새나는 일본쌀이라도 좋으니 쌀을 한 가마쯤 들여놓고, 끼니때마다 식량걱정을 하지 않아도 좋게 되는 일, 조금 크게는 아침마다 변소에 가는 습관을 가진 남편이 그 안에서 선참자가 있음으로 해서, 콩나물 십 원어치를 쌌던 포장지를 꾸겨 쥔 채, 변소 앞에서 서성거리는 추한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갑싼 영세민 아파아트에나마 둘게 되는 일 따위에 지나지 않았으나, 그는 그중 어떤 것도 충족시켜 줄 수 있었던 때가 없었다.[29]

위의 문장은 빈곤이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구체적으로 서술한 부분이다. 개인의 답답함과 억압됨의 원인이 빈곤에 있음을 위의 대목은 보여준다. 일상인들에게 가난은 한 개인의 성격을 황폐화시키는 데까지 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상적인 갈등은 일시적이면서도 끝도 없이 반복적이고 우연적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자본주의가 지속적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일상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의 일시적인 반복성에 의해서이다. 일시적인 것은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기능을 하고, 이러한 일시적인 것이 거듭되는 반복성은 삶의 문제를 둔감하게 한다. 위급한 사건이 없는 일상 생활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삶에 안주하게 하는 속성이 있다. 일상적인 영역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는, 봉건적인 것

28) 방민호,「전후소설에 나타난 알레고리 연구:장용학. 김성한 소설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3.
29) 조해일.『제3세대 한국문학. 16 조해일』, 삼성출판사, 1990, 174 .

과 근대적인 것과의 사이에서 빚어진 관습 차이에 의한 갈등이 아니라, 한 개인이 혹은 한 가정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느냐 아니면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따르냐의 문제이다. 이러한 작은 문제들의 빈번한 갈등은 일상인들에게 있어 사회 구조를 인식하게 어렵게 하는 요소이다.[30]

「매일 죽는 사람」에서 '그'는 나약하고 가난한 엑스트라라는 일을 하는 인물이다. 다양하게 타인에 의해 '맞아서' 죽는 피해자 같은 설정이다. 그가 엑스트라로 처음으로 맡았던 일은 관 속에 들어가 시체가 되어 누워있는 일이었다. 그때 관 속에서 촬영기가 돌아가는 동안, 호흡을 중지하고 신체의 어느 부분도 꼼짝하지 않고 가만히 누워 있으면 되었다. 처음으로 한 연기에 감독님은 만족스럽다는 표정까지 지었다. 죽음을 연기하면서도 실제로 죽을 뻔 했고 죽음의 손길이 시시각각으로 온 몸을 죄어오는 경험을 했다. 바로 개활지에서 시체연기를 할 때 인데 무더운 열기와 개활지 전체가 시체로 덮어져 있는 탓인지 그는 기묘한 느낌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한 것이다. 뇌수만 살아남은 일종의 편안한 상태로 빠져들었다. 죽음 앞에서 '그'는 순수히 죽음을 받아드리는 것이 살려고 '피해야 한다! 피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런 죽음을 체험한 후 그는 생활의 곳곳에서 죽어가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개인의 자격으로 죽음을 연기했다. 그 후로는 계속 무리지어 죽음을 연기했는데 이것은 1970년대라는 산업화 시대가 무더기 죽음을 만든 암묵적 매매의 공간임을 암시하면서 나중에 죽는 일이 일상으로 느껴진 것에 대하여 시대가 낳은 가난과 소외가 소시민 가장에게 심리적 죽음을 야기하고 죽음의 폭력이 이 시대에 작동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의 또 다른 신분- 문학 대학의 학생이었다. 그러나 정직했기에 가난한 아버지가 과로로 쓰러지고 어머니마저 위독해져 세상을 떠나자 대학을 다닐 이유를 찾아 낼 수 없어 대학을 그만 두었다.그의 내면에 어떤 의미있는 이상이 있다 하더라도 일상인들에게는 무능력한 지식인으로 비춰질 뿐이다. 이러한 자본주의 논리가 일상을 지배하는 세계에서 살아가는 무능력한 지식인은, 경제적인 능력의 잣대로 인간성을 판단하는, 자본주의의 세속적인 가치를 삶의 지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홀대를 받는다.

일상적인 생활에서 겪게 되는 인간적인 굴욕감을 하층민은 반복적으로

30) 한금윤, 『한국 현대소설 형성과 현대성 담론』, 푸른사상, 2005, 197면.

경험한다. ‘돈’이 없는 하층민들의 굴욕감은 소외된 자의식을 형성한다. 이는 자아의 발견 문제가 아니라 자아를 상실하게 되는 자본주의 사회의 병폐이다. 「매일 죽는 사람」은 자본주의의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수단인 ‘돈’이 하층민에게는 생존의 문제이며, 자아를 상실하게 되는 문제임을 보여주었다.

글의 제목은 아이러니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이것은 자본주의의 핵심인 ‘돈’은 인간에게 이러한 아이러니적인 운명을 가져다주는 마력이다. 자본주의 사회는 인간의 이성적인 사유로 선명하게 정리되는 사회가 아니라, 인간의 운명을 어떻게 결정지 을지 모르는 아이러니한 사회임을 말해주고 있다.

작가는 소설에서 도시 소시민 계층의 심리적인 변화와 이들의 일상을 아주 면밀한 필치로 그려냄으로써 소외된 남성 직장인 즉 도시 샐러리맨과 도시 하층민들이 삶에서 부딪치는 고난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버릴 수 없는 희망이 공존하는 삶의 모습을 형상화하였다. 결말은 보통 작가가 말해주고 싶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소설의 결말에서는 일을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그’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묘사하였다.

그는 걷기 시작했다. 오른쪽 다리가 경직이라도 일으킨 듯, 뻣뻣하고 불편했으나 그는 안간힘을 써서 걸었다. 골목의 가게들은 아직도 불을 켜 놓은 채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것이 마치 죽은 사람을 전송하기 위한 장의의 불빛처럼 보였다. 어느 나라에서는, 맨발은 바로 입관식 전의 사자를 뜻한다던가? 그는 생각했다. 하긴, 어디 나만이 죽는 것이랴, 세상의 모든 사물이 커다란 소멸의 흐름 속에 던져진 채 있다. 시간까지도.....누구나 매일매일 조금씩은 죽어가면서 살고 있다. 어린아이들조차 그러하다. 아내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을 태아도 이를테면 죽음의 싹이다. 아내는 죽음을 배고, 그것을 키우고 있다.[31]

소중하게 여겼던 구두를 잃어버리고 맨발로 다니는 ‘그’에게 죽음이 곧 다가올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자신의 아이마저 희망이 아닌 ‘죽음의 싹’이라고 인식한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존재를 죽음과 연관이 있다. 인간

31) 조해일. 『제3세대 한국문학. 16 조해일』, 삼성출판사, 1990, 189면.

의 종점은 죽음이다. 죽는다는 것은 또한 산다는 것과 동반된다. 죽기 위해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아직 한 쪽은 신고 있구나- 하는, 이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는 깨달음은 그를 놀라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을 어떤 신선한 감면으로 떨게까지 했다. 아, 나의 또 하나의 발은 아직도 살아 있었구나! 이 발은 그리고 따뜻하구나 편안하구나! 이것은 튼튼하구나! 마치 반석과도 같군! 아내의 둥근 배가 머리에 떠올랐다. 그녀 배 속에 태아가 하고 있을 몸짓이 상상돼왔다. 그래 그건 죽음의 싹이 아니다! 그렇게 불러선 안돼.[32]

앞에서는 죽어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죽은 것과 같은 비극적인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 변화가 되었다. 그는 비록 한쪽의 신발을 잃었지만 또 다른 한쪽의 신발이 남은 것을 통해 희망을 얻게 된다. 이 희망은 누군가 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각에서 우러러 나온 것이다. 1970년대는 사회비판적 시대인 만큼 정부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작품속의 '그'의 결말은 자신의 삶의 결말이라고 할 수 없다. 당시 사람들의 생활적 조건과 사회적 환경에 대한 작가의 생각을 보여주고 있다. 조해일의「매일 죽는 사람」에서 우리 1970년대 현대화 과정에서의 사회발전의 불합리성을 폭로하며 희망적인 결말로 마무리한 것으로 작가 자신이 미래에 대한 바램과 믿음이다. 하지만 이 소설은 인간의 고뇌의 크기를 완벽하게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삶에 대한 정리된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인간의 현실적 상황이나 삶의 태도에 대해 말한다는 것은 인간의 생활 방식 그 자체에 대한 비판이 아니고서는 흔히 무의미해지는 경우가 많다. 이 소설의 결말에서 인생을 살아 볼 만한 것으로 만들려는 결심을 '그'를 통해 보여 주려고 한 것 은, 하나의 사족과도 같은 것이긴 하지만, 소설적인 가능성을 말하는 작가의 비전에 해당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소설은 죽음을 단절이나 끝으로 보지 않고 또 다시 생명을 얻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는 생사관이 깃들어 있다. 아기의 탄생과 아버지의 죽음이 서로 맞물려 있듯이 그렇게 생명은 죽음과 연결되어 있으며 죽음 또한 생명과 한 줄에 매어져 있다. 또 그가 아파서 쓰러

32) 조해일.『제3세대 한국문학. 16 조해일』, 삼성출판사, 1990, 190면.

지려고 할 때도 그는 '돈'생각을 했다. 그것은 그에게 '돈'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면서 동시에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가혹한 것이 때문이다. 그의 내면적인 갈등은 이러한 생존의 문제와 관련을 갖는다. 결국 삶과 죽음이 눈앞에 놓여진 상황에서 '돈'은 위기의식을 수반하는 자본주의의 폭력으로서 그에게 다가간 것이다.

이처럼 「매일 죽은 사람」에서 생계를 위해 죽음을 연기하는 한 엑스트라 생활자를 조명하며 1970년대 초 한국의 수도를 죽음의 공간으로 형상화한다. 이를 통해 이 시기 가족의 경제적 문제를 책임질 수 있는 젊은 가장이라는 남성의 모습이 사회의 지배적인 남성성으로 공고히 자리 잡았음을, 그리고 이에 미달하는 남성들이 그러한 남성성 아래에 종속되는 위계적 배치가 확립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작가는 소설에서 도시 소시민 계층의 심리적인 변화와 그의 일상을 면밀한 필치로 그려냄으로써 소외된 남성 직장인 즉 도시 하층민들이 삶에서 부딪치는 고난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버릴 수 없는 희망이 공존하는 삶의 모습을 형상화하였다.

「매일 죽은 사람」이후 조해일은 인간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과 확신적인 자세를 입증이라도 하려는 듯이, 가치 있는 삶의 어려움을 사소하고도 주변적인 사건을 통해 그려 보이기 시작한다. 「뿔」은 조해일 문학의 개성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작품이다. 세세한 인간의 행동과 그 표정까지도 얼마나 치밀하게 정서적 가치로 사용하고 있는 가를 당대의 현실을 예민하게 주시하면서 조해일은 풍속의 나열이나 작가적 감상의 노출 대신 간결하고 절제된 형식으로 그것을 압축시켜 보여준다. 작품은 친구들의 잦은 방문 때문에 하숙을 옮기기로 작정한 가순호가 자기의 이삿짐을 지게꾼에게 부탁하고 그와 왕십리에서 흑석동까지 이동하는 과정이 주요내용이다. 소재에 있어 우선 소설은 평범성을 배반하고 있다. 그것을 인공적 문명에 대한 혐오 원시적 자연에의 동경으로 지적한바 있다.[33]

「뿔」은 작가 조해일이 세세한 인간의 행동과 그 표정까지도 얼마나 치밀하게 정서적 가치로 사용하고 있는 가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소설은 수시로 하숙집을 찾아오는 친구들을 피하기 위해서 이사를 결심한 가순호가 지게꾼 한 명을 몰색해 이삿짐을 싣고 그와 왕십리역에서 흑석동까지

33) 김주연, 『변동사회와 작가』, 문학과 지성사, 1979, 59면.

동행한 소설이다.

지게꾼이라는 것은 지금말로는 짐꾼, 짐을 옮겨주는 직업이다. 이 직업은 1960-70년대 까지만 해도 흔히 볼 수 있는 직업이다. 그러다 1970년대 후반기 들어서면 부터 지게꾼이라는 직업이 점차 없어지기 시작한다. 이것은 현대화 발전을 의미하고 사회적 과학의 발전을 의미한다. 그리고 지게꾼은 어떤 집단에 종속되 있는 직업이 아니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개인에 속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경제의 주체성도 이때 와서는 점차 강화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지게꾼이 왕십리역에서부터 흑석동까지 이동하는 경로를 보여줌으로써 작가가 서울을 압축적 근대화가 일어난 부정적 공간으로 형상화하고 있음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특히 서울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지게꿈의 활달한 걸음걸이를 통해 강조된다.

<한강대교>로 접어들었을 때였다. 순간 사나이의 걺음이 멈칫 하는 듯했다. 가순호는 사나이의 시선을 따라 고개를 뒤로 돌렸다. 알루미늄빛으로 번쩍거리는 한 떼의 건물군이 시야에 들어찼다. 일고여덟 해 전만 해도 모래 먼지와 잡초가 무성하던, 그러나 지금은 기하학과 역학에 힘입은 바의 번듯하게 드높여진 한강변 위에 새로이 형성된 또 하나의 도시, 맨션 아파아트 마을이었다.[34]

인용문의 아파트는 1970년에 최초의 중산층 아파트로 기획 건설된 '한강맨션아파트'[35]로 짐작된다. 한강대교 바로 옆에 지어진 이 건물은 대한민국 최초의 고급 아파트단지로, 최대 55평 규모로 지어져 지나치게 호화롭다 는 평을 받았을 정도였다. 한강맨션아파트의 건립과 거의 동시에 한강외인아파트 역시 인접해 지어진다. 이처럼 가순호 일행이 하나의 "마을"로 지칭할 정도로 그 세를 늘린 '맨션아파트' 일대는 고도로 성장한 1970년대 초 한국 사회 알레고리에 다름 아니다.[36]

소설은 주로 가순호의 시선으로 전개되는데 지게꾼의 모습에 대해 가순호는 3번이나 아름답다 라는 평가를 했다.

---

34)조해일. 『제3세대 한국문학. 16 조해일』, 삼성출판사, 1990, 204면.
35) 한강맨션은 소설이 발표되기 불과 2년 전 완공된 한국 최초의 고급 아파트단지로, 당시의 경제력과 기술력을 가늠하게 해주는 최첨단의 기표로 작용한다.
36) 김지윤,「조해일 소설의 남성성 다시읽기」, 구보학보, 2018.

첫 번째는 소설의 시작에서 가순호가 지게꾼을 고르는 과정에서 평가했다. 그는 지게꾼을 고르는 기준은 '임금이 싼'혹은 '지게를 잘 지고 갈 수 있을 만큼 체격이 좋은'기준으로 지게꾼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가볍게 하기 위해 거칠게 만든 가짜 지게가 아니라 무거워 보이지만 진짜 지게'를 가진 '뿔'이 있는 지게꾼을 선택했다.

지게가 남다른 데 비해서 지게의 임자는 평범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서른 대여섯 보이는 그저 다른 지게꾼들과 비슷비슷하게 그을고 영양실조에 걸린 얼굴이었으며 다른 한국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펑퍼짐하고 그냥 그렇게 생긴 얼굴이었다. 다만 염색한 군대 잠바를 걸친 좀 별나게 넓다란 어깨가 얼마간 인상적인 뿐이었다.[37]

여기서 지게꾼은 평범하나, 그 지게의 특이성으로 말미암아, 지게꾼이 평범하지 않은 인물로 생각된다. 이런 지게꾼을 향해 가순호는 처음으로 아름답다고 표현했다.

짐을 실은 위로도 그 뿔들은 각각 하늘과 지평을 향해 삐죽삐족 솟아나와 있었던 것이며 사나이가 마악 한 발짝 떼어놓으려 했을 때 (그 순간 가순호는 그 지게를 처음 보았을 때 그가 뿔이라고 느꼈던 것들이 참으로 뿔임을 깨달았던 것인데) 그 모습은 마치 뿔을 가진 한 마리 아름다운 짐승이 그 뿔을 가누며 마악 움직이기 시작하려는 순간의 모습처럼 보였던 것이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38]

지게꾼의 지게가 생긴 게 특이 할 뿐만 아니라 이 지게꾼은 앞으로 향해 발을 내디딘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디딘 것이었다. 이것을 보고 가순호는 황홀감을 느끼며 또 그를 향해 아름답다 라는 평을 했다. 뿔은 일반적으로 초식동물들의 방어장치라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경제가 급속히 발전한 시대에 뒤로 향해 디디는 것은 일종의 현대성에 대한 비판이다. 또한 뿔이라는 방어장치는 그 시대의 인간의 공격성을 나타난다.

---

37) 조해일. 『제3세대 한국문학. 16 조해일』, 삼성출판사, 1990, 142면.
38) 조해일. 『아메리카 : 조해일 소설집』, 책세상, 2007, 144면.

가순호는 은밀히 용솟음치는 기쁨에 몸을 떨며 사나이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얼굴이 세상의 어떤 미남자보다도 아름답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짐을 싣기 전만 해도 그저 그을고 영양실조에 걸린, 펑퍼짐하고 그저 그렇던, 요컨대 평범하게만 보이던 얼굴이 일단 짐을 싣고 그 기이한 행진을 시작하자 그을린 피부는 구릿빛으로 불그레 상기하기 시작했고, 빛나기 시작했으며, 이제 그 행진이 큰길에 이르자 눈, 코, 귀, 입이 저마다 또렷이 살고 서로 도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남자의 얼굴을 이루고 있었다.[39]

아름답다고 2번이나 평가한 이 아름다움은 지게꾼의 외모적으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자기 양식'을 찾아낸 데서 나오는 아름다움이다. '진정한 지게'와 '뒤를 향해서 걷다'에서는 지게꾼의 자아양식의 발견한테서 온 아름다움이다.

70년대 초반 강조되고 있는 것은 소위 '고도성장'이다. 수출 주도형의 고도성장을 위한 저임금 정책과 미중 생존권 요구에 대한 물리적 탄압정책에 대한 항거의 시작으로서의 전태일 분신자살사건은 70년대에 꾸준히 계속되었던 노동운동을 점화하였다.[40]

"빨리빨리'를 외치던 1970년대 근대화시기 지게꾼의 아름다움은 근대화 논리가 지닐 수 있는 폭력성과 그 폭력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미친 듯이 달려 나가는 도시민들에게 지연 혹은 정지의 미학을 선사할 뿐 만 아니라 가속도를 내어 질주하는 근대문명에 대한 숙고와 성찰의 의도도 볼 수 있다. 지게라는 도구와 지게꾼이 함께 생명이 통하는 세계는 발견을 작자가 편집자적 비평까지 가해가면서 <자기 양식 발견의 아름다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시기 박정희가 일련의 국가기념식에서 일반 대중들에게 전달한 메시지는 당시정부가 국가 경제 발전의 '속도'를 무엇보다 중시하였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를 아름답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지게꾼이 왕십리에서 흑석동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길인들은 이런 지게꾼의 뒤로 향해 걷는 것을 보고 마치 신사물이라도 발견한 것 같이 재미나게 바라보았다. 더군다나 어떤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는 것, 관전이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아닌가라는 등 추측을 하기 까지도

39) 조해일.『아메리카 : 조해일 소설집』, 책세상, 2007, 146면.
40) 이재현,「베스트셀러와 사회심리(상)-'70년대 작품을 중심으로'」, 광장, 1985,215-225면.

했다. 많은 사람들은 사회의 발전 속도에 맞추어 앞을 향해 나아간다.

박정희 정권이 내건 경제개발제일주의는 말 그대로 잘 살아보세 라는 구호로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모든 것이 희생되어도 괜찮다는 일방주의에 다름 아니었다. 그 결과로 사회계층의 이동과 인구의 도시 집중, 대규모 고업단지의 조성 등의 기본 여건이 마련된 시기였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실행된 박정희 정권이 경제개발계획과 이를 위한 통치체제는 경제성장이라는 가시적 성과를 가져왔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문제들을 배태하기 시작했다. 비약적인 경제발전이라는 휘황한 구호에 가려 표면에 드러낼 수 없었던 것이다.[41]

하지만 진보는 단순히 이성의 진보뿐만 아니라, 미래의 경제적 성공과 집단적 행위의 성공도 진지하게 의식한다. 즉 진보의 사유는 근대화를 신뢰하는 모든 관점들의 중심에 위치한다. 진보의 사고는 정치적 의지를 역사적 필연성과 동일시하며, 발전의 정치와 이성의 승리 사이의 동일성을 주장한다.[42]

마지막으로 아름답다 라는 평을 한 것은 한강대교를 건널 때 였다. 아이와 함께 걸인을 하는 여자의 모습을 보고 지게꾼은 그의 밥그릇을 차며 눈물범벅이로 울었다.

순간 사나이가 걸음을 멈췄다. 사나이의 얼굴은 순간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광포한 표정으로 일그러졌다. 지나쳤던 걸음을 앞으로 한 발짝 되물려 그는 그 양은 그릇 앞에 버티고 섰다. 사나이의 얼굴은 이제 추하게 붉어져 있었다. 여인의 칭얼거림은 더욱 가련한 가락으로 바뀌었다. 그때 가순호는 사나이의 오른쪽 발이 번쩍 치켜들어지는 것을 보았다. 다음 순간 양은 그릇이 애처롭게 오그라지는 소리가 났다. 사나이는 다시 절망적인 몸짓으로 그 오그라진 양은 그릇을 걷어찼다.(...)여인이 몸부림을 치는 바람에 젖꼭지를 놓친 아기가 기를 쓰고 울어대기 시작했다. 사나이는 그러나 여인에게 잡힌 바짓가랑이만 잠시 굽어보고 섰더니 다리에 힘을 주어 여인을 뿌리치고는 다시 묵묵히 행진을 시작했다. 가순호는 순간 사나이의 얼굴이 온통 눈물로 뒤범벅이 된 것을 보았다. 그리고 고통 속에서 가순호는 생각했다. 사나이의 정말 아름다운 얼굴을 본 것은 바로 이 순간이라고. 여인은 그들의 등 뒤에서 계속 악을 써대고 있었다. “이 천하에 죽일 놈아! 평생

41) 김진기, 『문학으로 사회읽기』, 박이정, 2003, 158면.
42) 정수복, 이기현 옮, 『현대성 비판』, 문예출판사 1996년 93면.

지게나 져먹어라! 이 도둑놈아!이 천하에 벼락 맞아 죽을 놈아!”[43]

여기에서 지게꾼이 화가 나고 감정이 폭발한 것은 걸인을 하는 여인을 보고 미래가 보였기때문이다. 노동할 수 있는 걸인의 여자는 아이를 데리고 길거리에서 편하게 ‘돈 벌이리’를 하려고 했다. 기생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그러면 이 여인의 아이도 나중에 여인과 같은 길을 택할 것이다. 혹은 도시의 가속도의 발전에 따른 생활을 이겨내지 못하고 걸인이 된 이 여인에 대한 연민이며 아무런 배려가 없는 도시에 대한 분노일수도 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여인이 ‘생존 수단’을 잃었다는 사실은 무시된 채 지게꾼과 대조를 이루었다. 지게를 지고 눈물을 흘리며 묵묵히 걸음을 옮기는 지게꾼의 모습과 지게꾼을 향해 저주어린 욕설을 퍼부어 대는 걸인 여자의 모습이다. 여기서 걸인 여자가 당한 폭력은 어느새 지워지고, 마치 걸인 여자가 지게꾼을 향해 폭력을 행사한 것처럼 서술이 이루어진다.[44]

한편으로는 걸인 하는 여인의 ‘생존 수단’을 잃었다는 사실은 무시된 채 걸인 여자의 반응은 천박하고 폭력적인 것으로 묘사된다. 지게를 지고 눈물을 흘리며 묵묵히 걸음을 옮기는 지게꾼의 모습과, 지게꾼을 향해 저주어린 욕설을 퍼부어 대는 걸인 여자의 모습은 선명한 대조를 이룬다.「뿔」에 대한 기존의 독해를 보면 지게꾼이 행한 폭력, 즉 남성하위주체가 여성하위주체에게 가한 폭력을 보지 못했거나 보려고 하지 않았다.

조해일은 도시화의 화려한 외관과 거기에 숨겨진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형식으로 단편의 미학을 완성했다.「뿔」이 괴안 지게꾼이 보여주는 세계가 노동의 신성함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그의 작품에 일관해서 나타나는 폭력의 근원으로서 힘의 현상에 주목한다는 것은 매우 근거 있는 관찰이다.[45] 경제의 발전은 오히려 사람들의 쇠퇴를 가져왔다. 그리고 한강대교에 생긴 화려한 맨션아파트는 초라한 여자의 모습과 대비를 이룬다. 도시는 발전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구걸하면서 생존을 이어가는 사회발전의 불합리성을 폭로하고 있다. 또한 사회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채 구

43) 조해일.『제3세대 한국문학. 16 조해일』, 삼성출판사, 1990, 205면.
44) 대부분의 평자들이 지게꾼이 행한 폭력, 즉 남성하위주체가 여성하위주체에게 가한 폭력을 보지 못했거나 보려고 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러한 폭력은 지게꾼의 ‘윤리성’ 내지는 건강함만이 부각되면서 교묘하게 은폐된다.
45) 김주연,『변동사회와 작가』, 문학과 지성사, 1979, 58면.

시대의 잡업형 노동에 머물러 있는 지게꾼은 정부 주도의 동원 체제에 부응해 산업을 근대화시킬 수 있는 이상적인 남성성의 위계 아래에 위치해 있는 인물이라는 것도 말해 주고 있다.

가순호가 지게꾼에 대해 아름답다 라는 것으로부터 지게꾼은 가순호의 눈에 무기력하고 아무 힘이 없는 존재이지만 건강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존재이기도 하다. 가순호는 지게꾼을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서 그를 바라보지 않았다. 그의 의식 속에 지게꾼은 아름답지만 자신이 동화하고 싶은 '이상적인' 역할의 모델은 아니다.

이 소설에서 충만하고도 유익한 삶에 근접할 수 있는 인간다움의 참모습을 말하고자 하는 작가 의도를 발견하기 위해 인간의 참모습에 대한 주인공 가순호의 관찰에만 관심을 집중시켜서는 안 된다. 주인공 자신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말하자면 이 소설에 대한 이해의 관건은 주인공인 가순호가 가족들과 떨어진 채 이리저리 이사 다니게 된 개인적 동기와 사회 전체의 모습이 어떠한 방식으로 연결되고 있느냐를 바르게 인식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

가순호는 대도시 서울과 자신의 가족을 '병든 공간'과 '병든 인물'로 인식한 반면, 이삿짐 지게꾼 사나이에게서는 '건강성'을 지닌 인물로 읽어내면서, '병적인 것'과 '건강한 것'을 대조시킨다. 지게꾼 사나이의 '노모를 모시는 효심'과 노동의 건강성은, 가순호 자기 가족의 삶, 즉 전형적인 속물적 중산층 가정과 대립된다. 변두리 교회 목사인 아버지, 타성적인 야당생활을 하는 맏형, 육사출신의 중령인 둘째형, 미국인 상사의 비서실에 근무하면서 도미계획을 준비하는 누이동생은 현실에 추수하는 속물들이다. 이런 시대에 타협하는 가족들을 가순호는 경멸한다. 가순호는 현실주의자인 형에 반감을 표하면서, 권력의 하수인이 된 형을 비판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가순호의 비판은 적극적이 못하고, 감정적 차원에 머무르고 있어서, 이상주의자의 관념에 머무르고 있다.[46]

비록 가순호는 건강성을 갖춘 지게꾼을 아름답다고 찬양하지만 그는 대학생 신분으로서 지게꾼과 자신을 동일시하지는 않는다. 가순호의 눈에 지게꾼은 무기력하고 오염돈 도시에 생명력을 불어넣으며 달리는 영웅의 모습이긴 하지만 그 자신이 동화되고 싶은 '이상적인' 역할 모델은 아닌 것이다.

---

46) 이화진,「조해일 대중소설의 서술전략과 남성주체의 내면의식」, 반교어문학회, 2018.

가순호는 은밀히 용솟음치는 기쁨에 몸을 떨며 사나이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얼굴이 세상의 어떤 미남자보다도 아름답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짐을 싣기 전만 해도 그저 그을고 영양실조에 걸린, 펑퍼짐하고 그저 그렇던, 요컨대 평범하게만 보이던 얼굴이 일단 짐을 싣고 그 기이한 행진을 시작하자 그을린 피부는 구릿빛으로 불그레 상기하기 시작했고, 빛나기 시작했으며, 이제 그 행진이 큰길에 이르자 눈, 코, 귀, 입이 저마다 또렷이 살고 서로도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남자의 얼굴을 이루고 있었다.[47]

박정희의 개발독재는 경제성장이라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 점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흔히 50년대와 70년대를 '페허의 시대'와 '개발의 시대'로 대비해서 박정희가 이룬 것을 강조하려고 한다.

우리가 1953년의 서울 거리와 1970년의 서울 거리를 걸어간다고 상상해본다면, 우리는 두 시기 사이를 갈라놓는 극심한 차이를 쉽게 발견하게 될 것이다, (...)20년이라는 시간적 격차를 두고 나타났던 변화에서 우리는 두 개의 사회적 양상- 침체된 절망과 활기찬 성장- 을 발견하고는 70년대가 던져주는 역사적 의미를 곰곰이 되씹게 된다. (...)확실히 70년대는 한국사회가 커다란 역사의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던 때였으며, 많은 신화와 이야깃거리를 만들었던 흥미진진한 시기였다. 마치 한국판 천일야회가 펼쳐지듯 70년대 이 땅에는 무궁무진한 변화가 일어났다가는 사라지고 또 새로운 변화가 우리 모두를 감싸며 전율케 한 그런 시대였다. (신한종합연구소 1991, 25-26면)

확실히 70년대는 '전율의 시대'라고 할 만하다. 그러나 그 '전율'은 박정희정권의 폭력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했으며, 고전적 근대화의 한계가 아무런 제약 없이 커지는 데서 비롯된 것이기도 했다.

주인공들은 분단과 전쟁이 개인에게 얼마나 큰 폭력을 가하고 있는지 알게 한다. 이들의 공통점은 주인공 모두 폭력 앞에서 말을 하지 못한다.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폭력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라 침묵할 수밖에 없는 인물을 통해서 폭력의 존재와 정체를 밝히는 것이다. 폭력의 존재와 정체를 밝힘으로써 우리 사회가 분단과 정쟁이라는 얼

47) 조해일. 『제3세대 한국문학. 16 조해일』, 삼성출판사, 1990, 193면.

마나 치욕적인 역사를 겪었는지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 사실로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것은 아닌지 반성하게 한다. 왜냐하면 이 작품은 모두 경제발전을 위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제약을 받아야 한다는 한국적 민주주의를 강요하던 시애에 씌여졌기때문이다.[48)]

조해일의 소설은 단순히 주인공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서로 얽혀져서 그들의 삶이 어떤 운명의 양상을 띠는 그런 세계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소설은 인생의 질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어떤 요소를 지니고 있다. 그의 뛰어난 관찰력과 세부적인 묘사, 특이한 언어 구사와 섬세한 문체가 그 요소를 전달한다. 이러한 조해일의 소설적 수법은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현학적인 심각성을 회피하면서도 일종의 유쾌한 당혹감을 느끼게 하며 인간의 참모습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극적인 창의성을 지니고 있다. 그의 작품은 우리들이 처하고 있는 현실적 고뇌에 어떤 출구를 제공하고 있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우리들의 정신 속에 그러한 고뇌를 반사해주는 여러가지 징후를 담고 있을 뿐이다.

두 작품의 주인공은 다 지식인이다. 그것은 근대 사회의 문제를 자본주의에 의한 것으로 포착하기 위해서 갈등을 겪는 지식인이 설정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근대 사회의 주체인 이성적인 지식인이 오히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무능력함을 일상적인 생활 영역에서 보여줌으로써, 근대적 자아의 이상과 현실 사이의 불일치가 바로 고뇌의 원인임을 구체화하였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를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형태로 드러낸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에서 일상적인 소품으로 드러내어 구체성을 확보하였다. 지식인의 사회의식이 자본주의의 기호품의 저급성에 대치됨으로써, 자본주의사회에서 지식인의 무기력함이 드러난다. 그의 무기력함은 식민지 조선에 의해 더욱 증폭된 것이다. 그리하여 식민지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를 극복하려는 지식인의 노력은 어느 곳에서도 실현시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못하여 실패한다. 이러한 노력들이 오히려 일상적인 상품적인 가치에 의해 무기력하게 되는 상황을 보여준다.

---

48) 김치수, 『상처와 치유』, 문학과지성사, 2010, 197면.

2.2 미국중심의 서구화과정과 질병적 현실-「아메리카」

조해일 소설은 언제나 명확한 주제의식이 집중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그 감동은 또한 항상 일상인의 핏속에 마비되어 있는 양심의 상처를 건드린다. 이와 같은 특색들이 덜 드러나 있는 것 이 중편「아메리카」이다.[49] 이 작품을 통해서 작가는 한국의 한 촌락에 무리를 이루고 있는 양공주들과 미군과의 충돌, 그 사회적 포착, 그들 속에 잠들어 있는 건강한 본래의 인간성에 대한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복잡한 가속화되어가는 현대 생활에서 자칫 마멸되기 쉬운 인간 본원적인 것에 밀착되어 있다는 점에서 귀중한다. 그러나 작가의 시적 작중인물과 유리되어 높은 고궁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서 약간의 문제점을 내포하는 것 같다. 흡사 원격 조종수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등장인물들이 일정한 높이 일정한 거리에서 조조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주인공과 같은 위치에서 작가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불만을 가지게 할 수 있다.[50]

소설은 한정된 상황이나 배경, 특이하고도 매력적인 인물 형상들이 작품 전체를 이끌고 있다. 1974년에 발표한「아메리카」는 '미군 기지촌 여성문제'를 형상화한 문제작이다. 소설은 흔히 꾸며진 이야기라는 평범한 정의로 규정되고 있지만, 작가의 삶에 대한 총체적인 경험을 반영하기 마련이다.[51] 이는 1970년대 초반의 상황을 배경으로 배치하고 있으며 당시, 베트남 전쟁이 진행 중이었고, 냉전 이데올로기의 영향속에서도 '미군'에 대한 객관적 인식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 작품은 남성 화자인 효식의 눈으로 기지촌여성들의 삶을 묘사한다. 팔려고 내놓은 한국 여자들의 몸뚱어리와 그것을 사고자 하는 미군 병사들의 욕정, 그 둘 사이를 이어주는 클럽으로 이루어지는 기지촌은 나름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었다. 조해일은 천박한 인생관에 기반을 둔 사회에 살고 있는 인간들을 보여 주면서, 인간의 삶의 지루하고도 사소한 점, 전혀 매력적일 수 없는 요소들. 그리고 그러한 요소가 들끓는 현실적 상황 속에서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하는

49) 조해일은 1941년생으로,「아메리카」를『세대』1972년 6월호에 발표했다.『세대』는 1963년 6월에 창간한 종합 월간지다.『세대』의 창간 의도에 대해 전상기는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에 비판적인 논조와 신랄한 논리로 여론 주도 세력과 지식인들의 관심을 받아 오던『사상계』의 대항마로 정권에 우호적이고 애정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는 잡지를 창간하여 친정부적인 미디어 효과를 꾀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한다.

50) 김주연,『변동사회와 작가』, 문학과 지성사, 1979, 42면.

51) 조해일.『제3세대 한국문학. 16 조해일』, 삼성출판사, 1990, 435면.

어려움 등 어떠한 것도 감추려고 하지 않는다. 미군과의 동맹 속에서 생활을 유지해나가는 기지촌여성에게 삶은 절망적이며 불공평 적이었다. 이런 불쌍한 '양공주'들을 통해 국가경제를 발전시키려하는 정부는 더욱이 비겁하기 짝이 없다. 작품속의 효식에게 있어 기지촌의 여성은 '미군을 상대'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한국 남성'에게로 귀환하기 열망하는 존재들이다. 한국 남성들은 자신들이 여성들보다 우위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면서 미군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는 무기력한 존재였다.[52]

이 작품의 스토리는 모든 과거의 의식, 혹은 미래에 대한 전망을 지워버리는 환락의 현재적 시간성 위에서 전개된다. 그러므로 소설 속의 모든 등장인물들은 무시간적이며 그들의 삶 역시 허황하다. 「아메리카」의 서사는 서울의 아파트 붕괴 사고로 인해 가족을 잃은 화자 '나'가 서울을 떠나 당숙이 살고 있는 동두천으로 내려가면서 시작된다.

나의 가족은 날림공사로 지어진 아파트에 살다가 잠든 채로 그일을 당하였다. 부대에서 연락을 받고 달려나갔을 때 나는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내 두 누이동생의 시체가 무너진 콘크리트 더미들 사이에서 끌어내어져 가마니에 덮여 있는 것을 보았다. 당숙이 당숙모와 함께 거기 와있었다. 방송을 듣고 달려왔다는 것이었고, 내게 여락을 취하게 한 것도 당숙이라고 하였다. 참혹하게 죽은 사람들 앞이었고, 엄청난 불행의 무게에 눌려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사람의 앞이었으나 당숙은 살아가는 일에 자신을 잃지 않은 사람만이 지닐 수 있는 자상하고 굳센, 현실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53]

마포의 와우아파트 붕괴 사건으로 겪게 된 가족의 사망은 효식에게 큰 상처를 주었으며 제대를 하고 당숙이 있는 동두천으로 떠난 이유도 서울이라는 곳을 벗어나 마음속의 일종의 치유를 얻으려고 하는 도피의식이 깔려있다. 와우아파트 사건[54]은 1970녀 4월 8일에 일어난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준 사건이다. 1930년 일제강점기 때 한국에 처음으로 아파트가 등장하였다. 하지만 이때까지 아파트는 보편화 되지 않았다. 해방과 전쟁으

52) 소설의 배경은 '서울'과 '동두천'이라는 사실은 다소 작가의 자전적 경험이 상당수 반영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작가가 한국 전쟁 시기의 몇 년을 제외하면 대부분을 서울에서 보냈을 뿐 아니라 동두천에 정착한 아버지의 생활상을 직접 목격하며 자랐기 때문이다.

53) 조해일, 『아메리카』, 책세상, 2007, 166면.

54) 와우아파트는 불과 6개월만에 지어졌고 4개월도 안되어 폭삭 무너져어 무려 30명이 넘는 사람이 부상을 입었다.

로 많은 주택이 파괴되고 인구가 급증하는 바람에 한국은 엄중한 주택난에 시달리게 되었다. 1961년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필요주택 수는 48만 2386동인데 비하여 현존주택은 불량주택 5만 7957동을 포함한 26만 9443동에 불과하여 주택 부족률은 44.2%였고, 여기에 불량주택을 더한다면 그 부족률은 65.7%에 달했는데 이러한 추세는 계속되었다고 한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1960년대 정부는 본격적으로 아파트를 건설하기 시작하고 서민의 주거 안정대책으로 부상하였다. 특히 1969년 서울시는 불량건물을 감소하고 서민의 주택문제를 해결한다는 목표를 내세우면서 시민아파트 2000동을 건설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러나 1970년 부실공사로 와우아파트가 붕괴됨에 따라 시민 아파트 건설이 중단되었다. 서울시는 재정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민아파트 건설 계획을 수정하지 않고 오히려 더 빨리 더 많이 짓기로 결정하였다. 과도한 노동과 인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게다가 다가오는 장마철에 금화지구에서는 폭우로 아프트 건설용 토사가 벽돌집을 덮쳐 3명이 죽었고 와우지구에서도 토사가 인근 주택가로 밀려들어 침수까지 발생하였다. 지나치게 낮은 시공비, 무리한 목표량과 맞지 않은 짧은 공기, 부적절한 시공업체, 공무원들의 비리들이 총체적으로 결과 1970년 4월 8일에 붕괴사건을 초래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33명의 주민이 사망하고 40명의 주민이 다쳤다.[55]하지만 이 사고에 대한 정부의 태도, 당시의 서울시장 김현옥은 서울시민보다 임면권자인 박정희 대통령에게 책임지겠다는 것이고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도 공사과정과 감독에 돌렸다. 그리고 김현옥은 서울시장에서 면직되었다. 하지만 그는 곧 내무부장관으로 영전했고 공화당 공천으로 서울 마포에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며 승승장구했다. 사고 이후 서울시는 4월 11일 마포중 고등학교교정에서 합동위령제를 열기로 했으며 유족 1가구당 조의금 10만 원과 위로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부상자의 치료비도 시가 담당하기로 했다. 또한 그들을 위해 저층 아파트가 당산동에 건설되었다. 하지만 유가족과 정부사이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까지 갔다고 한다. 정부의 부실공사로 자극 된 재난이지만 그것이 인민들을 위해 시작한 출발점은 소홀할 수 가 없다. 그러므로 현대화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희생과 죽음은 동반되어있다.

55) 발레리 줄레조, 길혜연 역, 『아파트 공화국』, 후마니타스, 2007, 34면.

소설 안에 내재된 현실은 당대 현실에 대한 불만족이나 불안감들이 굴절 반영된 것이다.[56] 「아메리카」의 화자인 효식은 처음에는 방관자의 위치에 놓여 기지촌에서 발생하는 일들에 무관심하였다.

그때까지도 나는 나 자신을 어떤 외방객, 이곳의 운명과 나 자신의 운명은 전혀 별개의 것이고 언젠가는 이곳에서 떠나게 될 일개 기숙자, 내지는 한 사람의 구경꾼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과실을 깨달을 날은 머지않아서 왔다.[57]

효식은 '타자'에 위치하여 기지촌여성들과는 다른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그들의 삶을 마비된 생활이라고 한다. 심지어 기지촌여성들을 '더러운' 존재 라고 의식하고 있었다.

"놀랐어요"
그녀가 커피잔을 머리맡으로 멀어놓으며 말했다.
"뭘?"
"버스에서 처음 봤을 땐 숙맥처럼 보였드랬어요. 멍청한 사람처럼"
"그런데?"
"소질이 굉장해요. 첨은 물론 아니죠?"
"여기 와선 처음이지."
"그전엔?"
"종삼이 없어지기 전에 몇번....."
"어머 그런 델 갔어요?"
"그런 데라니?"
"더럽다던데."
"하!"
나는 감탄했다. 이 여자는 자부심을 갖고 있구나! 이 귀여운 무지덩이.
'그럼 옥화는 깨끗한가?'

56) 김예리, 「살아있는 관계의 공적행복-1970년대 김종철 문학비평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학회, 2016, 69면.
57) 조해일. 『제3세대 한국문학. 16 조해일』, 삼성출판사, 1990, 22면.

라고 그러나 나는 묻지 않았다. 그런 건 내게 실상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다. 내게 중요한 것은……[58]

다소 위악적인 태도로 효식은 '옥화, 노랑머리 경애, 젖큰이 춘자, 꼬마 샌디, 고고의 명수 써니, 얌전이 명자, 쥬리, 그리고 미라' 등과 성관계를 맺는다. 기지촌 여성을 바로 보는 효식의 시선은 "그녀들은 이제금 더러움에 대한 감각이 마비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데서 드러난다. 효식은 미군을 상대하던 기지촌 여성들로부터 끊임없이 유혹을 받는 호기심의 대상이 된다. 효식에게 기지촌 여성은 '미군을 상대' 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한국 남성'에게로 귀환하기를 열망하는 존재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효식이 이들 여성들과 거리낌없이 관계를 맺는 형상으로 그려진 것은 이중적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 한국 남성은 기지촌 여성들보다 우위에 있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기지촌 여성을 위무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해석은 무력감이 이 소설 속에 팽배해 있다는 사실과도 연결된다.

성관계를 종사하는 여성들은 언제든지 인간으로서 누군가의 존중을 받지 못한다. 금전적 교환가치로 성립된 관계인지를 막론하고 '성 서비스에 종사한다'라는 이유로 이색적인 시선을 받아야만 했다. 경제가 발전 하든 쇠퇴하든 이 사회는 여성에게 관대하지 않는다.

「아메리카」 한국 남성에게 미국에게 남성에게도 인간 대접 받지 못하는 이런 미군 기지촌여성들의 고단한 삶을 묘사했을 뿐만 아니라 억압적인 정치상황에서의 한국 남성의 각성과정도 잘 드러나는 작품이다.

작품의 시작에서 자신을 '외방객'이라고 말한 효식은 한기옥 살해사건을 겪고 조금씩 달라져갔다. 효식이 어느 무더운 여름 날 밤, 한기옥이라는 여성이 흑인 미군에게 끌려가는 목격했지만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고 물끄러미 구경만 하였다.

우리는 다음 순간 조금전 우리가 빠져나온 바로 그 골목 안에서 나는 다투는 듯한 발짝 소리와 함께 아주 가까이 들리는 여자의 외마디 소리를 들었다. 장씨와 나는 거의 동시에 소리나는 쪽으로 몸을 돌이켰는데, 순간 나는 전신에 소름이 쭉 끼치는 것을 느꼈다. 아까의 그 검둥이가 흰 이를 사려물고 벌거벗은 한

58) 조해일. 『제3세대 한국문학. 16 조해일』, 삼성출판사, 1990, 20면.

여자의 머리를 나꿔쥔 채 한 손으로는 기다란 면도칼을 내저어 우리를 위협하며 마악 골목을 나서고 있었다. 여자의 온 몸은 공포의 표정을 역력히 드러낸 채 잔뜩 활처럼 휘어져 있었고 두 손은 제 머리채를 틀어쥔 검둥이의 손을 필사적으로 할켜대고 있었으나 머리채가 당겨지는 아픔과 아무리 할켜대도 조금도 늦귀주지 않고 잡아채는 검둥이의 광포한 힘에 무력하게 질질 끌려 나오고 있었다. 장씨와 나는 거의 동시에 화닥닥, 녀석이 내두르는 칼날을 피해 양쪽으로 갈라서서 길을 티어 주었다. 검둥이는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해 흰 이를 사려물고 광포하게 칼날을 휘둘러 허공을 두어번 베어 보이고 나서 내쳐 여자를 잡아 채었다. 우리가 잠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이, 여자는 이제 몸만 잔뜩 뒤로 휜 채 거의 종종걸음을 치다시피 어둠 속으로 끌려가고 있었다.[59]

이런 무능한 효식의 행동으로 한기옥이라는 여성은 죽음을 당하게 된다. 만약 그때 당시, 흑인이 아니라 한국 남성이 여성을 끌고 갔으면 효식은 말렸을까? 말렸을 거다. 이것은 남성 대 남성의 정면충돌이 아니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싸움이다. '못 가진'자에 속한 효식은 시작부터 약자의 위치에 서기 마련이다.

또 이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여성의 목소리는 '외마디 소리'밖에는 없다. 그녀는 온몸으로 공포와 절망감을 표현한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는다. '육체의 언어'를 통해 죽음의 공포를 드러내며 도움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녀의 언어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손을 내밀어 주지 않았다. '사회'은 여성하위주체를 '보호'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기옥이 같은 '창녀'는 사라져야 할 존재이다.[60]

그리고 시작부터 자신을 '외방객'이라고 생각했으므로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지 못 했다. 이런 살해사건은 실제상으로도 많이 벌어졌다. 1970년대의 양공주들은 미군에게 맞아죽고, 포주에게 맞아죽고 자살해서 죽은 여성이 수없이 많았다. 유명한 사건이 1990년 1월 동두천시 보산동 '히파리집'에서 발생한 신차금 씨 살해 사건이다. 당시 민군 성구매자를 소개한 '펨푸'가 증언을 했고 피해자의 몸에서도 외국인에게 많이 나타나는 염색체 구조를 발견하였으나 사건직후 용의자인 미군은 미국으로

59) 조해일. 『제3세대 한국문학. 16 조해일』, 삼성출판사, 1990, 25면.
60) 김원규, 「1970년대 서사담론에 나타난 여성하위주체-조해일의 <왕십리>, <아메리카>를 중심으로」,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7.

송환되면서 사건이 마무리되었다. 소설「아메리카」에서는 씀바귀회가 한기옥을 위해 '거대한' 장례식을 치르고 미군으로부터 돈 2만원을 가진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었다. 2만원으로 한 사람의 생명을 사기에는 인간의 목숨 값이 보잘 것 없이 쌌다. 장례식에서 많은 기지촌 여성들이 통곡을 하였다. 그것은 여성들 사이의 정이 얼마나 짙은 것을 떠나 자신을 바라보는 일종 서러움의 감정에 북받쳐서 일 것이다.

그러므로 당시의 한국에서 미군은 법으로도 징벌주기 힘들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가진 나라와 못 가진 나 사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 내지는 소외관계라는 도식에서 한 발짝도 더 나아가 수 없다는 무력감'일 따름이다.효식은 한기옥의 살해사건으로 한동안 앓게 된다. 다시 한번 자신의 정체성, 여성들의 정체성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된다.

나는 밤새 어두운 내 방에 누워 고열과 그리고 마음속의 혼란과 싸웠다. 몸의 고열은 어쩌면 마음의 혼란에서 비롯한 것인지도 알 수 없었다. 찬 방바닥이 땀으로 흥건해지는 고열의 혼미 속에서, 나는 내 가족의 참혹한 주검들과 군대의 유격훈련 조교가 되는 과정에서 겪었던 가축 같은 몸의 혹사의 순간들과 벌거 벗은 여자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칼날을 휘두르던 흑인 병사와 광포한 눈빛과 그리고 흰옷 입은 여자들의 끝없이 긴 장례 행렬이 내 흠뻑 젖은 몸 위를 밟고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것은 순서가 뒤죽박죽인 슬라이드처럼 어지러이 되풀이되었다.[61]

이 부분의 묘사는 효식이의 내심적 갈등을 하는 장면이다. 효식은 대학을 다닌 지식인 계급에 속한다. 하지만 국가의 부실공사로 고아가 되어버린 그는 삶에 대해 희망을 잃어버렸다. 작품의 시작에 효식은 여성들을 조금도 수치심과 열등감이 없는 존재로 언급했다. 이를 계기로 효식은 양공주를 에로티시즘의 대상이 아닌 온전한 여성, 자신과 같은 인간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는 적극적으로 양공주들의 모임 "씀바귀회"를 찾아 나섰다. 그러나 어떤 실제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고 더 나아가지 않았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의 교육수준이 낮으므로 실제적인 행동을 하기 에는 일정한 어려움이 존재한다.

61) 조해일.『제3세대 한국문학. 16 조해일』, 삼성출판사, 1990, 39면.

한기옥 사건으로 효식은 자신의 정체성에 심한 혼돈을 겪는다. 그리고 기지촌 여성들의 삶이 그들의 문제가아니라 '우리'들의 문제라고 인식한다. 이런 효식에게 당숙은 "절망 이외엔 아무 것도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쉬웠던 시대"에 "천하게 비겁하게 살아 남았" 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의 몫도 있다"고 말한다. 이 말은 기지촌이 바깥세상 사람들에겐 민족의 순수성이 훼손된 공간으로 인식될지 모르지만 '미국과 한국의 외교적 완충지대 역할'을 해오며 '민족의 알레고리'로서 기능했음을 의미한다.[62]

여기에서 문제적인 단체인 '씀바귀회'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씀바귀회는 기지촌 여성들의 자치 조직이다.[63] 이 모임에 남성은 없고, 국가도 없으며, 민족도 없다. 체제의 바깥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기지촌 여성들이 만든 단체다. 그런 의미에서 씀바귀 회는 스스로 이야기할 수 없는, 혹은 공식적 영역에서 배제된 이들이 만들어낸 존재증명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소설에서 씀바귀회 회원들은 스스로 상주를 자처하며 자신들의 힘으로 기옥의 장례를 치른다. 인용문에서 여성들이 향하는 공동묘지는 '남산모루 공동묘지'로 불렀던 상패동 공동묘지이다.[64]

상여가 다리께로 굽어들자 거기서부터 후미의 여자들이 뒤따르는 구경꾼들을 막았다. 장 씨가 내게 설명했다.

"여기서부터 자기네들끼리 갑니다. 장지에 도착하면 무덤도 자기네들끼리 파고 하관도 자기네들 손으로 마치고는 봉분도 자기네들 손으로 한답니다. 다 끝난 다음엔 술들을 지탕 퍼마시고 한바탕 뒹굴며 난장판이 벌어진다더군요. 나두 들었죠. 이따 저녁에 보세요. 저 흰옷들이 왼통 진흙 투성이가 돼서들 내려올 겁니다."[65]

서울에 취직자리를 마련해 주겠다는 친구의 편지에 "서울 사는 사람들의

62) 박선애,「기지촌 소설에 나타난 매춘 여성의 문제」, 한국현대소설학회, 2004, 284면.

63) 1960년대 초 이후 대부분의 기지촌에는 '자치회'가 있었다. 이태원의 자치회는 장미회, 송탄은 꿀벌회. 동두천은 민들레회라고 불렀다. 일부 기지촌들은 클럽 호스티스로 일하기 위해 허가증뿐 아니라 자치회 회원 자격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치회가 결코 자율적이었던 적은 없다. 지역 경찰과 정부 당국자 들이 자치회 대표를 선정하여 여성들의 활동을 감시하게 했으며, 각 경찰서는 자치회의 연락을 담당하는 사람을 두었다. 캐서린 지음 이정주 옮김,『동맹속의 섹스』. 2002. 49-50면.

64) 실제로 동두천의 기지촌 여성들은 그곳에서 억우랗게 죽어간 수많은 여성들이 이 공동묘지 뒤편에 묻혔다고 증언한다. 김정자 증언, 김현선 엮음, 새움터 기획,『미군 위안부 기지촌의 숨겨진 진실』, 한울아카데미, 2013, 136면.

65) 조해일.『제3세대 한국문학. 16 조해일』, 삼성출판사, 1990, 38면.

소시민적 낙천주의의 어떤 부패한 냄새”가 묻어 있다고 느끼는 태도에서 그러한 일면이 발견된다. 이와 동시에 서울은 동두천과 달리 일자리가 많고 미래가 보장된 공간으로도 상상된다.[66]

「아메리카」는 주로 동두천 미군기지촌에서의 여성들의 삶을 묘사하고 있다. 1970년대 미군기지촌은 동두천을 제외하고도 많이 있다. 그러나 작가는 왜 동두천을 선택하였는가? 「아메리카」의 무대를 이루고 있는 ‘ㄷ읍ㅂ리’는, 지금은 시가 되었지만, 정확하게 동두천읍 보산리 구체적 공간으로, 그 공간이 한국에게 주는 상징적 의미는 무겁고 크다. 그것은 이른바 일제 강점기로부터 해방된 한국인이 한국인의 자유와 주권을 주체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고 맞닥뜨린 또 하나의 외세 개입이 바로 미국과 소련이라는 점에서, 그것의 한쪽 점령군 주둔지의 대표적 지명이 바로 동두천이다. 동두천은 민족의 자존심에 상처를 준 공간이다. 동두천은 가장 문제적인 공간이라 할 수 없다. 동두천은 한국의 분단에 대한 이데올로기를 상징적으로 안고 있는 도시이며, 그 분단이 낳은 온갖 부산물들을 구체적으로 싸안고 있는 도시이다. 더불어 조해일은 청소년시절에 서울에서 생활했지만 그의 부친이 동두천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는 동두천을 드나들며, 동두천 기지촌 주변의 상황을 경험했다. 이런 경험은 동두천 미군기지 주변을 배경으로 한 작품 「아메리카」의 사실성을 돋보여준다.

동두천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역사적 현장성을 투시하고 있는 공간이다. 경기도 북부중앙에 위치한 동두천은 1963년 양주군 동두천읍으로 되었다가 1981년 7월 1일 시로 승격되었다. 동두천은 원래 농업을 위주한 도시였다. 피난민이 집중되고 미군 주둔에 따라 기지촌이 형성하면서 인구가 급증하였다. 동두천은 분단의 아픈 상처의 역사와 관련되며, 역사의 상처가 남긴 흉터로 상징화된다. 농업을 위주로 하던 도시가 미군 주둔지 부근에 형성되어 소비적인 서비스 역할을 하는 마을로 전환되었다.

1970년대는 정치적으로 암흑기였지만 경제적으로는 성장의 시대였다. 통계에 따르면 동두천 보산 1리의 20~24세층의 여자 831명중 625명이 양공주로 75.3%를 차지하고 이외에 농업인구율은 7.2%이고 나머지는 클럽, 여관, 다방, 상점 등 서비스업을 종사한다.1970년대 사회 경제가 급속히

66) 실제로 이 시기 주한미군의 대대적인 철수 결정으로 인해 1970년에 이미 동두천에서만 1천여 명의 한국인 종업원이 감원되면서 지역 전체가 불경기에 휩싸이게 되었다.

발전했지만 그것은 모든 사람의 몫이 아니었다. 가난 앞에서는 가족의 살아도 없어지게 된다. 자식을 사랑하고 지켜줘야 하는 부모님이란 사람은 자식을 자신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도구로만 여기고 있다.

그 카바레라는 곳엘 내가 ㄷ에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장 씨의 안내로 한번 구경갔었는데 당시 내가 재미있다고 생각한 것은 이곳의 카바레에서는 여성 고객에게만 입장료를 받고 있다는 점이었다. 경제활동의 중인공이 이곳에서 누구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흥미로운 보기가 되리라고 나는 생각했었다. 동네 건달들이란 이를테면 수고하여 수고하여 돈버는 여자들을 위한 위안부인 셈이라고도. 그리고 그때 아마 나는 그러한 생각들을 즐겼던 듯하다. 67)

'카바레'는 여성들이 동두천 경제활동의 주인공일 뿐 아니라 몇몇 남성들은 이 여성들의 편의를 위해 일한다는 사실이 부각되는 장소다. 이로 인해 기지촌의 여성들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하층 계급의 남성들보다 우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과정에서 자유로운 연애 감정을 느끼며 여성들과 대등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한 '나'는 자연스럽게 그곳 여성들의 생활을 위해 존재하는 남성들과의 관계에서 심리적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로부터 경제의 주력을 알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위치를 기술하는 데 사용되었던 가장 일반적인 경제적 메타포는 아마도 상품의 메타포일 것이다. 메리 앤 도안이 지적하듯이, "여성의 객체화, 물신화 과정에 물들기 쉬운 성격, 전시, 이윤 잉여가치 생산 등 이 모든 것은 여성을 상품 형식과 유사한 관계에 놓는다." 여성은 자본저의 경제에서 남성들 사이에 교환되는 대상으로 간주되었으며, 남성 구매자의 시선을 끌기 위해 가능한 한 자기 자신을 유혹적인 존재로 만들도록 강요당해왔다.68)

동두천의 여성들은 '자유로운' 의지에 의해 행동하는 것으로 상정된다. 처음 '나'가 동두천에 내려올 때 우연히 동해하게 된 '옥화'와의 만남을 시작으로, 그곳 여성들과 '나'의 관계는 금전적 대가가 교환되지 않는 자유로운 연애감정에 의한 것으로 묘사된다. 뿐만 아니라 동두천의 여성들이

67) 조해일. 『제3세대 한국문학. 16 조해일』, 삼성출판사, 1990, 55면.
68) 김영찬, 『근대성과 페미니즘: 페미니즘으로 다시 읽는 근대』, 거름, 1998, 109면.

자신의 “생활을 즐겁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는” 인식은 그곳 여성들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그곳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여성들이 성을 수단으로 자신의 삶을 밀고 가고 있는데 이는 당대적 상황에서 여러 의미를 함축하는 요소이다. 1970년대는 성행위가 노골적으로 묘사되고 성적 욕망이 결코 부끄러운 것이나 숨겨야 할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라는 담론이 지배적인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 잡는 시기였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성적 욕망은 일상성에 대한 욕구나 경험처럼 자연스러운 것임을 인정하는 시기였다.

미군에게 성과 위안을 제공하고 달러를 벌어 나라의 경제성장을 가져온 역할을 한 양공주를 향해 한국 정부는 애국자라고 찬양까지 했다. 그리고 유신정권은 전략적으로 ‘성’으로 관심을 유도하여 향락문화를 조장하였따. 여성들의 ‘성과 육체는 외화벌이에 이용됨으로써 국가 발전 논리의 희생물’이자 성 개방 사회의 남성들의 성적 욕망을 순화하기 위한 도구가 되었다.[69] 애국자로 찬양까지 받고 경제발전을 도모했음에도 불구하고 양공주들은 논리적 비약을 피할 수 없었다. 동두천은 양공주의 비애가 서린 기지촌으로서의 표상인 문학공간으로 의미가 있다.

1960년대까지 규제 대상이었던 성과 매춘은 70년대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외화벌이라는 명목으로 개방하였으며 유신정권은 전략적으로 성으로 관심을 유도하여 향락문화를 조장하였다. 여성들의 성과 육체는 외화벌이에 이용됨으로써 국가 발전 논리의 희생물이자 성 개방 사회의 남성들의 성적 욕망을 순화하기 위한 도구가 되었다.[70]

해방전쟁과 한국전쟁으로 인해 미국은 한국에게 든든한 우방이자 시혜국 이라는 시각과 점령과 폭력의 시각으로 보고 있다. 폭력은 앞서 말했듯이 미군이 양공주를 살해하고 작품 속에서 군표개신, 미군외출금지, 성병검진 격리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폭력적인 조치들로 기지촌사람들에게 진정한 ‘통치자’가 누군 인지를 알려주고 있다.

군부대 주변에서 빈번하게 이러나는 자살사건이나 미군에게 버림받은 등등 여러 사건은 미군과 관련이 있어도 적합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 ‘검

69) 이정옥, 「산업화의 명암과 성적 욕망의 서사」, 강남대 『인문과학논집』, 제10집, 2001, 3면.
70) 오경복, 「한국 근현대 베스트셀러문학에 나타난 사회사-1970년대 소비적 사라의 대리체험적 독서」, 국제비교한국학회, 2005, 13면.

둥이'미군에게 살해당한 기옥이의 경우도 터무니없는 합의로 뒤처리되고 만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시혜국이기에 무력하게 타협하는 수혜국의 비극성이 전제된다. 작가는 이 작품을 "기지촌사람으로서의 한국인의 삶"의 기록이라고 고백했다.[71]

한 나라의 능력을 말하면 경제력, 군사력을 빼 놓을 수 없다. 한국은 자기 나라의 안보를 외국인 미국에게 맡겨두었다. 게다가 당시의 경제구조 또한 미국을 위주로 돌고 있었다. 소설 속에 미군이 자기 마음대로 군표를 개신한다고 통지를 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불안해 지기 시작했다.

한국인이 군표를 갖는 것은 불법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군표를 가진 사람들은 적은 수가 아니었다. 군표는 여러 가지 편리한 쓸모를 가지고 있었고 불법을 무릅쓸 만큼의 화페로서의 우수성을 인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군표는 엄청 난 우수성을 가지고 있었다. 미군들도 한국인들에게 화폐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신들이 바꾸는 것이 귀찮은지 아님 언제가 군표가 개신 될 줄 알고 있었는지 이 규칙을 지키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법률상으로는 불법으로 정해 놓으면서도, 실제로는 군표 사용을 방관, 허용한 미군의 교묘한 군표 규제는 기지촌 상권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작용된다. 동두천 주민들은 이미 평생 동안 미군의 통제에 길 들어져 있어서 손실이나 부당함과는 무관하게 미군의 지시를 받아들이는 데 익숙해져 있다.

1970년대 한국사회는 본격적인 산업화의 궤도에 올라선 시기이다. 60년대 중후반에 시작된 이른바 월남 특수로 인해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경제적인 이익을 보장 받을 수 있었고 수출 주도형 경제성장 정책이 성과를 보이면서 외형적 경제성장을 이루어가고 있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이농과 농촌파괴, 인구의 도시집중과 노동착취문제, 분배의 불평등과 정치적 억압 등 많은 사회문제를 배태였다. 그런 1970년대의 한국사회의 근대화과정은 자본주의의 모순이 심화되는 과정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도시 대중들에게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가져다주는 계기가 되었다.[72]

또 한국정부는 외화벌이를 위한 관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때 성

71) 조해일 외, 『<매일 죽는 사람>들의 시대』, 『33인의 자서전』, 양우당, 1993, 66-67면.
72) 김진기, 「문학으로 사회읽기」, 박이정, 2003, 158면

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윤락여성으로 낙인 찍었던 반면 외화벌이의 수단으로서의 그녀들에게는 “산업전사”, “애국자”로서 대접했다. 1973년6월 문교부 장관이 “매매춘은 애국적 행위”라고 장려하는 발언을 한 것 외에도 1971년 12월 22일 박정희는 기지촌 정화정책을 표방하면서 외화 획득 차원에서 기지촌을 육성하고 이들을 관리할 것을 강조했고 클럽들을 관광협회에 등록시켜 하와이 관광산업을 견학하게 하기도 했다. [73]

이 경제발전의 주요 주력이 미군 기지촌여성이다. 그들은 매춘을 통해 외화를 벌어드려 오고 국가의 경제 발전을 추진시켰다. 하지만 이런 매춘에 관하여 미국은 자신의 병사들의 건강을 위해 한주에 한번 검진패스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

지난 일주일 동안 동네에서는 미군의 그림자 하나 볼 수 없었다. ‘토벌’이 있은 그 다음 날 저녁부터 미군이라곤 한명도 영외로 나오는 것이 허가되지 않았던 것이다. ㄷ에서는 위안부들의 성병 이환율이 지나치게 높고 그로 인한 미군들의 성병 감염률이 날로 증가해간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물론 ‘토벌’에서 체크된 각 클럽의 검진 불합격자들은 바로 그 이튿날로, 여자들 간에 통상 ‘수용소’라 불리며 경원의 대상이 되는 ‘성병 집단치료소’로 강제 수용되 었고, 검진패스 불소지자와 불합격자들의 입장을 허가한 클럽에게는, 일주일간 미군들의 영외출입이 금지될 것이라는 미군 당국의 통고가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통고이 대상에서 제외된 클럽은 한 군데도 없었다.[74]

실제로 낙검지 수용소[75]로 끌려가는 것은 기지촌여성들에게 공포 그 자체였다. 감옥살이 같은 수감생활에서 기지촌여성들은 실제로 페니실린 주사로 인해 사망하거나 수용소를 탈출하다가 사망하는 사건들이 발생했다. 낙검지 수용소에 끌려간 여성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탈출을 시도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수감되는 과정에서 탈출하는 것이다. 보건소 차량이 낙

73) 백경옥,「1970년대 박정희정부의 대중문화통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74) 김영찬,『근대성과 페미니즘: 페미니즘으로 다시 읽는 근대』, 거름, 1998, 59면.
75) 2017년 1월 20일, 서울중앙법원은 국가가 기지촌 사람들을 아무런 법률적 근거도 집단치료소에 감금하여 성병을 치료한 행위에 대해 대한민국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 선고 2014가합544994판결. 그러나 실제 기지촌 그 자체가 당시 국가에 의하여 관리되던 외화벌이 수단 내지는 주한미군관리수단이었다.이 사건의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실까지도 인정하면서 “피고(대한민국)는 기지촌운영, 관리에 있어 적극적으로 외국군 상대 성매매를 정당화, 조장함으로써, 원고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나아가 성으로 표상되는 원고들의 인격 자체를 국가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

검지 수용소로 들어가기 위해 정문 앞에 잠시 정차했을 때 기지촌여성들이 탈출을 시도하면 차량이 동승한 성병진료소 직원들과 낙검지 수용소의 수위 및 직원들이 여성들을 붙잡기 위해 뒤쫓았다. 다행히 붙잡히지 않은 여성들은 과수원에 숨어 있다가 빠져나오곤 했다.

작품의 제목 「아메리카」처럼 '외세에 의해 지탱되는 삶의 방법과 모습'을 아이러니컬하게 상징화한 것이며, 그것은 또한 김병익의 지적한 바와 같이 '후진국 시민이 괴로워해야하는 정치, 경제적, 사회, 문화적 모순'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늘 피해자라는 신분으로 존재해야만 했다. 또한 미군에 기생하는 생활에서 벗어날 수 가 없다. 기지촌 여성들의 매춘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이 정부이다. 정부는 당시 미국이 철거할까봐 두려워 일련의 정책으로 미군을 잡으려고 했다. 사회경제는 발전했지만 사람들의 사상은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의 관계에서 한국은 늘 불리한 처지에 처해있다. 한국은 미국의 엄밀한 감시 아래 있었으며 미국은 심지어 청와대를 도청하기까지 하였다. 이에 박정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미국의 신임을 얻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안전보장을 위하여서도 한국은 자신을 미국에게 더욱 단단히 묶어놓을 필요가 있었다. 때문에 1961년 11월에 박정희가 케네디와 회담을 할 때 '만약 미국이 지원을 제공할 것을 승인하면 한국은 파병할 수 있다"고 표시하였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박정희는 처음부터 베트남파병으로 발생할 경제이익에 관심을 두었다. 1963년 말 이래로 박정희정권은 미군이 한국에서 부분적으로 철수 할 것이라는 소문에 불안을 느끼던 터였다. 한국은 미국이 한국을 일본에게 떠넘기고 미군을 베트남에 뽑아가는 것을 걱정하였다. 때문에 박정희가 파병을 주동적으로 자청한 의도는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할 명분을 미리 막아버리고 나아가서 한미 안전보장공약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것이었다.[76]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얻어낸 경제이익에 관한 보장은 다음과 같다. 1 베트남에 파병한 한국군의 모든 군수물자와 베트남군의 부분적인 군수물자는 모두 한국에서 제공하고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 베트남에서 한국기술인원의 고용범의를 확대한다. 2 미국이 한국에 대한 기술 원조를 강화하여 한국의 수출능력을 증강한다. 3 하루속히 1.5억의 달러의 대부금을 제공하

76) 김광희, 『박정희와 개발독재』, 선인, 2008, 146면.

고 또 계속하여 대부금을 제공한다. 4 한국기업이 베트남에 투자하는 것을 미국이 장려한다. 비록 베트남전쟁으로 한국은 막대한 대가를 하였지만 베트남전쟁은 한국의 근대화에 커다란 이익을 가져다주어 1960년대 한국 경제발전의 주요 성장 동력으로 경제도약의 기초를 닦아 놓았다.[77]

그러다가 1970년대에 들어선 후 한미관계에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다. 1969년 7월26일 닉슨은「괌독트린」을 발표하여 한국인들로 하여금 미국이 아무 때건 한국의 안전보장에서 손을 뗄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1968년과 1969년에 박정희는 미국이 베트남에서 철수할 것을 예상하였기에 남은 문제는 미군이 언제 한국에서 철수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1970년 7월22일에는 조선특공대가 현충문에서 박정희의 목숨을 노리다가 자기들의 실수로 한 특공대원이 숨진 사건이 일어났다. 이런 한 때에 닉슨은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1970년 3월에 박정희는 미국의 주한미군 한 개 사단을 철수할 것이라는 통고를 받았다. 그해 7월에 한국은 미 제7사의 철수결정을 통고받았다. 8월에 미국부통령 애그뉴가 한국을 방문하여 박정희와 철수기한과 보상에 대하여 협상하였다. 에그뉴가 한국을 떠난 사흘 후 한국정부는 미국이 자기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1만명의 미군이 이미 한국인의 코밑에서 슬그머니 철수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기실 미국은 한국정부에 그 어떠한 사전통고도 하지 않은 정황에서 반년 전부터 슬금슬금 철수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아무 사전협상도 없이 미국이 일방적으로 철수한 것은 1965년 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10항 조약'에 위반되는 일이었다. 박정희와 한국정부로선 참으로 분통이 터질 노릇이었다. 1971년 3월 말에 이르러 미국은 주한미군 제7사단을 전부 철수하였고 주한미군의 총 수는 원래의 52580명에서 33250명으로 대폭 줄어들었다.[78]

박정희는 오직 자기만이 조국근대화의 비밀을 알고 있고 자기를 제외한 그 누구도 '조국근대화와 '민족중흥'의 목표를 실현할 수 없다고 보았다. 물론 집권만이 자신의 '조국근대화'의 목표를 실천에 옮기는 것을 보장하기에 그는 장기집권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1967년에 대통령을 연임한 후 박정희는 장기집권을 꿈꾸었다. 1967년에 그는 사석에서 김형욱에게 절대 정권을 내놓을 수 없다고 내심을 마라하였다. 1962년

77) 김광희,『박정희와 개발독재』, 선인, 2008, 146면.
78) 김광희,『박정희와 개발독재』, 선인, 2008, 146면.

의 한국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한번밖에 연임할 수 없었다.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정원의2/3의 동의를 얻어야만 헌법중의 중임제한규정을 변경할 수 있었다. 1967년의 초선에서 박정희와 여당인 민주공화당은 개헌에 필요한 의석수를 얻으려고 관권, 부정선거를 자행하였다. 개헌문제에서 여당 내부에서조차 의견의 일치를 보여 개헌을 반대했다. 김종필 일파를 타격하기 위하여 1969년 4월 박정희는 민주공화당으로 하여금 문교부장관 권요병에 대한 불신임안을 부결시키도록 하였다. 김종필계 의원들의 항명으로 불신임안은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박정희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김종필계 의원들을 여당에서 제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정을 두지 않고 탄압하였다. 이후 민주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 몰래 국회 제3별관에서 여당만 참가한 가운데 '삼선개헌[79]'의안을 반칙적으로 통과시켰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박정희는 합법의 겉모양을 빌려 대통령을 다시 연임하기 위한 길을 닦아 놓았다.[80]

소설의 마지막은 홍수로 끝이 난다. 효식은 기지촌 여성들의 바깥에 있는 한국인 남성일 뿐이다. 그의 공감과는 상관없이 그의 존재 자체가 기지촌 여성의 입장에서는 '남성 지식인 타자'였다. 타자로서 자신을 자신을 인식하자, 그 자신이 보다 더 명료한 '타자'의 위치에 서게 된다. 효식의 무력감을 바로 여기서 기인한다. 그리고 효식의 무력감은 큰 홍수로 인해 여성들을 돌보는 역할을 당숙과 같이 하면서 극복된다. 동두천이 물난리로 위기에 처하자, 기지촌 여성 착취자로서의 남성들이 재난 구호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일상 속에서는 가해자이지만, 특별한 재난 상황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를 무너뜨린다. 여성들을 대피시키는 와중에 당숙과 효식은 소통을 하게 된다.

당숙은 기지촌에서 삶을 영위하는 남성을 대변한다. 그는 기지촌 여성의 상황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이며, 성 노동을 착취하는 주체이다. 당숙의 발언은 미군 기지가 있는 곳에 기지촌 여성들이 있는 이유이자 기지촌 남성들의 역할에 대한 변호이기도 하다.

---

79) 삼선개헌은 박정희 개인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의 하나로서 끝내는 자신이 과거에 맹렬히 비난하였던 이승만과 같은 장기집권의 길로 나아가게 된 기점이다. 삼선개헌은 크게 두 과정을 거쳤다. 하나는 일찍부터 다음 대선을 겨냥하고 있던 김종필 일파를 위협한 것이다. 다른 한 과정은 야당과 국민에 대하여 변명하고 설득한 것이다. 삼선개헌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승만의 구역질나는 개헌과 장기집권을 연상시키기에 박정희와 민주공화당은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고비를 반드시 넘겨야만 하였다.

80) 김광희, 『박정희와 개발독재』, 선인, 2008, 186면.

그와 중에 작가는 ‘무력감’에 대항하는 서사를 기획했다. 작가는 미군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 혹은 약자로서의 자신의 처지를 서사적으로 포착함으로써 ‘오욕의 역사’를 응시하고, 위안의 서사를 만들어냈다. 강자인 미군에 예속된 굴종적 상황에서, 혹은 그 누구도 응시하지 않았던 기지촌 여성을 소설 속에서 포착함으로써 ‘비애적 상황인식’에 도달한다. 이진경은 이 작품이 ‘남성중심적인 민족주의적 알레고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이 소설의 기지촌 여성에 대한 공감은 일종의 절반의 내부자로서 1인칭 남성 화자의 위치에서 생겨난 것인데, 화자는 가난과 오욕의 일상을 공유하는 사람인 동시에, 지적·사회적으로 우월한 위치에서 기지촌의 삶을 관찰하는 외부자”라는 것이다. 이진경은 조해일이 남성 화자의 동일시적 위치를 통해 ‘절반의 내부자’를 그려냈으며, 이는 결국 “남성중심적 민족주의의 권위를 확대하면서 다시 회복시키는” 기능한다는 논평을 했다.[81]

81) 이진경, 나병철 역, 『서비스 이코노미』, 소명출판, 2015, 255-256면.

3. 조해일소설의 도시비판과 여성의식

대중소설은 우리 곁에 존재했지만 1970년대는 특히 대중소설이 그 어느 시대보다 꽃피운 시절이었다. 최인호, 조해일, 조선작, 박범신 등의 작가들은 이른바 통블생과 장발로 대표되는 청년문화를 주도하면서 새로운 독자층을 이끌었다. 이들이 선도한 1970년대 문학은 대중적인 노래와 영화 등이 갖는 고독과 대상적 무드를 전체적 배경으로 현대 도시 문명과 그 세태를 민감하게 반영하였다.

이들의 소설은 자의식에 가득 찬 반성적 남성인물과 혼탁한 도시 속에서 도시성과 순수성을 겸장한 여성인물이 관계를 맺는, 대중적 관심도가 높은 애정물이었다. 또한 대중문화와 함께 즐기면서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감각 문학이라는 서사적 유사성을 갖는다. 이들의 문학을 무엇이라 호명하든, 이러한 현상은 특출한 작가의 비범성이나 돌출성이 아니라 1970년대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세대작가군의 문제의식이 일맥상통하고 있었음에 대한 반증일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1970년대 대중소설을 산업화 시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의 역학적 관계에서 해명할 때 미적 대응방식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1970년대 대중연애소설의 낭만성, 동화성, 순수성은 순수하지 못한 현실의 블라인드 역할을 했다. 뒷걸음질 치는 정치와 앞으로 뛰어가는 경제 사이에서 대중문화의 급팽창은 어둠과 얼음의 이미지를 반성과 순수로 은폐하는 저지기계였던 것이다. 순수하지 못한 사회는 순수한 연애를 서사화함으로써 야만의 현실로부터 동떨어지게 하고 아무리 폭력적 현실도 매일 정화되는 육체처럼 깨끗해질 수 있다는 손쉬운 환상을 심어준다. 이럴 때 순수한 연애는 과대평가 되고 순수하지 못한 사회는 과소평가된다. 이러한 사회는 자유로운 사회인 동시에 폭력적 사회인 것이다.

3.1 1970년대 유신체제속의 현대화과정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는 긴급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하는 등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군사관제를 실시하였다. 한국하계의 많은 사람들은 '10월유신'을 박정희의 제2의 쿠데타로 보고 있다. 11월 21일 한국은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유신헌법'을 통과하는 등 이른바 제4공화국시기에 들어섰다. 이로부터 박정희는 더욱 전제주의적인 독재체제를 선택하였다

1964-1971년의 조국근대화시기, 박정희 한일회담에 반대하는 1964년 6.3항쟁에 대해 박정희정부는 미국과 합동작전으로 비상계엄을 발동하여 항쟁을 진압하고 개발독재체제를 건립하였다. 개발독재체제는 당대의 역사적 과제였고 박정희정권이 약속한 가난으로부터 해방과 '한강의 기적'을 가능케 한 기틀을 마련했다. 다른 한편 최초 군사정권이 내세웠던 ' 민족적 민주주의'지향의 퇴색을 가져왔다. 한국 개발경제의 도약에 힘입어 1967년 선거에서 박정희정권은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1960년대 대선에서 승리한 후 박정희정부는 여전히 취약한 정당서의 안정적 확보와 정권유지를 위해 국정 최우선 목표를 조국근대화로 조정하면서 이를 위해 대내외 정책 전반을 크게 전화 수정했다. 종전의 미국과 거리두기 정책에서 벗어나 미국의 동북아 반공 지역통합전략에 부응하고 이를 활용하면서 자신을 그 하위파트너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이 경향 속에서 한일국교재개를 타결하고 베트남전쟁에 참가하였다. 이것이 한국경제도약의 대외적 조건인 두 개의 성장 트라이앵글 즉 한국-미국-일본과 한국-미국-베트남을 작동시켰다. 1970년대 개발독재는 새로운 국내외 생황에 의해 초래된 모델의 위기에 대한 반동적 대응형태로서 나타났다. 박정희는 모든 독재자에게 나타는 고유한 권력의 영구독점과 자기축적의 논리에 빠져들었다. 1969년의 삼선개헌은 개발독재모델 변질의 전환점이 되었다.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에 걸쳐 정치적 독재와 파행적 특권경제에 대한 광범한 저항이 일어남으로써 개발실적에 의해 권위주의체제의 정당성을 돌리고자 한 박정희정권의 '조국근대화'담론은 한계에 봉착하고 더 이상 국민통합담론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대외적으로는 미국이 베트남에서 철수하면서 내놓은 '닉슨독트린'과 중미관계의 개선이 냉전반공주의를 국정이념으로 삼고 활용해온 박정희정권에게 일대 충격을 주었다. 박정희정권은 남북대화를 냉전반공체제와 정치독재 재구축의 기회로 활용하였다. 그리하여 유신개발독재에서 안보와 건설은 혼연일체로 통합되

었다.[82]

박정희시대의 한국은 극히 짧은 시간 내에 경이로운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역사상에서 전례가 없는 것일 뿐만 안라 세계 역사상에서도 보기 드문 것이다. 한국사회는 빈곤에서 벗어나 중산층을 형성하였고 민주화의 사회기반을 딱아 놓았으며 일약 신흥공업화국가가 되었다. 이런 비약은 한국사회가 지속적인 발전을 유지하는 원동력이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아래에서 출간 된 조해일의 첫 신문연재소설「겨울여자」(1975) 이를 영화로 개적됨으로써 조해일은 베스트셀러 작가로 등장하게 되었다.[83]「겨울여자」는 1975년 1월부터『중앙일보』에 연재된 소설이다. 이 작품은 이후 문학과 지성사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되는데 그 해의 베스트셀러가 된다. 조해일의 소설은 등단작부터 남성적 주인공들의 시선으로 부터 이야기를 전개했느냐 하면「겨울여자」는 남성중심 사고에 치중한 유이화라는 왜곡된 여성적 인물의 시선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진다. 작가가 갑작스럽게 기존과 다른 부류의 작품을 창작했을지라도 그의 고유한 시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법이다. 인간이나 인생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은 그가 문학 활동하는 계기였다.

발표 당시의 험악한 상황을 고려한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할 만한 것들을 이번 기회에 제거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었다. 이를테면 정치우화소설이 도리없이 염려해야 하는, 실정법의 보복을 여두에 둔 과민한 안전장치 따위다. 당시의 실정법은 얼마나 기세등등했던가.

어쨌든 70년대에나 나올 수 있었을 법한 기형적인 연애소설 (의 탈을 쓴 정치우화소설)을 오늘의 독자는 어떤 눈으로 읽어줄 것인지……[84]

위의 인용문은 1990년대 조해일이『겨울여자』를 다시 출판하는 과정에서 남긴 말이다. 소설은 표면적으로 이화와 남성들의 감정을 다룬 연애소

82) 김광희,『박정희와 개발독재』, 선인, 2008, 313면.
83) 베스트셀러라는 것은 그 자체가 교환가치로서 상업성을 가지며, 독자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수용자 중심의 관점에서 출발한다. 베스트셀러 작품은 문학성이나 대중성, 통속성을 따지기보다는 그 작품들이 당대 시대상황과 어떠한 관련 하에 만들어졌으며, 사회학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1978년에는 이미 <영자의 전성시대>로 인기를 얻은 스타 감독 김호선이 당시로선 신인이던 여배우 장미희를 기용하여 영화를 제작하였다. 최인호 원작의 <별들의 고향>이 세운 46만명이라는 기록을 뛰어넘으며 63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엄청난 흥행작이 되었다.
84) 조해일,『겨울여자』, 솔, 1992, 553면.

설의 형식을 취하나 정치우화를 통해 1970년대 부패한 정치와 불평등에 의한 부의 분배를 파생되는 폭격, 빈곤, 구속, 압력 등을 표면화함으로써 문제의식을 들어낸다.

김병익은 문화적인 차원에서 1970년대 신문연재소설이 현대의 대중문화적 속성을 예민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대중화된 도시인 도시화한 대중의 풍속 삶의 양식을 그려내고 있음을 말한바 있다. 1970년대는 창녀, 술집여사, 여자대학생, 식모 등으로 묘사된 여성인물들은 연민과 동정의 시선으로 보이거나 왜곡된 여성의 이미지가 전형적 여성 인물상이 되어 유행되었다. 그러나 「겨울여자」의 경우 창녀모티프가 등장하지 않음에도 호스티스문학[85]으로 인식되었다. 그것은 비록 창녀는 아니지만 자신의 몸을 이용한다는 점에서는 그들과 유사하다.[86]성을 도구화하는 인물들이 지향하는 세계는 일상성의 세계이다. 그리고 일상성의 세계는 곧 도시의 공간이다. 이들의 도시적 일상성에 진입하려는 의도와 그것의 좌절은 70년대적 상황의 이중적 모순을 잘 보여준다. 즉 일상의 삶에 진입하려했지만 좌절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은사회적 주변인 혹은 소외인으로서의 한계를 그리고 그들이 진입하려는 일상적 도시의 성격은 자본주의화 하는 도시의 비정상을 보여주는 것이다.[87]

당시 "'이화'가 새로운 성의 개방시대를 열었다"는 입장이 당시 대부분의 감각이었다. 이 소설을 영화화한 감독 김호선은 조해일의 원작을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이해하고 연출했다고 소회한다.

성장 과정에 있는 이화의 세계를 그리는 것인데, 이화가 처음 부딪치는 이성, 기성 윤리관 등을 통하여 육체보다 마음의 순결을 부르짖는 여대생의 엘리트. 즉 육체의 속박에서 해방, 마음의 순결을 내세우는 의미를 형상화시키는데 노력했지요.[88]

---

85) 1970년대 호스티스문학이 등장했다는것은 다시 말해 당대 사회 현실이 성적 소비를 부추기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독자들의 소비적 사랑에 대한 관심을 역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이면에 숨겨진 소외된 계층의 문제나 경제성장의 부산물인 물질지상주의의 문제를 드러내려는 의도가 있다. 호스트스 소설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것은 육체적 '쾌락'이나 관능의 감각을 거부하는 정통적인 미학적 관점 때문이다.

86) 이화는 다른 작품들의 여주인공이 '호스티스'인과 달리 주인공 이화가 중산층 목사 집안의 명문대여대생이라는 계급적 지위의 인물이다.

87) 김진기, 『문학으로 사회읽기』, 박이정, 2003, 172면

88) 고경선, 「『겨울여자』의 영화적 스토리텔링과 한계성」, 건국대학교 스토리앤이미지텔링연구소, 2013.

「겨울여자」는 제목에서 알수있 듯이 겨울과 다름없는 시대- 1970년대를 살아가던 남성들을 겨울의 여자인 이화를 통해 따뜻한 위로를 받는다 라는 뜻이다. 그 의미는 겨울을 의미하는 시대적 추위 속에서 웅크리고 있는 남성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제공하려는 이화의 성처녀적인 자기희생을 부각하였다.

「겨울여자」의 연구사에서 남성성(모성성)을 중점적으로 해석하는 연구 있었으나 대부분 표면적으로 드러난 성적 욕망을 분석하는데 그친다.[89] 조해일의 「겨울여자」가 지닌 소설적 의미를 1970년대 성적 자각을 말해주면서 동시에 작품 창작에 있어서 당대 사회상에 밀접하게 접근하고자 했다. 당대 박정희 정권과 결합해 인물과 그들의 관계망을 분석한다면 작품 분석은 서로 이질적인 요소들을 욕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욕망들을 통해서 대면시켜야 할 사회문화적이고 역사적인 현상들, 사회를 역사적으로 작동시키는 극단내지 극점들을 발견하는 것이다.

초기 단편소설에서부터 조해일은 1970년대가 떠안고 있는 정치 경제적 현실과 대중성을 독특한 담론으로 등장시킨 작가라는 평을 받고 있었듯이 장편소설을 통해서도 그는 현실의 문제를 치밀하게 탐색하고 핵심적인 문제를 담아내기 위해 장르적 개방성을 이루어냈다.

「겨울여자」의 주인공은 이화라는 여대생이다.[90] 여대생은 중산층 이상의 가정환경에서 비롯된 일정의 계급적 지표이다. 그녀는 아버지가 목사, 엄마가 가정주부인 비교적 부유한 집안의 딸로 태어나 중상층계급에 속해있다고 할 수 있다. 소설은 내용적으로 볼 때 이런 산업화 시기의 이화의

---

89) 「겨울여자」의 선행연구는 크게 여성의 성, 욕망, 연애, 죄의식, 정치성, 영화화에 대한 논의로 요약할 수 있다.
김영옥, 「70년대 근대화의 전개와 여성의 몸」, 『여성학논집』 18권,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2001.
배선애, 「1970년대 대중예술에 나타난 대중의 현실과 욕망」, 『민족문학사연구』 34호, 민조문학사학회, 2007.
곽승숙, 「1970년대 신문연재소설의 여성 인물과 '연애' 양상 연구: 『별들의 고향』, 『겨울여자』를 중심으로」, 『여성학논집』 제23집 2호, 이화여자학교 한국여성연구원, 2006.
김지혜, 「1970년대 대중소설의 죄의식 연구」, 『현대소설연구』 52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3.
고경선, 「『겨울여자』의 영화적 스토리텔링과 한계성」, 『스토리&이미지텔링』 제6집, 건국대학교 스토리앤이미지텔링연구소, 2013.

90) 소설의 이야기 전개에 있어 이화의 "여대생" 신분은 무척 중요한 전제사하이다. 여대생 이화가 남자들을 만나는 이야기이지 만일 이화가 여대생이 아니었다면 「겨울여자」는 전혀 다른 의미로 소비되었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성장소설이라고 할 수 있을 법한 이화가 성체험을 통해서 결혼이라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반대하고 사회의식에 눈을 뜨게 된다. 이화는 소설에서 자본가 아들 민요섭, 학생운동 우석기, 대학 교수 허민, 야학 운동가 김광준등 인물들과의 만남을 통해 조금씩 자각해 간다. 남자를 반복적으로 만나는 것은 외면적으로는 여성이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발견하는 점층적인 "성숙"의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다. 「겨울여자」에서 나타난 주인공들은 모두 각기 고유한 의미를 발휘함으로써 1970년대 한국 사회의 현대성을 분석적으로 부각시킨다.

이처럼 여러 인물상들이 등장하지만 인물상 대부분이 남성이며 자신만의 커다란 슬픔을 안고 있다. 또한 이화는 오직 남성들에 의해서만 묘사되고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지 않는 인물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생각에 따라 행동하고 그들의 모든 슬픔을 안아드린다. 매력적인 몸과 천사 같은 백치의 영혼을 소유하였고 남자들에게 헌신적인 사랑과 성적 쾌감을 제공하면서도 어떠한 도덕적 챔임도 요구하지 않은 성녀와 같은 이화를 상징이라고 판단한다면 기표는 곧 기의를 의미하므로 타자를 따뜻하게 포옹해 주는 그의 모습은 대중이 당위적으로 추구해야 할 대상이다.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확고한 사회에서 여성의 육체가 대상화된다는 의미는 곧 여성 자신의 교유한 육체를 공적 영역에서 타자인 여성에 의해 감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영역의 주체인 남성의 입장에서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970년대 소설의 배경이 되는 산업사회에서 여성의 육체는 자본주의 생산과 소비체계에 흡수되면서 상품의 형식을 띠게 되고,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결합되면서 남성의 시선을 생산 재생산하는 대상이 된다. 즉 육체를 통해 세계와 접촉하게 되므로 여성은 육체를 매개로 하여 타인과 세계와 관계를 맺게 된다.[91]

남녀관계가 서로 치열하게 삼각관계로 갈등을 일으키면서 생동감과 긴장감을 유지하며 서술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여인의 삶을 남성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일대기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일대기 형식은 사람의 이생을 자연적 시간순서로 서술하는 서사의 한 형식으로 그것은 기본적으로 경험적 자아가 역사적, 윤리적 충동에 따라 수행하는 삼인칭 서술이다. 이러한 서술형태는 공적인 서술자가 사람의 일생을 서술함으로써 집단적 가치를

91) 김현주, 「1970년대 대중소설의 '육체'담론」, 한국여성문학학회, 2003.

추구하는 3인칭 서술로서 집단적이고 교술적인 의미를 우월하게 지니는 서술형태이다.

소설 속에서의 주인공들은 하나같이 커다란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데 이런 삶은 결코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 힘든 삶을 살게 된 것이 아니라 산업사회의 모순과 연결되면서 지배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왜곡된 타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커다란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화는 성행위를 통해 위로를 해준다. 그러므로 소설에서 남성과의 반복적인 육체관계가 중요한 모티프로 작용하며 성 관계 자체가 핵심적인 알레고리적 의미망을 함축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각 관계의 알레고리가 해명되어야만 인물과 사건이 지닌 기호적 역할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녀관계에서 이화는 민요섭이라는 자본가의 아들과만은 성관계를 맺지 않았다. 민요섭은 이화가 소설에서 처음으로 접한 남성이다. 그는 부잣집의 아들로 아버지가 정치적인 부정으로 돈을 모았다는 사실을 알고 무척 갈등하는 인물이다. 그러나 그는 유약하여 그러한 갈등에 해소를 단지 공부를 하지 않는다던가 내지는 아버지가 사 주신 보트를 받지 않는 소극적인 행동을 통해서만 보여줄 뿐이다.

그들의 첫 만남은 민요섭의 편지로 부터 시작이 된다. 어느날 우연히 이화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일거일동을 스토킹하는 편지를 받게 되는데 그것은 무려 일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다.[92] 이런 특이한 이야기 서두는 출간 당시 독자들의 계속 더 읽어내려가고 싶은 욕망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다가 이화가 대학입시결과를 확인 하는 날에 민요섭과 첫 만남을 갖게 된다. 그리고 알게 된 민요섭이란 사람은 부유한 자본가의 아들이지만 아버지의 공정하지 못한 행동을 알고 아버지를 대항하려고 자신의 갖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타락한 삶을 보낸 인물이다. 그는 공정하지 않은 정치가인 아버지 때문에 친구들로부터 소외된다. 친구들로 따돌림을 받은 후 그는 아버지의 비리, 나아가 사회의 비리를 알게 된다. 따라서 대학도 포기하고 집에 칩거한다. 사회와의 완전한 단절을 통해 자신의 아버지와 같은 사람들이 활개치는 부조리한 세계를 거부한 것이다. 사회성을 상실 당

92) 민요섭은 부모의 과잉보호로 인하여 지나칠 정도로 자신감과 자존감이 결여되었기에 이화 앞에 떳떳하게 자신의 존재를 밝히지 못하고 끊임없이 그녀를 몰래 따라다니며 익명의 편지만을 보낼 뿐이다.

한 그에게 유일한 사회로의 통로는 이화였다. 그는 이화를 위한 헌신적인 사랑만이 아버지로 상징되는 세계에서 받은 고통을 치유할 수 있다고 믿는다. 요섭이 사회성과 맞교환으로 선택한 사랑은 당연히 배타적이고 일방적인 성격으로 귀결된다. 이런 그에게 이화는 한 줄기 희망의 존재와도 같았다. 하지만 불행스럽게도 이런 민요섭은 이화의 거절로 부터 자살을 선택하게 되었다. 자신의 희망이었다고 생각한 이화로부터의 거절 일수도 혹은 이 사회에 더는 적응 하지 못하는 무력감때문에 선택한 결과일지는 모른다.

도대체 공정하지 못한 일을 하는 아버지가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정치가 노릇을 할 수 있는 지 모르겠어요, 그런 일이 허용되는 세상 자체가 차차 싫어지기 시작하더군요.[93]

민요섭과 아버지의 관계는 다소 통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감안한다면 알레고리적으로 당시 박정희 군사 정권이라는 정치사회체제로 파악 가능하다. 유신선포가 상징적으로 일러주는 암흑과 공포의 정치는 1970년대 한국인의 삶의 기조, 의식의 방향, 정신사적 추이 등을 근본적으로 통제하고 조절하였다. 1971년 부정선거를 통해 김대중 후보를 누르고 어렵사리 쥐게 된 박정희가 그 대표라고 할 수 있다. 1971년 4월 25일 박정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거니와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에게 나를 대통령으로 한번 뽑아주십사하는 정치 연설은 오늘 이 기회가 마지막 연설이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라고 말했지만 그는 근소한 차이로 김대중 후보를 이기자 영구집권을 위해 헌법을 또다시 개정했다.

「겨울여자」를 시대적 맥락과 함께 해석할 필요는 알레고리가 근대소설로 올수록 그러 한 계몽이 절대적 진리를 전제한 방식이 아니라 현실의 허위성에 대한 비판의 방식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결국 알레고리적 미메시스를 선택하는 작가의 내면에는 시대의식으로서의 ‘거대 담론’을 세우려는 욕망과 그것의 불가능성을 예감하는 균열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러한

93) 조해일, 『겨울여자』, 문학과지성사, 1976, 55면.

균열은 예술적 파탄이 아니라 그 자체가 시대의식의 반영이다.[94]

그녀는 다른 염려는 전혀 하지 않고 있었다. 이를 테면 아무도 살지 않는 외딴 섬에 남자와 단 둘이 간다는 사실 자체부터 예상할 수 있는 위험 같은 건 그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95]

앞서 밝힌 듯이 「겨울여자」는 이화라는 여대생이 성 자각을 다룬 성장소설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학창시절의 이화는 성에 관하여 아무런 아는 게 없는 백지장와도 같은 학생이었다. 심지어 처음에는 민요섭의 스킨십에도 격렬한 반응을 보이며 거부를 하였다. 지금까지 그렇게 배우고 살아왔기때문이다. 그러다가 민요섭의 죽음으로 이화는 한동안 크게 아팠다. 이 사건은 그에게 큰 경종을 울렸다. 그러다가 대학교에서 그는 자신의 자각을 완전히 이루게 한 석기라는 남자아이를 만났다. 석기는 학생운동에 참가하며 사회 정치에 깊은 생각을 가진 인물이다. 이런 석기는 이화의 성 계몽선생님의 역할을 해주었다. 민요섭과의 만남에서는 거부를 하는 태도에서 석기와의 만남에서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취하였다. 이화는 사양하지 않았고 사양할 권리가 자신에게는 없는 듯한 태도였다. 라이히에 따르면 성의억압은 모든 문화적 형태 속에서 나타나는 특정한 부권주의적 문화라는 중심리학적인 토대를 형성시킨다. 1970년대 대중소설 역시 그 자장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여성의 육체는 남성에 의해서 관리되고 통제되는 이중의 시선에 의해 포착된다.

사람 사는 일이 온통 거창한 슬픔 꾸러미라고 할 수 있지, 사람들이 영위하는 온갖 짓거리가 말야 태어나서 자라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싸우고 종족을 번식시키기 위해서 본능이 지시하는 바에 따르고 또 그러한 모든 과정에서 생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온갖 형태가 말야, 난 이따금 데모하는 애들 속에 끼어 있을 때도 그런 느낌을 맛보곤 해. 하지만 사실은 사람 사는 일처럼 또 자랑스럽고 소중한 것도 없어, 사람들에겐 그 거창한 슬픔을 이겨내려는 의지가 있으니까 말야. 슬픔을 슬픔으로만 받아들여서 나약한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그걸 극복하고 마침내는 그것마저 포용해버리는 거창한 의지가 사람들한텐 또 있으니까 말야. 사람이란 사소한 일에 집착하기도 하고 어리석은 짓을 곧잘 저지르기도 하지만 결국 위

94) 서은주, 「개발 독재 체계의 알레고리- 1960-70년대 서정인 소설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11』. 상허학회, 2001, 231면.
95) 조해일, 『겨울여자』, 문학과지성사, 1976, 55면.

대한 동물이지. 난 아직 내가 어른이라는 느낌은 잘 들지 않지만 사람들이 그 거창한 슬픔을 극복해온 의지와 지혜에 대해선 어느 정도 노숙한 이해를 갖고 있는 편이지. 말하자면 그 점에 있어선 난 애늙은이라고 할 수 있어. 이건 자랑이야[96]

석기와의 관계는 그에게 행복을 주지 못했다. 오히려 온통 슬픔으로 감싸안았다. 이런 거창한 슬픔을 끌어안으면서 성으로 상대방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는 데는 그 나름의 정치적 의도를 갖는다. 이화의 성적 대상은 현실적 억압, 그로 인한 슬픔을 느끼는 인물이다. 그들의 슬픔을 분담하고자 하는 이화의 행위는 무한한 포용력, 박애의 성격을 띤다. 그러나 성적 사랑의 교환이 어느 한쪽만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다. 성적 대상이 성적 욕구를 해소한다고 해서 그가 받고 있는 현실적 억압이 일시에 없어질 수도 없다. 이화가 보여주는 자기 성찰과 사회적 각성은 타인의 죽음이나 성해위를 통해 갑작스럽게 주어진 결과이며, 타인의 욕망에 자신의 욕망을 종속시킨 결과이다. 따라서 성적 관습의 허구성을 알게 되면서, 그것에 집착하고 몰입하게 된다.

“우리나라가 불쌍해. 우리나라 사람들도 불쌍하고, 이화는 되도록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사랑해줘. 그 사람들의 연인이 돼줘.”[97]

석기는 이화에게 한국 사람들은 “불쌍”하니 가능한 많은 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연인”이 되어달라고 당부한다. 그 이후로부터 이화는 석기의 당부대로 모든 한국 남성을 “사랑”으로 품는다. 이에 따르면 이화가 모두를 “사랑”하기 위해 결혼을 거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지점에서 작가는 이화를 통해 “사랑”을 기반으로 한 대안 사회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때 “사랑”은 뤼스 이리가레가 말한 사랑과 같은 맥락에 놓인다. 이리가레는 사랑이야말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진정한 사랑의 길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타자와 공존하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타자와 공존해야 함을 잊지 않는 것인데 이를 위해 때로 담론

96) 조해일, 『겨울여자』,문학과지성사, 1976, 165면.
97) 조해일, 『겨울여자』,문학과지성사, 1976, 180면.

의 변환이 요구되기도 한다고 논의한바 있다.[98]

알레고리의 독법에 비추어 보면 주체적인 문제는 애정관계가 아니라 이야기가 펼쳐져 나가는 사이에 등장하는 인물, 물상들이 어떤 기호적 의미를 갖느냐 하는 것과 결부되어 있다.[99]성적 쾌락은 남성의 전유물이며 여성의 성적 자유란 남성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한 것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푸코는 역사적으로 오늘날 성이란 지식의 의지는 우리의 몸과 마음의 미세한 부분까지 지식이라는 감시의 그물망으로 남김없이 포착하여 사회 통제에 기여하는 이른바 생체적 권력이 된다고 한다. 여기서 푸코는 남녀의 정체성이 성담론을 통한 사회화 과정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주체성 또한 성 담론으로 구성된다고 서술한다. 1970년대 박정희의 유신체제의 중요한 내요중 하나가 '반공'이었다.

벌벌 떨면서 선생이 때리기 위해서 나한테로 달려오거나 선생 앞으로 나오라고 명령하기만 고개 숙인 채 기다리고 있는 내 박박 깎은 머리통 위에 선생의 침방울과 함께 튀어와 떨어진 말은 빨갱이 새끼라는 한 마디였어. 난 대번에 그것이 그냥 하는 욕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 감옥에 가 있던 아버지를 빗대어 놓고 하는 욕이라는 걸 알수 있었지. 난 순간 얼핏 고개를 쳐들어 선을 쳐다보려고 했지만 선생의 커다란 입밖에는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어. 선생은 재차 빨갱이[100] 새끼라는 소리를 또 했어. 그 엄청나게 커다래 보이는 입으로 말야. 애들이 모두 날 무슨 더러운 물건이라도 쳐다보듯 일제히 바라보고 있다는 걸 바라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 나하고 같이 장난치다 들킨 내 옆의 애까지 말야. 난 그만 아무런 항의도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 어떤 경우에도 우는 것처럼 바보 같은 짓은 없다고 평소엔 생각하던 제법 영악스럽고 똑똑하던 꼬마였는데 말야. 그 길로 난 울면서 집으로 와버렸지. 선생은 말리지도 않았어. 지금 생각해보면 자질이 형편없던 선생이었던 것 같아. 괜찮은 선생이었더라면 설사 내가 정말 빨갱이의 아들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다루진 않았을 거야. 더구나 아버진 정말 빨갱이도 아니었어. 나중에 커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아버진 공무원이었는데 당시의 자유당 정권이 꾸민 부정 선거에 협조하지 않았다가 누군가의 모함으로 억울한 혐의를 입었던 거야.[101]

---

98) 뤼스 이리가레, 정소영 옮김, 『사랑의 길』, 동문선, 2009, 76면.
99) 방민호, 「동해의 알레고리적 독해와 그 의미」, 현대소설학회, 2011, 549-587면.
100) 박정희는 온 나라를 병영으로 만들고, 모든 사람들을 반공투사로 만들고 싶어했다. 어린이들은 교육을 통해, 어른들은 폭력을 통해 길들여졌다. 빨갱이란 단어는 1960년대는 그렇게 부정적인 단어가 아니었다.
101) 조해일, 『겨울여자』, 문학과지성사, 1976, 180면.

큰 충격이었다. 빨갱이는 지금까지도 예민한 단어이다. 더구나 박정희 통치의 핵심 기제는 반공이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반공은 국가 존립의 절대 이유이자 정체성을 담당했다. 한국전쟁 이후 이승만정권기에는 소위 '국민만들기(nation building)'의 잣대로서 반공[102]이 필수적인 기제로 자리잡았고 이승만이 만든 국가보안법에 덧붙여 박정희는 반공법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이런 법을 사용해서 정치적 반대자들을 흔히 공산주의자로 몰았다. 시도 때도 없이 간첩사건이 일어나긴 했다. 이런 일들은 반공주의를 빙자해서 정권을 유지하려는 정치적 술책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었다. 공산저의나 간첩이라는 말만으로도 사람들의 간담은 서늘해지곤 했다. 그말은 곧 적을 뜻했고, 적은 법에 의하지 않고 '학살'해도 좋은 대상이었다. 적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리고 누군가를 적으로 규정할 권리는 바로 박정희가 독점하고 있었다. 그에게 반대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것이었다.

이화는 "정치적인 무식"이 상당한 인물이다. 그는 정치 부조리를 스스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남성 인물들의 발화 아래에서만 가까스로 정치적 상황들을 전달받는다. 이는 지배 질서에 대항하는 주체는 남성이며 정치적 행위에 따라 수반되는 고민과 고통 또한 모두 남성의 몫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런데 말야,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인간 또는 그 인간의 힘을 조직화한 집단의 도덕적 정당성 여부가 판기름 나는 것이란 생각이 들어, 아무리 강한 힘이라도 그것이 잘못 쓰여지면, 즉 올바른 목적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면 그것을 우리는 폭력이라고 부르지..... 세상에는 가끔 군대 자체가 부도덕한 힘으로 화하는 경우가 있어. 다시 말해서 지키기 위한 힘으로서의 군대가 아니라 빼앗기 위한 힘으로서의 군대로 화하는 경우지.[103]

그래서 이 작품에 등장하는 남성 인물들은 당대 정권의 폭력성을 직접

102) 박정희일당을 출발부터 괴롭힌 문제가 박정희 등 군사반란 핵심인물들의 좌익경력이었다. 남로당 군사부가 군에서 포섭한 고급 프락치였던 박정희는 여순사건 이후 신분이 노출되자 숙군과정에 적극 협력하여 살아남았다. 그러나 그른 자신의 좌익경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군사반란을 주도한 세력들이 반공을 국시로 한다는 것을 혁명공약의 첫머리에 내세운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았다.
103) 조해일, 『겨울여자』,문학과지성사, 1976, 182면.

목도하고 맞서 행동하는 정치적 주체로 등장한다. 반면 여성 인물인 이화는 남성 인물과 달리 정치적 주체가 되지 못하는 단절과 소외 속에서 철저히 타자로 자리매김한다.

알다 싶이 1970년대는 '긴급조치'와 '유신체제'로 대표되는 정치적 권위주의가 극심했던 때였다.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 군사정권은 체제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대규모경제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으로, 이전보다 강도 높은 지배와 검열 체계를 가동시킨다. 우석기가 이화에게 자유당 정권시대를 "조금만 비위에 거슬려도 빨ㄹ갱이라는 혐의를 뒤집어씌워서 잡아 가두곤 했던"때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1970년대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우석기는 학생운동에 앞장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던 중 강제 입대되고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한다. 이화가 우석기의 죽으믕 ㄹ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극복의지를 보이는 것은 이미 우석기를 통해 의식적으로 성숙의 단계에 들어섰기에 가능한 것이다.

또한 푸코에 따르면 인간사회를 지탱하는 교육, 의료, 행정, 법률 기관들은 모두 앎의 의지가 포출 된 지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에 따르면 이들 기관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특정계급이 집권하기 위한 도구로 기능한다. 문장속의 석기의 선생님이 바로 정치적 폭력에 머리를 수그린자이다.[104]

반공이념과 고도의 경제 성장이라는 물리적 수치에 대한 기대감은 1970년대 한국 자본주의를 급속도로 성장하게 한 원동력이 된다. 반면에 자유, 평등, 사랑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은 한국 자본주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인식된다. 휴전 상태인 남북 대치 상황은 전쟁에 대한 불안감을, 절대적 빈곤 상태는 물질적 만족감에 대한 강렬한 욕구를 생성한다. 이러한 불안감과 욕구는 성장과 반공으로 집단의식을 강화시키는 한편 개인의 권리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억제해야 할 것으로 간주하게 한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는 방종으로, 평등에 대한 주장은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는 것으로, 성적 사랑은 성적 일탈로 오인된다. 이렇듯 70년대 한국 자본주의 사회는 서구 자본주의 사회와 달리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대치되는 모순된 양상이 전개된다.[105]

---

104) 허빛,「손창섭 1960년대 장편소설에 나타난 젠더 정치성」,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105) 김현주,「조해일의『겨울여자』론」, 국학자료원, 2002.

유신시대 학교도 지배체제 재생산의 수단으로 전락했다. 유신선포 직후 박정희 정권은 유신과 남북 대화에 대한 정부시책을 학교 교육에 반영하기 위해 사회, 국사, 반공 교과서를 대대적으로 손질했다. 중등과정의 경우 한 권에 불과했던 반공교과서가 각 학년별로 구분되어 세 권으로 바뀌었다. 1968년1.21사태 이후부터 강조된 반공교육이 단지 양적인 확대가 아닌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정리된 것이다.

반공교육의 체계화는 반공정신의 '생활화'를 주요한 목표로 삼았다 이러한 반공교육 방침의 변화 기조는 유신체제 수립 전부터 드러나 있었다. 1970년에 이미 교육현장에서는 반공교육이 공산당은 부조건 나쁘다는 인식을 불어넣는 데 그쳐 반공의 중요성을 절박하게 인식하도록 만들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또한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 반공교욱은 '통일대업'에 참여하는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도 불어넣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러한 기존 반공교육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강조된 것이 반공정신의 생활화였다. 반공정신의 생활화나 올바른 국민 정체성이 강조된 배경에는 남북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한국사회에서 평화통일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상황을 우려스럽게 보는 박정희 정권의 인식이 깔려 있었다.[106)]

벌써 알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에게 직접 알려드려야 할 일이 생겨서 여러분을 모이시라고 했읍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제 날짜로 우리 학보사 박양희 편집장을 비롯한 학생 기자 전원이 학교 당국으로부터 부당한 해임 조치를 당하였읍니다. 해임 이유는 직무에 충실치 못했다는 것인데 즉 해임된 기자들이 정당한 이유없이 학보 제작을 거부해왔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학보사 기자들은 너무나 정당하고 다연한 이유때문에 즉 사실을 사실대로 볼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올바른 학보를 제작할 수 없다는 이유때문에 학보 제작을 거부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건 학교당국의 부당한 간섭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읍니다. 아는 분이 계실는지 모르지만 입학기에 있었던 학교 재단의 부정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하려고 하자 학교 당국이 지도교수를 통해서 압력을 넣어왔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학보사 기자들은 보다 정당한 학보를 제작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학고 당국에 요구하기 위해서 학보 제작을 거부했던 것뿐입니다. 따라서 학보가 나오지 못하게 된 책임은 어디까지나 학교당국에 있는 것이지 학보

106) 김학재, 『한국현대 생활문화사』, 창비, 2016, 38면.

사 기자들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당국은 마치 학보가 못 나오게 된 책임이 학보사 기자들에게 있다는 듯이 편집장을 비롯한 기자 전원을 해임하는 온당치 못한 처사를 감히 저지르고 있읍니다. 이러한 사태를 보고 도저히 그냥 묵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회에서는 다음 세가지 결의 사항을 학교 당국에 알리려고 합니다.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면 박수로 찬성의 뜻을 표시해주세요. 첫째, 부당하게 해임된 학보사 기자 전원을 복직시킬 것, 둘째 학교당국은 학생언론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즉각 중지하고 학교 재단의 부정을 공개, 그 책임자를 엄중 문책할 것, 세째, 위의 요구사항이 무시될 경우 우리는 이를 관철하기 위한 여하한 행동도 불사한다.[107]

1971년 대학생들의 반대시위가 대대적으로 터져나왔다. 특히 대학4년동안 총 수업시간의 20퍼센프에 해당하는 시간을 교련에 할애하고 현역장교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정권의 과도한 방침은 대학생들의 반발을 사기에 충분했다.[108] 1970년대 반정부운동의 주요세력은 청년학생들이었다. 유신독재 기간에 정부와 사회의 충돌은 주로 유신헌법을 둘러싸고 진행되었다. 민주화세력은 헌법을 개정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을 요구했으나 박정희정권은 한 치도 양보하지 않고 강제적인 수단으로 민주화요구를 탄압하면서 유신헌법을 수효허려 하였다. 1973년 10월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유신체제에 반대하기 위하여 시위를 진행했다. 이것을 기점으로 12월 초에 이르러 시위행진은 서울과 지방으로 확산되었다. 대학에서 시작된 반정부, 반독재 활동은 급속히 사회각계로 확산되었다. 12월 말에 장준하. 백기완 등 가계의 재야인사들이 100만인 서명운동을 발기하여 '유신헌법'을 철폐하고 민주주의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자유시장, 정치자금의 비용을 극소화하고, 그 대신 권력집중, 행정국가,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법율적 장치의 제약 또는 제거, 대통령 긴급조치권 발동, 군사재판, 견제 받지 않는 정책 집행, '중단 없는 전지(중화학 공업 등 경제발전 계획의 계속 추진)' '자국국방(군수산업)' 추진을 극대화하였다.

이에 대해 지식인, 언론, 야당, 학생운동은 1여년의 침묵의 기간을 거친 끝에 1973년 10월 2일 서울대 문리대 학내 시위를 계기로 다시 활기를

107) 조해일, 『겨울여자』, 문학과지성사, 1976, 197면.
108) 김학재, 『한국현대 생활문화사』, 창비, 2016, 159면.

띠기 작했다. 학생들은 그해 겨울방학 동안 새 학기 초에 대대 적인 전국적 시위를 계획했다. 학생들은 그들의 선언문 끝에 '전국민주 청년학생 총연맹'이라는 명칭을 기재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느슨한 notworking은 있었지만 일정한 정관을 갖춘 조직이나 단체는 없었다. 이해 대해 유신정권은 긴급조치 1~4호를 발동해 이른바 '민청학련'과 '인혁당'이 연계된 '반국가 단체 사건'을 발표하게 되었다. 이러한 당국의 대처방식은 결과적으로 국내외 여론의 의혹과 비판을 유발함으로써 이 사건은 이듬해 2월 15일 구속자 대거 석방이라는 일대 역전극으로 귀결되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유신정권은 막대한 정치적-도덕적-국제적 손해를 입었다. 민청학련 사건으로 학생운동이 봉쇄되긴 했으나, 유신정권하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내외의 비판은 더욱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1975년 5월 유신정권은 베트남 패망을 계기로 긴급조치 9호를 선포했다. 긴급조치 9호는 긴급조치 4호의 '실수'를 참조해서 학생들의 반유신 활동을 대규모 '반국가단체'의 조직적인 '내란행위'로 수사하지 않고, 단지 짧은 형기를 적용할 수 있는 개별적 위법행위로서 처벌하는 방식으로 임했다. 이는 학생운동을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침체시키는 '성과'를 이룩했으며, 이로부터 부마사태에 이르는 약 4년간 학생운동은 거의 지하로 잠복할 수밖에 없었다.[109]

유신체제는 한국경제정책과 경제근대화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도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첫째, 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박정희정권은 경제건설을 주요수단으로 삼고 나아가서는 통치이념으로 삼아 정부를 압박하여 강력하게 밀고 나갔다. 둘째, 독재체제는 박정희에게 경제건설을 저애할 가능성이 있는 정치, 사회요소를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두 요소가 상호 결합되어 어느 하나라도 없이는 작용을 발휘하지 못하는바 권위주의 독재체제의 유지는 경제의 고속성장을 필요로 하였고 경제의 고속성장은 권위주의체제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정리하면 유신독재는 정치상에서 1970년대의 중화학공업정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한 기반을 제공했다.[110]

70년대 반공이념이 낳은 희생양인 석기는 이화를 가족주의의 안전한

109) 이지수, 『박정희 시대를 회고한다』, 선인, 2010, 19-20면.
110) 김광희, 『박정희와 개발독재』, 선인, 2008, 192면.

틀 한에서 벗어나 현실의 문제를 자기 문제로 인식하는 주체적 인간으로 각성시키려 한다. 그는 이화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불쌍한 사람들의 연인이 돼' 달라고 부탁한다. 이것은 '불쌍한 사람', 즉 소외된 사람과의 인간적 연대감을 가지라는 의미이다. 요섭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이 내면화되어 있는 이화에게 석기의 부탁은 불쌍한 사람의 '연인'이 되라는 의미로 축소 해석된다. 따라서 이화의 사회적 실천은 가족이기주의를 정면으로 비판, 부정하는 성적 관용의 형태로 실현된다. 성적관용은 가족 이기주의나 언어적 관습, 기존 도적적 가치를 전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설은 정치적 담론의 성격을 띤다. 이화의 육체가 '아무에게도 속해 있지 않으면서 또 누구에게나 속해 있는' 대지로 표현되면서, 그것을 파괴하고자 하는 사람까지도 무한히 포용하는 데에 두려움의 대상인 것이다.

그 전부터 학생운동에 연루되어 당국의 주요 수사 대상이었던 대학 신문사 기자 석기가 강제 징집당하여 군에서 권력에 의해 의문사를 당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도 다시 묻지 않는다. 소설 속 누구도 우석기의 의문스러운 죽음에 대해 알아보려 하지 않고 그 죽음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은 채 침묵한다. 물론 이러한 침묵은 정치적 문제를 노골적으로 언급할 수 없었던 시대적 상황에서 기인한 것이기는 하다.

이화의 히스테리적 특성이 더욱 명확해지는 부분은 바로 세 번째 남자인 허민과의 만남이다. 허민은 이화의 고등학교 은사로 현재 대학에 출강하는 이혼남이다. 석기의 죽음 이후 괴로워하던 이화 앞에 허민은 점프컷으로 갑작스레 등장한다. 허민과 만난 이화는 두 명의 애인이 죽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쾌활하다. 이화는 도덕성으로 인해 자신을 외면하는 허민 앞에 나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가지라고 말한다.

제가 학생이란 점이 그렇게도 중요하게 생각되세요? 인간의 거짓 없고 순수한 욕구를 그 때문에 억눌러야 할 만큼요? 그게 그렇게도 큰 장애로 보이세요?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또는 직업에 따라서 인간의 보편적인 욕구가 따로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111]

111) 조해일, 『겨울여자』,문학과지성사, 1976, 406면.

석기와의 관계가 아무런 대화 없이 이루어진데 비해, 허민에게는 주동적이다. 이화에게 중요한 것은 허민의 욕망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녀는 허민으로부터 욕망을 끌어냄으로써 우선 그를 존재하게 만든다. 이화에게 있어 남자-타자는 결여되었을 때 비로소 존재하기 때문이다. 상대가 그녀를 욕망하지 않는다면 그녀가 상대의 욕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결여를 확인시킴과 동시에 이화는 그 욕망의 자리를 차지한다. 이화에게는 자신의 욕망을 발견하고 실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의 욕망의 대상이 되는 게 중요하다.

주목해야 할 것은 욕망의 대상이 되고 난 이후 이화의 선택이다. 허민은 이화의 부모님을 만나 뵙고 조심스럽게 결혼을 청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묻지만 오히려 이화는 결혼의 불필요성을 역설한다. 뿐만 아니라 허민의 전처와 허민의 만남을 주선하고는 홀연히 허민 곁을 떠난다. 이화에게 성적 충동은 있지만 성적 욕망은 없다. 따라서 그녀에게 성관계는 없다. 이화의 욕망은 자신에게 기인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대상되기로 전도되어 있다. 이화의 욕망은 말하자면 완전한 만족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 불가능성 속에서 이화는 향유를 맛본다. 이화는 끊임없이 남성의 대상이 됨으로써 스스로의 존재 의미를 찾는 여성이다. 타자의, 욕망의 대상이 됨으로써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화에게 있어 허민과 성교를 나누지만 그의 여자로 남아 있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화가 허민의 욕망의 대상으로 남는 유일한 길이다. 이화가 허민곁을 떠남으로써 그에게 이화는 영원히 결여된 무엇, 욕망의 대상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요섭과 우석기의 죽음을 경험한 이화는 성과 육체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고 여러 남성들과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갖는데 앞서 말한 듯이 성행위를 통해 이화가 느끼는 것은 자유, 쾌락이 아닌 슬픔이다. 이화는 자신과 성관계를 갖는 남성들이 하나같이 무언가에 목말라하는 것처럼 느끼고 자신이 그것을 채워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화의 육체는 철저하게 상대방을 위해 열려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성행위 시 이화의 모습 또한 자기희생적 태도로 묘사된다. 자신의 욕망을 배제한 채, 타자본위의 무한한 사랑을 베푸는 것은 이화의 행위가 모성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화가 모성을 지닌 신격적 존재로 그려지는 것은 근대화로부터 소외된 남성성과 관련이 있다.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이 추

진했던 근대화는 서구 제국주의에 군사주의가 혼합되어 전보다 더욱 강력한 남성상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남성들은 강압적인 지배 권력 앞에 점차 소외되고 무기력해졌다 근대성의 소외와 남성성의 동일시는 여성적인 것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데, 이때 여성은 훼손되지 않은 자연적인 것으로 인식된다.[112)]

이화가 마지막으로 만나게 되는 남성 인물 김광준과의 일화를 들 수 있다. 김광준은 도토리 이발소를 꾸려 그곳에서 빈곤층 아이들에게 무료로 이발과 교육을 제공한다. 이화는 그의 뜻을 높이 삼아 이발소를 함께 지킨다. 그러나 정부 정책에 따라 이발소일대의 집들이 모두 철거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네는 잿더미가 된다. 그 과정에서 도토리 이발소는 철거되고 김광준과 인연을 맺었던 아이중 하나는 큰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지만 끝내 사망한다.

이 일화는 박정희 정권이 국가 개발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진해했던 도시 기본 계획(1972-82)을 연상 시킨다. 당대 정권은 “서울의 인구, 교통, 주택, 공해 등 각종 난제들을 해결”하겠다는 명분 아래에서 도시 기본 계획을 실시한다. 이 계획은 “강북의 성장을 억제”하고 강남을 위시한 “미개발 공간”을 개발 및 활용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 것이었다.[113)]

당대 정권은 이를 위해 도시 곳곳의 무허가 건물을 철저하게 단속한다. 이 과정에서 무허가 건물에 사는 주민들과 정부는 충돌한다. 당시 신문기사를 찾아보면 철거하려는 경찰과 막으려는 주민이 충돌하여 심한 부상을 입었다는 기사, 혹은 주민들이 연행되었다는 기사 등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다.[114)]

이와 같이 「겨울여자」에서 보여준 이발소의 철거 장면과 그 과정에서 아이가 사망하는 사건으로 당시 지배 권력이 자행했던 폭력의 한 단면을 재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작가는 당대 정권이 개발이라는 명분만을 내세우기 급급하여 정작 가장 빈곤한 이들의 생존권은 아무렇지 않게 짓밟는

112) 이수현, 「<겨울여자>에 나타난 저항과 순응의 이중성」, 한국문학연구학회, 2007.
113) 발레리 줄레조, 김혜연 옮김, 『아파트 공화국 : 프랑스 지리학자가 본 한국의 아파트』, 후마니타스, 2007, 35면.
114) 권현정, 「1970년대 대중소설에 드러난 정치성과 대안 사회의 (불)가능성- 조해일의 『겨울여자』를 중심으로」, 한국문학회, 2017.

폭력적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무어든 할 수 있을 거요. 찾아봅시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생각해봅시다.”

“ 전, 광준형만 따르겠어요.”

그러자 그는 그녀의 두 눈을 힘 있게 마주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갑자기 쉰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주겠소?”

“네, 광준형만 따르겠어요.”

그녀도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소. 그럼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그러며 그는 무언가를 감추기 위함인 듯 얼른 시선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았다. 그녀도 눈물이 가득 고인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았다. 풍성한 눈이, 온 누리를 온통 뒤덮기라도 할 듯 풍성한 눈이 회색의 하늘로부터 끊임없이 날려 내리고 있었다. 마치 그 참변의 현장을 감싸주기라도 하려는 듯……[115]

이것은 마을이 철거를 당하고 이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작품의 결말부분이다. 여기서 이화와 김광준의 위치를 간명하게 보여준다. 이화는 김광준의 의지에 이끌려가도록 놔둠으로써 이전까지 이화가 보여주었던 저항적인 태도와 정신적인 성숙과정을 일시에 무력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화의 모순된 행동에서는 기존 인습에 순응하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주어진 가치 체계에 순응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미래를 긍정적으로 대처해나갈 수 있는 의지를 좌절시키는 대중문학의 부정적 측면이 드러난다. 즉 세상의 모든 통념과 사회적 제도로부터 자유롭던 이화가 갑자기 결말에 야학 교사 김광준의 뜻에 따르겠다며 전통적인 성역할로 회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결말 역시 다소 허무하고 갑작스럽다. 그것은 작품이 지니고 있는 내적 논리가 논리적으로 모순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116]

---

115) 조해일, 『겨울여자』,문학과지성사, 1976, 700면.
116) 이수현, 「<겨울여자>에 나타난 저항과 순응의 이중성」, 한국문학연구학회, 2007.

여성의 육체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권력의 현실적인 작용점으로서의 육체와 저항의 시발점으로서의 육체이다. 여성의 육체는 억압받는 현실의 가시적인 형태일 수 있다. 기존의 상상력에서 여성의 육체는 풍요로움의 상징일 수 있었다. 그런데 그러한 여성의 육체가 어떻게 부정적으로 변화되었는지를 통해 당시의 빈곤했던 상황을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성의 육체는 권력의 지배에 저항하면서 현실을 비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런 의미에서 여성의 육체는 생물학적 차원을 떠나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구성물이다.

「겨울여자」의 인물들이 소시민적 삶을 주저 없이 내팽개친 것은 지배권력의 허위성 때문이다. 그들이 내팽개친 삶은 그들 개인의 이상이 아니라, 아버지의 법이 지배하는 사회적 기반이며 기득권이다.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의 인물들은 내면적 갈등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것이다. 요섭의 아버지처럼 아들의 죽음에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비인간적인 존재, 광준의 아버지처럼 폭력배를 동원하는 파렴치하고 비도덕적인 존재로 형상화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안이하게 해결된다. 안이한 해결로 인해 이 소설은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해 저항하는 힘 못지않게 그것을 지탱하는 힘에 대한 긴장감을 핍진하게 형상화하는데 실패한다. 따라서 지배권력에 전면적으로 저항하는 인물이나 오수환이나, 학보 기자 박양희와 같이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인물은 치밀하게 형상화는 반면에 그 반대편에 위치한 인물은 평면적으로 그려낸다. 또한 기득권을 누리면서 지배권력에 자연스럽게 편입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안세혁이나 이화의 가족들은 이화의 어설픈 논리에 쉽게 자신들의 논리를 허위라고 인정하고 그 논리를 철회해버리고 마는 데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3.2 남성중심적인 사회와 이화의 저항

가족은 모든 개인이 최초로 부딪치는 운명이다. 특별하고도 절대적인 인연인 가족이라는 이름은 우리들 개개인의 심리적, 사회적 기반을 이룰 정도로 심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117] 일반적으로 가족은 무엇보다 친밀함과

애정적 보살핌으로 이루어진 공간으로 다가온다. 가족이 가져다주는 안정감 즉 서로에 대한 익숙함, 포용성, 인정, 결속력은 친밀한 관계를 갈망하는 개인의 내적 기대를 반영한다. 그러나 사회가 불안정할 때 가족은 상처와 고통의 다른 이름이 되곤 한다.

또한 '가정', '집'은 일상의 장소로서 인간의 정신적 세계가 드러나는 일종의 무대라고 볼 수 있다. 도시의 일상에서 나타나는 사회 문제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가정을 토대로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사랑과 결혼을 철저히 분리하고 섹스파트너를 한 사람에게 제한하지 않으며, 자유연애에 몰입하고 있는 주인공들의 여성편력뿐만 아니라, 프로이트가 말하는 '도착적 증세'들이 적나라하게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집은 세계 속의 둥지라고 요약할 수 있다. 집이 있음으로 해서 개인은 존재의 안정감을 느끼며 이를 기반으로 자유롭게 비상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에게 집은 구속과 억압, 단절과 고립의 다른 이름인 경우가 많다. 여성은 결코 집의 주인이 아니라 집을 지키고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충직한 타자일 뿐이기 때문이다.

성에 대한 태도는 명백히 비도덕적으로 보이지만, 어떤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는 것 같다. 모든 인습이나 물질주의적인 계산을 초월한다는 면에서 혁신적이며 공도의 결하이라는 측면에서는 틀림없이 평등주의적이다. 적어도 이전의 이데올로기와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겨울여자」는 남성편력을 체험하는 여자 주인공들의 '비정상적인 성행위'가 반복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유연애를 매우 훌륭한 '경제적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유교적 윤리가 지배적인 한국사회에서는 자유연애가 서구에서처럼 자유로울 수가 없었고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성에 대한 태도를 여전히 전통적인 틀의 범위 안에 묶어 놓았다. 혼전성교를 비록 그 상대와 결혼을 하더라도 부끄러운 짓이었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에게 귀속되는 심리적 우월성은 논리적 우월성의 표현으로 해석되고, 그와 함께 남성적 가치는 초개인적 타당성을 획득

117) 문학과사회연구회 엮음, 『문학과 현실의 삶』, 국학자료원, 1999, 139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짐멜은 여성적인 것은 항상 우선적인 남성적 원칙과의 관계 속에서만 규정되기 때문에 그것의 자율성은 표현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러므로 "여성에 관한 모든 논의는 여성이 남성과의 실제적, 이상적 관계 속에서 혹은 가치관계 속에서만 어떠한 존재인가를 제시한다. 아무도 여성이 독자적으로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는다..... 결론은 여성이 독자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이다."[118] 앞에서 말하다 싶이 「겨울여자」는 이화와 여러 남성주인공들 사이의 애정관계를 모티프로 설정하고 쓴 소설이다. 소설속의 이화는 오직 남성들에 의해서만 묘사되고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지 않는다. 남성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양하지 않았고 사양할 권리가 자신에게는 없는 듯한 태도였다.

폭력이 있는 곳에는 반항이 따르기 마련이다. 이화는 무조건 타인의 요구에 응하는 인물이 아니다. 이것은 이화가 점차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결혼에 때론 가족이데올로기를 부정하는데서 나타난다. 보시다 싶이 이화는 가정이라는 집단이 가부장제 사회에서 형성된 이기주의의 산물임을 인식하고 결혼을 거부하고 성 해방하는 것으로 전통적 가치관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인물이다.[119]

근대초기 근대성의 가장 대중적이고 논쟁적인 관점은 결혼과 연애에 관한 관심이었고, 특히 반봉건의 기치로서 제기되었던 관점이 전통적인 결혼의 관습을 벗어나는 것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120] 두 남녀의 관계에 집중한다면 결혼의 문제는 사회제도적인 차원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두 남녀의 연애가 성취되어 결혼이란 제도에 편입될 때 여기에는 사회 경제 무화적인 맥락이 작동하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결혼을 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하나의 가족을 형성하여 사회의 구성단위로 존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1970년대의 압축적 근대화는 가족을 근대화의 해결사로서의 노릇을 할 수 있는 배경을 제공하거나 강요했다.

---

118) 김영찬, 『근대성과 페미니즘 : 페미니즘으로 다시 읽는 근대』, 거름, 1998, 132면.

119) 이수현은 「겨울여자」가 당대 지배 권력의 부조리를 고발하고 전통 가치에 대항하여 성적 해방을 보연주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화라는 여성 인물이 남성 지배 체계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고 논의하였다. 이수현, 「<겨울여자>에 나타난 저항과 순응의 이중성」, 『현대문학의 연구』 33권, 한국문학연구학회, 2007.

120) 이태숙, 「문화와 섹슈얼리티」, 예림기획, 2004, 132면.

“전 시집 안갈거예요”

“아니 그건 또 왜요?”

“꼭 무슨 확실한 이유가 있어서는 아녜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면 왠지 사람이 이기주의자가 될 것 같아요”

“그건 또 어째서지?”

“잘은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느낌이 들어요. 최소한 남의 가족보다는 자기 가족을 더 사랑하게 될 거라는”

“그야 당연한 일 아니겠어”

“네 당연하긴 하지만 어쩐지 그렇게 되는 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당연하지만 좋은 것 같진 않다. 잘 모르겠는데?”

“저도 잘 몰라요. 어쩐지 그런 막연한 느낌이 들뿐예요. 어쨌든 모든 걸 가족 위주로만 생각하게 되는 건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결혼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또 그렇게 되고 말 것 같고요”

“이를테면 가족 이기주의가 싫다. 이건가?”

“아이.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아뭏든 전 결혼은 안 할 거예요.”

“가만. 그 얘기 좀 더해보자고. 아주 중요한 얘긴 것 같은데. 이화는 그럼 남의 가족보다 자기 가족을 더 사랑하는 게 옳지 않다고 본단 말이지?”

“사람들이 그러는 걸 옳지 않다곤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전 왠지 그러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럴까?”

“그럴 권리가 있다고 해서 누구나 다 그래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 만일에 남들이 고통을 당하거나 불행에 빠져있는 걸 알면서도 자기 가족만 안락하고 행복하다고 해서 그걸 모른채 하거나 일시적인 동정만 보내고 말게 된다면 그 이상 황폐해지는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자기나 자기 가족의 현실적 이익을 위한 권리라고 하더라도 전 그런 권리 갖고 싶지 않고요.”

“역시 가족 이기주의에 대한 저항감인 것 같군, 하지만 자기 가족을 남의 가족보다 더 사랑한다고 해서 반드시 ㄴ자기 가족만의 이익을 위하게 된다고는 할 수 없지 않을까? 더구나 이화처럼 그런 자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말이야. 그리고 개인의 경우나 마찬가지로 말야.”

“개인하고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자기 남편, 자기 자식을 남의 남편, 남의 자식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또 그럴 수밖엔 없겠지만요. 궁극적으로는 결국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가족이기주의가 도리 수밖에 없을 것 같아."[121]

이화 역시 전통적인 가족주의와 기존의 윤리관을 거부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가정이라는 집단이 남성지배사회의 이기적인 소산임을 의식하고 혼인이라는 것 합법적으로 성을 소유하게 보장해 주는 제도임을 깨닫는다.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성 해방이 필요하다고 인식한다. 끊임없는 희생과 너그러움으로 자신을 원하는 남성들에게 스스로 주는 여인이 된 이화는 결혼 대신 소외된 남자들을 끌어안으며 치유해주는 과정에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숙해가며 실천적 사랑의 소중한 의미도 깨닫게 된다. 자신의 의지로 결혼으로 보장되는 가정과 육체적 순결을 거부하는 이화는 당시로서는 진보적인 새로운 여인상으로 보여진다. 이화는 가정과 결혼이 가부장제 사회가 낳은 이기주의의 소산임을 인식하고 소유개념의 제도를 부정하기 위해 결혼을 거부한다. 이러한 이화의 전위적 행동이 전통적 가치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근대성이 개체성을 기반으로 전근대성과 변별되는 특징을 가진다면, 자유연애는 사랑과 결혼을 공동체적 삶에서 개체적 삶으로 끌어내어주는 가장 의미있는 행위이다. 여기서의 연애의 현상은 육체적 측면이 배제된 연애이다. 육체적 측면은 성- 정조를 뜻한다. 정조는 부덕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 주장될 정도로 전통적 여성성 가운데 최고의 가치를 부여받고 있었다. 정조의 문제는 단순한 덕목의 차원을 넘어서는 여서억압의 상징이기도 했는데 전국 방방곡곡에 세워져있는 열녀문들이 숱한 여성들의 피와 눈물의 상지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이기도 하였다.

정조의 문제는 가부장제하에서 여성의 육체를 생식의 도구로서 간주하는 봉건유습의 잔재이다. 자유연애가 대중의 관심을 끌게 되는 근대초기에 정조의 문제는 새로운 윤리관의 정립에 있어서 중심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김일엽은 연애란 이상과 성격이 맞는 남녀 간의 만남이라는 전제에서 구여성과의 결혼은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하는 논리는 그대로 신여성의 우월의식과 함께 연애를 근대사상의 한 실천행위로 생각하는 논자의 생각을 여지없이 드러낸다.[122]

---

121) 조해일, 『겨울여자』, 문학과지성사, 1976, 265면.
122) 이태숙, 『문화와 섹슈얼리티』, 예림기획, 2004, 160면.

이화형이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이유의 가장 핵심되는 부분은 역시 그 가족이기주의에 대한 경계인 것 같소. 그리고 이화형의 그 비범한 관찰에 나는 탄복한 바 있소. 그런데 내 어리석은 의견으로는 이화형의 가족이기주의에 대한 관찰ㄹ은 아무래도 좀 너무 부정적인 측면으로만 기울어진게 하닌가 하는 생각이오. 이를테면 가족의 긍정적인 측면은 관과해버린. 가족 제도는 내가 생각하기엔 개인이 존재할 가치가 있는 만큼은 존재할 가치가 있는 제도인 것 같소. 개인에게 선악이 있듯이 그리고 가족 단위에도 선악은 있을 수 있소. 가족이기주의는 말하자면 그 선악에 있엇서의 악의 측면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개선 해 나갈 수 있소. 아까 이기주의가 가족의 한 속성내지는 생리라고 했는데 개인이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듯이 또는 적어도 극복하려고 노력하듯이 가족도 그것을 극복 내지는 극복하려는 노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개인이 그것을 극복하기가 어려운 만큼은 또는 그 이상 가족도 그것을 극복하기가 어려운 일일 거요. 하지만 그게 가족의 존립 자체를 위험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소. 물론 이화형은 가족 제도 자체를 부정한다고는 하지 않았소. 하지만 가족이기주의라는 어쩔 수 없는 속성에 빠질 것이 두려워서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의 말을 했소. 그러나 내 생각은 달ㄹ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화형은 그렇게 될 위험이 가장 적소. 그 위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오. 개인의 경우에 있어서 자기가 이기주의자가 될 것을 정말 두려워 하는 사람가운데 실제로 이기주의자가 되는 사람은 극히 드문 것과 같소. 다시 말하면 아름다운 개인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듯이 아름다운 가족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게 내 생각이오.[123]

전통적으로 결혼을 통한 가족의 형성은 경제적 최소단위였다. 결혼을 통한 재생산과 경제적 공동체의 구성은 개인의 생존을 위한 최소단위였다. 여자와 남자가 만나고, 두사람이 결혼의 형식을 통해 삶을 공유해가는 과정은 인류역사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인 유형으로 계승되어 왔다. 어떤 개인도 이러한 사회적 통과의례에서 예외적일 수는 없는 것으로 이해되었고, 만약 이러한 과정에서 불가피한 이유로 벗어나게 되는 경우는 문제적 개인으로 간주되었음이 이제까지의 사회적 인식이었다. 결혼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의식의 차이가 또한 다르다. 남성에게 있어서 결혼은 개인의 사회적 성취의 하나의 단계이다. 그에게는 사회적 성공을 위한 하나의 부수적인 요건중의 하나가 결혼이었다. 그러나 반면 여성에게 있어서 결혼은 여

123) 조해일, 『겨울여자』, 문학과지성사, 1976, 621면.

성의 삶 전체를 형성한다.[124] 그러므로 소설에서처럼 남성들이 현실적인 해결능력 없이 사회에 대한 반감만 갖고 그에 대한 좌절을 이화를 통해 해소 하는데 비해 이화는 자신의 삶을 통해 획득한 가족 이기주의에 대한 감각을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비혼을 통해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 소설에서 계몽주의적 인물의 정점을 찍고 있는 광준의 경우 이화가 경계하는 가족이기주의를 충분히 알고 있으니 가족이기주의의 위험을 인지하고 살 수 있지 않냐며 자신과의 결혼을 제의한다. 즉 광준은 "아름다운 가족"의 가능성을 말하지만 이화가 광준과 결혼했을 경우,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 주는 것을 용납할 수 있겠냐고 반문하자 말문이 막히고 "이화형을 독점해보겠다고 생각한 내가 잘못이었소"라고 시인한다. 이것은 이화가 가족이기주의의 근본적인 문제가 남녀의 불평등한 관계 및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라는 점 또한 체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이화 혹은 작가가 이것을 의식적으로 의도했느냐의 여부를 떠나 당시 한국 사회의 가족제도 자체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만연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화는 여성으로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집겨레이자 가족 이기주의자로 빠질 가능성이 있는 결혼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남성 인물들은 가정 내지는 사회에서 소외된 인물들이다. 이화가 만난 첫 번째 남성인 민요섭은 아버지의 정치적인 부정을 알고 가정으로부터 소외된 인물이다. 두 번째인 우석기는 대학생이다. 그는 학교재단의 부정사건들로 인해서 사회와의 갈등을 통하여 군대에 가게되는 사회로부터 소외된 인물이다. 세 번째인 교수 허민은 부인과 이혼한 상태로 가정으로부터 소외된 인물, 네 번째인 김광준은 집을 나와서 천막학교에서 철거민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가정과 사회로부터 소외된 인물이다.

「겨울여자」에서는 이화라는 여인이 자율적인 여성의 모습이지만, 결국은 남성의 낭만적인 사랑에 도구화되는 여성의 모습이다. 이화가 만난 민요섭, 우석기는 사회적인 갈등을 지니고 있다. 전자는 부정적인 정치인인 아버지, 후자는 학교재단의 부정사건으로서의 소외가 심하다. 그러나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화와의 낭만적 사랑의 추구에 있다. 정치적 입장인 부정부패는 부차적인 의미를 지닐 뿐이다. 피상적이고 무의미 할 뿐이다. 그들은 죽음으로써 사회적인 갈등을 해소한다. 그러나 그들이 추구한 이화와의

124) 이태숙, 『문화와 섹슈얼리티』, 예림기획, 2004, 173면.

사랑은 그녀의 삶에 영향을 준다.

추구하는 장소는 남성성의 전통적인 상징으로 간주되는 곳, 권위와 위신을 지탱하는 곳인 가정인 것이다. 그들에게 있어 사랑은 자신들의 이상적인 공간을 건설하기 위한 도구밖에 되지 않는다. 이화를 도구화 한 낭만적 사랑은 결국 살스비의 말처럼 남성에 대한 절대적 의존, 자발적 순종을 자처하는 사랑으로서 한 사회의 성원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허위의식이라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여성을 억압하고 종속시킴으로써 여성의 진정한 해방을 가로막는 요인으로서 말이다.[125]

「겨울여자」에서는 성적인 자유가 몸의 해방적인 인식으로 그려지고 있다. 몸에 대한 해방적 인식은 마치 그녀의 주체적인 모습을 찾아가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여성의 몸은 남성들의 성적인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도구화와 좋은 남편을 선택하여 기존의 가족체제에 귀환하기 위한 것이다.

자신의 육체에 관해서는 그것이 처음부터 그렇게 아끼고 도사릴 만한 특별히 소중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에 도달했다. 애초에 자기라는 개체 자체가 그렇게 인색하게 아끼고 도사릴 만한 존재는 아니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다.[126]

위의 문장에서처럼 이화는 자신의 육체에 대해서 자연스럽고 전복적인 인식을 보여준다. 그러나 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행동화될 때에는 해방의 차원으로 나아가기보다는 남성의 성적 즐거움의 도구화로 드러난다는 점이다. 굶주린 남성을 성적으로 해소시켜 주는 모습을 보일 뿐이다. 이화와 남자와의 관계에서는 '육체'라는 것이 발전적인 측면으로 해석 되지 않고 별개의 문제로 취급되고 있다. 즉 성으로 인한 인식의 변화가 드러나지 않는다. 단지 그 남성들에게 위안의 차원으로만 보여질 뿐이다.

「겨울여자」는 현실을 절망적으로 인시하기까지의 궤적과 그것에 대한 도전이 부권과 성적 관습으로 집약된다. 즉 부권 내지 부권이 지닌 힘의 논리가 사회적 억압으로 작용하며, 그 억압은 개개인에게는 성적 관습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즉 성적 관습은 가족 이기주의를 만들어내는 강요된 도덕성으로, 획일화되고 규격화된 윤리로 상징화되어 개개인의 삶을 억압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

125) 김현주, 「조해일의 『겨울여자』론」, 국학자료원, 2002
126) 조해일, 『겨울여자』, 문학과지성사, 1976,

이화는 현실의 논리로서는 실현 불가능한, 현실에서 채워지지 않은 욕망이 실현될 수 있는 세계를 꿈꾸고 그런 세계를 향해 돌진한다. 그녀가 바라보는 허위의 세계는 허위로 에워싸여 있고, 사람들을 옥죄하는 부조리한 세계이다. 그런 허위의 세계는 아버지로 표상 되는 인물들이 지배하는 세계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겨울여자」는 한국 자본주의가 표방하는 이데올로기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옹호하려는 작가 의식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화의 정신적·육체적 성숙과정에서 본다면 성장소설의 면모를 보이고 있지만, 남성인물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면 사회 고발적인 성격 또한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화를 둘러싼 남성들 중에서 주요인물은 민요섭, 우석기, 허민, 김광준 등인데 허민을 제외하고 나머지 인물들은 당대 지배 권력의 부조리를 폭로하고 당대 사회상을 고발하고 있다. 특히 이 소설에서 지배 이데올로기가 아버지라는 존재로 표상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민요섭과 김광준, 그리고 우석기에게서 발견 할 수 있다.

광준의 경우는 요섭과는 다른 삶을 보여준다. 요섭이 정치가인 아버지를 부정하기 위해서 사회와 단절했다면, 광준은 대사업가인 아버지를 부정하기 위해 사회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 광준은 건설회사 사장 아들이다. 건설업은 70년대 고도 경제 성장의 주요 업종으로 등장한다. 근대적 도시 건설에서 건섭업은 한국 자본주의 발달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그런데 그 아버지에 의해 건설된 도시 뒷면에서는 생활 터전을 잃고 수없이 전전해야 하는 도시 빈민들이 생성된다. 도시로 편입되었으나 도시적 삶이 요구하는 가족배경, 교육배경, 생활수준에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주변부 인물들은 도시 빈민층으로 전락한다. 글들은 도시 변두리에 그것도 남의 땅에 움막 같은 집을 짓고 살아가야 하며, 일용직 잡노동 내지 기초 생활비 이하의 수입을 얻는 직업에 의지하며 살아간다. 그런 빈민들의 삶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광준은 사회적 부와 명예라는 기득권을 버리고 빈미들과 더불어 살아간다. 빈민촌에 생활터전을 잡은 그는 사상적 동지이며 연인으로 이화를 받아들인다. 따라서 그는 이화를 존중하는 가운데 친밀감을 유지하려고 한다.

반면에 우석기는 요섭과 광준과는 다른 의미에서 아버지를 통해 지배 이데올로기를 체험하게 된다. 요섭과 광준이 자의식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아버지의 덕으로 현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그러나, 석기의 경우는 정반대이다. 반공이념이나 경제성장에 따른 만족감은 석기 개인에게는 도달 불가능한 것이며, 거짓된 이념일 뿐이다. 그는 빨갱이 자식이라는 이유로 초등학교 시절 선생님과 아이들로부터 떠돌림을 당한다. 실제로 그의 아버지는 자유당의 부정 선거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인데도 불구하고, 반공이데올로기의 희생자가 된 것이다. 석기는 어린 시절부터 지배권력에 협조하지 않은 아버지로 인해 정치적인 시련을 당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지배 이념이나 제도에 의해서 개인의 운명이 일순간에 달라질 수 있는 세계가 현실임을 남들보다 일찍 인식한다. 아버지로 인해 그는 거짓으로 가득 찬 현실에 대항하여 살아가는 방식으로 반공의 허위를 뒤집어 쓴 정치현실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길을 선택한다. 그러므로 그는 정치운동에 몰두하게 되고, 그러한 자신의 시념에 이화를 종속시키려고 한다. 이렇게 형성된 관계는 이화와 상호 친밀감을 유지하는 관계라기보다는 일방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관계가 된다.

이와 같이 아버지의 존재는 1970년대 한국 사회의 축도이다. 즉 비열한 정치가, 대자본가는 1970년대 지배세력, 거짓의 벽을 티쟁하는 두 축이다. 반면에 공상주의자는 그 반대축에 존재하지만 결국 반공이라는 지배 이념을 공고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다시말해 지배세력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 소설은 경제 성장과 독재 권력, 그리고 그것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반공이념이 세 인물을 통해 압축적으로 제시된다. 그런데 이 소설이 이러한 지배권력의 힘이 장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지배 권력의 힘 안에서 싹트는 반항의 씨앗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또다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즉 이 소설은 아들의 세대가 이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현실에 어떻게 부딪히는가를 보여준다.[127]

요섭은 현실과 정면으로 부딪히지 못하는 인물이다. 대신 아버지의 권력이 못 미치는 성적 사랑에서 아버지로 인해 받은 상처를 보상받으려 한다. 그러나 그의 사랑 방식은 친밀감을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욕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었다. 친밀감이이란 타자에게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특성을 아는 것 그리고 자기의 특성을 활용 가능하게 만드는

127) 권영민,「대중소설과 통속소설」,『예술과 비평』, 1984.

것이다. 그런데 그의 사랑은 '사랑할 누군가를 발견하고, 그 대상에 집착하는 것'이었으므로, 사랑의 대상에게 거부당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거부된 사랑의 시도는 자기 파괴로 치닫게 된다. 반면에 석기는 학생운동을 하다 강제 징집 된 후 원인 모를 죽음을 당함으로써 현실에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된다. 넓은 의미에서 세상을 구제하겠다는 그의 원대한 꿈은 그가 죽은 후에 이화를 통해서 실현된다. 사상적 측면에서 보면 제자격에 해당되는 이화는 스승격인 석기가 원했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의 꿈을 해석하고 실천한다. 즉 이화는 거듭나기를 통해 석기의 꿈을 실천하게 된다.

요섭이나 석기와는 달리 광준은 외부 권력에 의해 끊임없이 그의 존재기반이 끝없이 위협 당하지만 굴복하지 않는 의지적 인물이다. 비록 그의 아버지가 그의 생활터전이면서 저하의 터전인 야학천막을 짓밟고, 심지어 불태워버리기까지 하지만, 그의 수그러지기는커녕 더욱 확고해진다.

광준처럼 지배담론을 거부하는 것은 지배 담론의 입장에서 보면 기득권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행위인 동시에 비일상적인 행위로 비쳐진다. 하지만 이런 '비일상적인' 행위는 왜 '일상성'을 포기해야만 하는가를 묻는 자리가 된다. 그 의문은 다시 자본주의 '일상성'을 반성하는 계기로 발전한다. 그 결과, 그들의 비일상적인 행위가 실은 진정한 인간적 삶을 추구하기 위한, '의미 있는 일상성'을 회복하기 위한 길임을 암시한다.[128)]

이상에서 보듯이 세 인물 모두 주인공 이화와 관계망을 형성한다. 이들은 이화를 통해 현실과 소통하면서 지배담론을 부정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이화 역시 이 세 인물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현실을 인식한다. 그러므로 이화는 세상과 소통하고 현실을 인식하기 위해, 거듭나기 위해 고통을 겪는다.

「겨울여자」의 이화는 생계 수단으로 창녀는 아니지만, 삶의 목표를 성취하는 수단으로 성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창녀와 유사한 타자의 행위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화 역시 자본주의 일상성에서 파생되는 인간 소외를 극복하고 의미 있는 일상성을 회복하려 한다. 그녀는 의미 있는 일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성적 관습에서 해방되어야 한다고 인식한다. 인식은

128) 김현주, 「조해일의 『겨울여자』론」, 국학자료원, 2002

성적 대상의 개방으로 실천된다. 이화의 실천을 단순한 성적 일탈로 오인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화가 왜 성적 관습에 집착하고 그것을 파괴하려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파괴시키는지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1970년대 성담론은 중요한 문학적 모티브가 된다. 사회적 측면에서 살펴볼 때, 성담론의 활성화는 정치적 담론과 관련이 있다. 특히 70년대 성담론은 정치적 담론이 억제되는 장소에서 정치적 담론을 드러내는 간접적 방식이다. 성장논리와 반공 이데올로기가 70년대 한국 사회 발전, 곧 문명의 이념이라면, 성담론은 그 이념을 지탱하는 조건을 거부함으로써 그 허위성을 폭로, 부정한다.[129]

이화의 성적 일탈행위는 성적 관용으로, 타인과 더불어 성적 즐거움을 향유하면서 친밀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박애가 실현되는 자리이다. 석기와 하룻밤을 보낸 후 그녀는 모든 사물을 이전과는 다르게 인식한다. 병을 앓고 난 후에야 그녀는 개인적인 주변사에서 사회적인 문제로 관심영역이 확장되면서, 사회적 실천에 눈을 돌린다.

그녀의 일차적인 사회적 실천은 결혼 거부하는 것으로 표면화된다. 폐쇄적인 가족제도의 틀로 편입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특히 미국 유학생 안세혁과의 결혼을 거부하는 것은 이화 개인에게 주어질 경제적 사회적 안정, 교환가치로서의 성을 거부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거부행위는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현실논리와는 상반된 것이다. 이화에게 성은 자본화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박애를 베풀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이런 성적으로 관용하는 것은 민요섭과 우석기에 의해서이다. 요섭은 이화를 일방적으로 좋아하다가 사랑을 성취하지 못하고 자살한다. 그런데 이화는 요섭의 죽음이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죄책감이 자기 반성의 계기가 된다. 즉 이화는 요섭의 죽음을 통해 자신이 사회의 소단위인 가족을 지탱해온 신념, 폐쇄적인 사랑에 갇혀 있었음을 인식한다.

이화는 폐쇄적 사랑을 강조하는 가족 이데올로기를 부정한다. 이러한 부정을 통해 지배 이데올로기의 핵심인 가족은 이기적인 집단주의를 낳은 집합체라는 인식에 도달한다. 가족주의가 파생한 관습의 벽이 거짓과 허위로 둘러싼 벽이라는 인식 하에, 이화는 거짓의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일

129) 김현, 「70년대의 문학과 상업주의」, 문학과 지성사, 1994.

상어나 사회적 규범이 지닌 모순을 제거하려 한다. 또한 그녀는 언어적 표현 외에 언어외적 표현도 중요한 의사소통 기능으로 이해한다. 이화와 관계망을 형성하는 인물들은 사회적 문제는 언어로 표현하는데 반하여, 양심의 갈등은 동작이나 눈빛으로 표현한다. 이런 언어외적 표현을 해석함으로써 이화는 상대를 이해하고 표용하면서 관계를 형성한다.

이화는 이러한 방식으로 소외된 자들을 포용함으로써 그들에게 위안이 되는 한편, 돈과 권력으로 추구하는 현실적 가치와는 무관한 가치, 즉 진정한 인간적 가치를 추구하려고 한다. 어떤 점에서 결혼이라는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이화는 순결한 여성과 가정을 꾸리려는 당시 가부장적 남성 관객들에게 일종의 안심을 제공하기도 했을 것이다. 순결하지 않은 여자가 아내, 엄마가 되는 결말은 당대 지배적 이데올로기가 허락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한 사회가 제도적으로 부당할 때, 개인의 양심만이 그 사회를 건전하게 지탱하는 힘이 된다. 1970년 상황이 바로 그런 개인의 양심이 요구되는 사회임을 보여준다.[130] 이화를 둘러싼 인물들은 이러한 개인적 양심 때문에 괴로워하는 인물들이다. 즉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는 정치가인 아버지, 건설이라는 미명 아래 시민의 생존권마저 위협하여 도시 빈민으로 전락시키는 대사업가인 아버지 때문에 괴로워하고, 스승과 제자 내지 죽은 친구의 여자친구 라는 의리 때문에 괴로워한다. 이들은 양심 때문에 슬픔을 껴안고, 그런 슬픔을 그녀에게 전달한다. 이화는 이들과 소통함으로써 현실을 인식하고 그것에 대응한다.

이화의 행위가 타인, 즉 남성의 성적 억압을 무너뜨리는 행위에 집착해 있는 한, 그녀는 남성의 타자로만 존재한다. 광준과 같은 도시빈민 운동가와 함께 도시빈민의 복지를 위한 사회적 실천을 한다고 하지만, 그녀는 언제나 남성의 보조적 역할을 할 뿐이지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녀는 성적 관습이나 상식에 능동적으로 도전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자율적 주체인 듯하나, 그것은 허상에 불과하다. 실제로는 그 자리에서 타자성을 확인하게 된다.

1970년대 한국 자본주의는 고도 성장의 한국 자본주의 논리는 민주주의 원칙과는 반대의 지점에서 행해짐으로써 획일적이고 전일적인 힘을 발휘한

130) 김현주, 「조해일의 『겨울여자』론」, 국학자료원, 2002

다. 한국 사회는 자유경쟁이나 능력 위주라는 자본주의의 근본 원칙뿐만 아니라 자유, 사랑, 평등이라는 민주주의 원칙과는 다른 방향을 걷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한국 사회는 근본적으로 그 구조의 취약성과 도덕적 허약성을 갖는다.

특히 가부장적 논리는 자본주의의 상품화 논리와 연결됨으로써 강화된다. 이것은 성담론을 통제하는 동시에 재생산하는 모순된 양상을 빚어낸다. 그러므로 1970년대 성담론은 여성 자신의 존재론적 의미를 찾는 방식이 아니라 남성의 타자가 존재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의 한계는 가족이기주의 즉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거부하지만, 그것에 내재한 성차별 구조를 전복시키는 힘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화가 보여주는 비주체적 여성상이다. 이것은 모성성과 처녀성을 지닌 여성만이 순수한 여성이라고 이해하는 작가의 여성관에 기초한다. 작가는 작품 후기에서 이화라는 인물이 '이 황량하고 추운 겨울에 따뜻함과 순결을 잃지 않는 어떤 여자이'며, '모든 추워하는 남자들의 마음을 자신의 따스한 체온으로 감싸주는, 그러면서도 마음의 순결을 잃지 않은 어떤 여자'라고 밝히고 있다. 이것은 여성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고 성적으로 관계를 맺을 때, 여성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는 논리이다. 희생정신과 성적 관용을 갖춘 여성관은 여성의 희생을 강요하며 타자로 두고자하는 남근중심주의, 지배 이데올로기의 재현이며, 재생산의 기제이다.[131]

「겨울여자」는 부권사상을 드러내고 남녀평등 사상을 추구하는 전형적인 양상이 나타난 작품이다. '가정생활에서 남녀평등을 주장하기'와 '결혼을 하지 않다'의 방법으로 부권해체를 이루려고 하는 인물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면 늦게 나온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현대사회에서 여성이 여전히 전통사상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한계성을 지니고 있음을 날카롭게 보여준다.

「겨울여자」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사랑"에 기반한 대안 사회를 제시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젠더적 위계에 따른 또 다른 폭력은 직시하지 못했다. 그래서 작중 이화의 존재는 매우 비현실적으로 제시되며, 당대를 넘어선 너머로 나아가려던 대안 사회 또한 아직 도래하지 못할

131) 김현주, 「조해일의 『겨울여자』론」, 국학자료원, 2002.

(불)가능의 지점으로 남겨진다.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자본주의 체제가 결합된 사회에서는 남성에 의해 순결성을 훼손한 여성은 또한 남성에 의해 통제되는 모순적 상황에 처하게 된다. 라이히에 따르면 성의 억압은 모든 문화적 형태 속에서 나타나는 특정한 부권주의적 문화라는 대중심리학적인 토대를 형성시킨다. 여성의 육체는 남성에 의해서 관람되고 통제되는 이중의 시선에 의해 포착된다. 여성이 스스로를 본다고 착각하지만, 본질적으로 남성의 시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132]

이화는 독자들에게 성 해방이나 여성 해방을 위해 현실과 갈등하고 맞서는 강렬한 캐릭터로 느껴지게 된다. 이런 여성해방소설로 읽는 독자의 "오해"에 대해 조해일은 글의 마지막에 아래와 같이 이야기 한다.

겨울을 사는 이들에게 따스한 체온을 나눠주는 역할이 여주인공이 맡은 몫이다. 이 대목이 다소 우화적이고, 따라서 오해도 조금 낳는다. 거기에 양념으로 곁들인 여성해방에 관한 나의 짧고 어설픈 식견의 피력(물론 여주인공의 입을 빌린)이 그 오해를 증폭한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러한 오해들이 이 독자들로 하여금 그 소설을 재미있는 소설로 비치게 한 모양이다. 독자들이 아주 재미있어한다는 신문 문화부의 격려 섞인 전갈을 나는 듣게 되었다. 어떤 이유든 내 소설을 독자들이 재미있어 한다는 것은 불쾌할 까닭이 조금도 없는 일이다. 여성해방소설로 오해해서 읽든, 별난 여자애의 별난 연애를 다룬 별난 연애소설로 읽든 그것은 읽는 이들의 권리이다.[133]

조해일은 이화가 "겨울을 사는 이들에게 따스한 체온을 나눠주는 역할"로서 설정된 인물, 심지어 우화적 인물이라고 말한다. 그 역할 때문에 본의와는 달리 이화가 성 해방, 여성 해방을 추구하는 도발적인 여주인공의 이미지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다. 조해일이 말한 이화의 역할은 물론 그 이전에 "겨울을 사는 이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의 역할을 전제한다. 주인공의 편력과 함께 세계의 비참한 현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주인공은 그때마다 그 현실에 갇힌 이들에게 "따스한 체온을 나눠주는"과업을 수행한다. 이 구도 속에서 비참한 겨울에 온기를 가져다주는 문제 해결자

132) 이수현, 「<겨울여자>에 나타난 저항과 순응의 이중성」, 한국문학연구학회, 2007.
133) 조해일, 『겨울여자』, 문학과지성사, 1976, 703면.

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사회의 기능도덕을 뒤엎는 문제아, 혁명아가 될 수도 없는 것이다. [134]

결혼의 개념 자체를 거부하고 놀라울 정도로 자유롭게 이 남자에게 저 남자로 성적인 편력을 이어가는 여주인공 이화를 모든 것을 포용하고 구원하는 모성신의 형상으로 끌어올린 것이야말로 이 소설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독자의 폭발적 반응을 끌어낼 수 있었던 핵심적 요인이다.

134) 오자은, 「『겨울여자』에 나타난 초성장의 서사와 그 의미」, 한국현대문학회, 2021.

4.결론

소설은 흔히 꾸며진 이야기라는 평범한 정의로 규정되고 있지만, 작가의 삶에 대한 총체적인 경험을 반영하게 마련이다. 일상적인 현실에서의 잡다한 경험들은 소설의 세계 속에서 재구성되고 질서가 부여되며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게 마련이다.[135)]

조해일의 소설은 작가의 경험적 현실에 바탕을 둔 것이라 하더라도 확실한 윤곽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소설적 의미의 극도의 함축성이 여기에서 비롯된다. 그의 소설은 또한 인생의 질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어떤 요소를 지니고 있기도 하다. 그의 뛰어난 관찰력과 세부적인 묘사, 특이한 언어, 구사의 섬세한 문체가 그 요소를 전달한다. 이러한 조해일의 소설적 수법은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현학적인 심각성을 회피하면서도 일종의 유쾌한 당혹감을 느끼게 하며 인간의 참모습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극적인 창의성을 지니고 있다. 그는 비교적 단편적인 내용의 작품 세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그 자체로서의 고유한 신념과 객관성을 지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아무 것도 회피하지 않는다. 그의 작품 우리들이 처하고 있는 현실적 고뇌에 어떤 출구를 제공하고 있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우리들의 정신속에 그러한 고뇌를 반사해주는 여러 가지 징후를 담고 있을 뿐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현실 세계에 대한 의식이 강한 그의 소설 속에서도 용케도 모든 것에 결론을 지고자 하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상상력의 함축성을 살려 낸다. 인간이 살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삶이 충족될수 없다는 엄연한 사실을 놓고 그가 소설을 통해 펼치는 지성의 드라마는 언제나 그의 독특한 사상적 톤을 유지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136)]

작가는 소위 말해서 4.19세대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강렬한 열망을 20세에 경험한 그는 28살에 문단에 들어선다. 4.19세대 자가들처럼 그도 그의 작품에서 자유와 평등에 대한 갈망을 분출하려고 했다. 특히 1970년대 한국사회는 민주적 원칙을 억압하는 제도적 장치가 산재되어 있는 사회였다. 그런 사회에서는 인간적 삶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갈망에 대한 분출 욕구가 강렬해진다. 그의 작품 역시 그런 강렬한 열망이 어떻게 장신화와 반공주의에 의해서 억눌려지고 있으며 분출되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준

135) 한금윤, 『한국 현대소설 형성과 현대성 담론』, 동양서, 2005, 269면.
136) 권영민, 「내용과 수법의 다양성」,

다.

2장은 「매일 죽는 사람」「뿔」「아메리카」는 일상생활을 알레고리 기법으로 분석해 박정희 정부, 및 당시의 사회를 폭로하였다. 그의 많은 중·단편들이 보여 주는 것은 독특한 발상을 통하여 제기하는 변두리적 삶의 비극적 알레고리이다. 「매일 죽는 사람」과 「뿔」의 주인공이 각각 그 시대의 삶을 껴안고 있는 모습은 무기력한 개인의 우스꽝스런 삶이지만, 그 내면에 참담한 고통과 진정한 비극이 있다.

조해일은 1970년대 국가주도의 산업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사회적 불평등과 부조리함을 대중소설 안으로 끌어들임으로써, 독자대중으로 하여금 저항적 즐거움을 제공한다. 그리고 그의 문학세계는 궁핍한 시대에 정치적 폭력과 경제적 식민성으로 시달리는 이 사회를 폭넓게 조명하며, 이 같은 간고한 상황에서 인간이 어떻게 아름답게 살 수 있는가란 매우 진지한 문제를 제기를 하였다.[137]

한국사회에서 1970년대 성과 육체의 담론은 산업화와 더불어 진행되면서, 성과 육체의 상품화와 그것에 대한 비판의 논의가 동시에 진행된다. 성 상품화를 주도한 매춘의 확대는 급격한 산업화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산업화의 첫 단계에서 여성은 가정에서 시장으로, 지방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남성보다 불리한 임금 노동자가 된다. 다시 말해서 경제 발전이 전체 사회의 물질주의적 수준 향상을 가속화할수록, 특별한 기능을 습득하거나 물질적 혜택을 받지 못한 여성들은 물질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쉬운 수단으로 매춘을 선택하게 된다. 상품세계의 한국사회에서 성매매 여성 즉, 상품 판매자인 동시에 상품인 '거리의 여자' 야말로 가장 순수한 의미에서의 상품이며 이로써 근대의 가장 핵심적인 알레고리가 된다.[138]

「아메리카」 기지촌 여성들은 한국 근대화의 '근대화 그늘'이었다. 그들은 '박탈당한 존재'로서 '은폐와 폭로'의 접경 지대에 있었다. '조국 근대화'라는 상징과 '외화소득'이라는 실질이 기지촌 매매춘 여성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이었다. 이들은 1970년대의 특수한 한국적 상황을 드러내면서,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여성 하위주체이다.

---

137) 김병익, 『김병익 비평집』, 동양서, 2005, 219면.
138) 김영옥, 「70년대 근대화의 전개와 여성의 몸」, 여성학논집 제 18집,

1970년대 미군기지(촌)을 둘러싼 서사는 '은폐하면서 폭로하는' 이중적 모순의 중첩지대였다. 닉슨 독트린과 '7·4남북공동성명'이 미군에 대한 성찰적 인식을 촉발했던 것은 의외의 효과였다. 하위주체가 '배제되거나 주변화되어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린 존재'라고 했을 때, 미군 기지(촌)형상화 소설에서는 기지촌 여성들은 '여성하위주체'다.

3장은 「겨울여자」는 남녀간의 사랑이야기를 모티프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며 자본주의체제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비판하고 그에 대해 저항하였다. 이화의 의식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전통적 가치관에 대한 저항과 새로운 인식이다. 작품의 초반, 이화는 교목인 아버지 중심의 가정에서 자라나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가치관에 순응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이러한 이화가 자신을 짝사랑하는 민요섭의 작은 포옹조차 거부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러나 민요섭의 자살과 우석기의 죽음을 잇달아 경험하면서, 이화는 점차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결혼에 따른 가족 이데올로기를 부정하기에 이른다.

「겨울여자」의 특수성은 성과 가족 이데올로기에 대한 전복, 지배권력의 폭압성의 고발이라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화는 가부장제 사회에 따른 결혼제도를 부정하고 '성'을 통한 전통적 가치관에 정면으로 대항한다. 그리고 대중소설로는 드물게 당대 지배 권력의 폭압성을 고발하며 사회비판적 저항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화라는 여성을 통해 표현코자 했던 '성처녀' 이미지는 남성적 시선과 욕망에 의해 일그러지고 은폐되어 성적 쾌락에 몸을 던진 여성을 그려내고야 말았다. 그러한 핵심적인 모순에도 불구하고 영화는 알찬 영상과 에로티시즘과 산문적인 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관객의 호기심을 만족시키는데 성공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비판적 모습은 유신체제하라는 시대적 한계에 부딪혀 그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모든 매체에 적용된 엄격한 검열과 규제에서 겨울여자 또한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것이다.

이화가 가정이라는 집단이 가부장제 사회에서 형성된 이기주의의 산물임을 인식하고 결혼을 거부하는 것은 전통적 가치관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것이다. 이화는 결혼의 비합리성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성적 해방을 선택한다.

「겨울여자」는 동시대 다른 대중소설들과 달리 지배 권력의 이데올로기

에 대한 저항적 요소를 상당부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서사적으로 개연성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기존 인습 체제에 순응하는 모순된 논리를 보이고 있다.[139]

남성들의 슬픔과 시대적 고뇌를 육체로 위로해주는 구원의 성처녀라는 이미지는 이화가 성장하는 자아가 아니라 이미 '초현실적 완성형'이라는 사실을 전제한다. 이화가 경험한 남성들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리얼리즘적인데 반해, 모든 남성을 위로해주고 싶다는 이화의 심리와 행동은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이며 신화적인 여성상에 가깝다.

70년대의 억압적이고 부조리한 사회 현실의 리얼리즘과 그 현실과 대결하는 이화라는 캐릭터의 판타지적 성격이 기형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그리하여 현실정치와 사회문제, 그리고 이를 둘러싼 복잡한 갈등은 현실로부터 초월해 있는 듯한 이화의 '치유와 구원의 서사'로 치환된다.[140]

조해일의 작품은 남성주체의 의식 변화에 주목하기 위해 인간관계를 입체적으로 설정하고 1970년대 도시산업화 속에서 배태된 욕망과 도덕, 정의에 갈등하거나 방황하는 젊은 세대의 내면을 밀도 있게 그려내고 있다.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을 직접적으로 비판할 수 없었던 환경에서 조해일은 소설 내부에 알레고리를 배치함으로써 비판을 가한다. 그러므로 조해일 소설을 통해 1970년대 사회는 진정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

139) 이수현, 「<겨울여자>에 나타난 저항과 순응의 이중성」, 한국문학연구학회, 2007.
140) 오자은, 「『겨울여자』에 나타난 초성장의 서사와 그 의미」, 한국현대문학회, 2021.

참고문헌

1.기본자료

조해일,『제3세대 한국문학. 16 조해일』, 삼성출판사, 1990.
『아메리카 : 조해일 소설집』, 책세상, 2007.
『겨울여자』, 문학과지성사, 1976.

2.단행본

공제욱,「국가와 일상」, 한울, 2013.
김광희,『박정희와 개발독재』, 선인, 2008.
김병익,『상황과 상상력』, 문학과 지성사, 1979.
「호모·파벨의 고통」,『아메리카』, 믿음사, 1978.
김주연,『변동사회와 작가』, 문학과 지성사, 1979.
김진기,『문학으로 사회읽기』, 박이정, 2003.
김치수,『상처와 치유』, 문학과지성사, 2010.
김영찬,『근대성과 페미니즘: 페미니즘으로 다시 읽는 근대』, 거름, 1998.
김학재,『한국현대 생활문화사』, 창비, 2016.
김한식,『현대소설과 일상성』, 월인, 2002.
김현, 『70년대의 문학과 상업주의』, 문학과 지성사, 1994.
김현중,『소설과 정신분석』, 푸른사상, 2003.
김해옥,『현대소설의 여성성과 근대성 연구』, 깊은샘, 2000.
김태호 엮음,『박정희 시대와 한국문학, 한국사회: 체험자와의 대화』, 선인, 2011.
나병철,『근대성과 근대문학』, 문예출판사, 1995.
뤼스 이리가레, 정소영 옮김,『사랑의 길』, 동문선, 2009.
문학과사회연구회 엮음,『문학과 현실의 삶』, 국학자료원, 1999.
민족문학사연구소,『1970년대 장편소설의 현장』, 국학자료원, 2002.
발레리 줄레조, 길혜연 역,『아파트 공화국』, 후마니타스, 2007.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편,『사진으로 보는 서울』4, 2005.
한금윤,『한국 현대소설 형성과 현대성 담론』, 푸른사상, 2005.
한수영,『소설과 일상성』, 소명출판, 2000.
전영돈,『박정희시대의 이중성』, 굽은 나무, 2013.
캐서린,『동맹속의 섹스』, 삼인, 2002.
이상우,『박정희와 유신체제 반대운동』, 중원문화, 2012.
이지수,『박정희 시대를 회고한다』, 선인, 2010.

3.논문

고경선,「『겨울여자』의 영화적 스토리텔링과 한계성」, 건국대학교 스토리앤이미지텔링연구소, 2013.
김병덕,「폭압적 정치상황과 소설적 응전의 양상: 조해일론」,『비평문학』49, 한국비평문학회, 2013.
김현주,「1970년대 대중소설의 '육체'담론」, 한국여성문학학회, 2003.
김지윤,「조해일 소설의 남성성 다시읽기」, 구보학회, 2018.
김치수,「초월적 힘, 혹은 파괴적 힘-조해일의 작품세계」,『조해일 선집』, 신한국문제작가선집 5권, 어문각, 1979.
김영옥,「70년대 근대화의 전개와 여성의 몸」, 여성학논집 제 18집,
김유정,「영화 <겨울여자>의 여대생과 70년대 한국사회의 감정구조」, 대중서사학회, 2015.
김예리,「살아있는 관계의 공적행복-1970년대 김종철 문학비평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학회, 2016.
김원규,「1970년대 서사담론에 나타난 여성하위주체-조해일의 <왕십리>, <아메리카>를 중심으로」,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7.
권영민,「대중소설과 통속소설」,『예술과 비평』, 1984.
권현정,「1970년대 대중소설에 드러난 정치성과 대안 사회의 (불)가능성」, 한국문학회, 2017.
곽승숙,「1970년대 신문연재소설의 여성 인물과 '연애' 양상 연구」, 여성학논집, 2006.
곽희열,「박완서와 장신 소설에 나타난 도시적 일상성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박선애,「기지촌 소설에 나타난 매춘 여성의 문제」, 한국현대소설학회, 2004.
박수현,「조해일의 소설과 도덕주의」, 한국어문학회, 2013.
「'우리'를 상상하는 몇 가지 방식-1970년대 소설과 집단주의」, 우리문학회, 2014.
방민호,「전후소설에 나타난 알레고리 연구:장용학. 김성한 소설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동해>의 알레고리적 독해와 그 의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1.
백경옥,「1970년대 박정희정부의 대중문화통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황석영,「역행의 아름다움-조해일 단편소설 <뿔>해설」,『황석영의 한국명단편101』5권, 문학동네, 2015.
정수복, 이기현 옮,『현대성 비판』, 문예출판사 1996.
조규찬,「여성 이미지에 투영된 대중의 욕망과 환상」, 문예시학회, 2012.
조해일 외,『<매일 죽는 사람>들의 시대』,『33인의 자서전』, 양우당, 1993.
오경복,「한국 근현대 베스트셀러문학에 나타난 사회사-1970년대 소비적 사라의 대리체험적 독서」, 국제비교한국학회, 2005.
오자은,「『겨울여자』에 나타난 초성장의 서사와 그 의미」, 한국현대문학학회, 2021.
오창은,「1970년대 초 한국소설의 미군기지(촌) 재현 양상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9.
오태호,「조해일의「매일 죽는 사람」에 나타난 죽음 모티프 연구」, 우리어문학회, 2010,5,30.
이미영,「『당신들의 천국』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이수현,「<겨울여자>에 나타난 저항과 순응의 이중성」, 한국문학연구학회, 2007.
이화진,「조해일 대중소설의 서술전략과 남성주체의 내면의식」, 반교어문연구, 2018.
이혜정,「1970년대 신문연재소설에 나타난 '결혼'의 의미」, 인문과학연구, 2019.
「조해일 소설의 이방인 의식과 공간탐색- 1970년대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반교어문연구, 2018.
이정옥,「산업화의 명암과 성적 욕망의 서사」, 강남대『인문과학논집』, 제10집, 2001.
이재현,「베스트셀러와 사회심리(상)-'70년대 작품을 중심으로'」, 광장, 1985.

<Abstract >

The Modernization Patterns of Korea in the 1970s in Cho Hae-il's Novel

QUANYULING

This paper aims to study the aspects of modernization in the 1970s in Jo Hae-il's novels. Two factors that cannot be overlooked in discussing Jo Hae-il's literature are the fact that he is a male writer and a writer who experienced the industrialization period. He became a best-selling author with the work "Winter Woman". Because of this, many people recognized him only as a popular novel writer. Popular fiction is a genre that prioritizes popularity and is often criticized for its lack of literature. In particular, most studies have judged Cho Hae-il to be a writer independent of his contemporary ideology.

His literature began in the chaotic social background of the 1970s. In the history of Korean novels, the 1970s was a period of new realism and a period of great transformation. Also, the 1970s was a period of great reign under the Park Chung-hee regime. The 1970s is evaluated as a society in which political power established a dictatorship through authoritarian economic development under the establishment of an ideology for maintaining the system, and drove the people who resisted it into a dissident group. The literature of the 1970s, which responded to the tyrannical Restoration Era, was inevitably resistant to the regime, so it is understood that it focused on overcoming the violence and the irrationalism and inhumanity caused by the regime. Therefore, the literature of the 1970s is evaluated as the literature of the period that sought the narrative of resistance and alternative modernity as the national literature of the industrialization era. The fast-growing economic development brought economic benefits and shed a dark shadow for Korea. In the 1970s, the state's political repression was highly concentrated in order to maintain this political system, and it was widespread in society. Writers in the 1970s produced masterpieces that denounced and criticized the absurdity of this era, and Jo Hae-il was one of them.

Haeil Jo solves problems of everyday life without conceptualizing them all. It is a departure from the artist's realization that capitalist society does not dominate the individual in the ideological realm, but dominates the everyday realm with the 'invisible hand'. It is also an aesthetic feature of Jo Hae-il's novel to capture the specific problems of everyday people living their daily lives. There were no modern novels that set everyday characters as the protagonists of the novel and the small things that occur in everyday life as the events of the novel. It is only in modern novels that novelists have come to give meaning to individual problems by discourse of awareness of 'individual' or awakening of 'self'. it has become As a result, everyday life has been established as an important element of 'modernity' that emphasizes the problem of individuals in modern society. Then, as an aspect of 'modernity', let's take a look at how the aspect of everydayness being narrated in the novel is revealed in detail. The approach to Jo Hae-il's novel should be focused on what the modern self in daily life is set in, and the problems of the modern society in which these characters live.

The novel reflects society and tells the story of society. 1970 was a period of rapid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 However, so far, research on Jo Hae-il has been confined to violence, morality, and masculinity.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modernization process of Korean society in the 1970s from this text by selecting “The Man Who Dies Every Day”, “America” and “Winter Woman” by Hae-il Jo. These four texts show that the author criticizes the inhumanity and irrationality of various contradictions in the industrialization era, including institutional violence.

Chapter 2 defines the meaning of the terms everydayness and allegory in the context of literary history, and connects them with the specific texts “Those who Die Everyday”, “Horn” and “America” through the urban meaning of Seoul as an urban space and trivial daily life. We try to understand the transformation of society in the 1970s. In Section 1, the works titled 「Those Who Die Everyday」 and 「Horns」 appear as a light on urban space as the narrative background of the novel. The economic development policy of the 1960s significantly changed the structure of cities, and cities were formed along with this industrialization. As a result, Korean cities have undergone a compressed development process, causing confusion in values, widespread capitalist desire, and the rapid rise of the urban new middle class due to business speculation. In the works centered on cities during this period, ‘the result of a bright process of rapid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in Korean society through policies centered on development and growth' is reflected. The society of this period can be seen as a "transitional society in which the elements of modernity and pre-modernity are mixed".

The 1970s were also a time when Korea relied heavily on the United States. internally divided. In order to secure stability in major events such as the economic crisis and the presidential election, Park Chung-hee joined hands with the United States. 'America' analyzed the lives of women in US military base villages, mentioning Korea-US relations in the 1970s and exposing the ailing reality of Korea. The novel features a number of parasitic women in the US military base town, and the clumsy behavior with the main character is described in a very sensuous way. It was the ethical responsibility of living with a timid neighbor. So far, research on "America" has focused only on black Americans, women in military bases, and people of mixed race. In verse 2, not only limited to the space of Seoul, but also the life of the camp village in the periphery of Seoul, focusing on the reality of Korea living centered on the United States and the feelings of compassion and sympathy for women in the camp.

Chapter 3 is going to analyze Jo Hae-il's representative work "Winter Woman". As it is a representative work, there are not many studies on 「Winter Woman」. 「Winter Woman」is mainly a love story between a man and a woman, and it can be said that the events unfold. For this reason, Wang Yi's studies focused on love and marriage. trying to research

Key words: modernization, everyday life, lower class, social critique
Student Number: 2019-25790